增修無冤錄諺解 二

十三

增修無冤錄諺解卷之三

溺水死

水深八尺以上이면 委是生前溺死ㅣ니라 ○初春雪寒은 經數日이라사 方浮ᄒᆞᄂᆞ니 與春末夏初로 不同이니라 ○若在江河陂潭池塘間ᄒᆞ야 難以打量四至어든 只看屍浮在何處ᄒᆞ고 如未浮ᄒᆞ야 打撈方出이어든 聲說在何處打撈見屍ᄒᆞ라 ○池塘或坎井有水處可以致命者ᄂᆞᆫ 須量見淺深丈尺ᄒᆞ고 如坎井則量四至ᄒᆞ라 ○凡溺河池를 檢驗之時예 先問元申人호ᄃᆡ 何時예 見屍在水內ᄒᆞ며 見時예 便只在今處아 或自漂流而來ᄒᆞ아

야若是漂流而來어든 卽問是東西南北ᄒᆞ며 又如何流到此便住오ᄒᆞ고 如稱見其人落水ㅣ어든 卽問當時曾與不曾救應ᄒᆞ야고 若曾救應이어든 其人이未出水時에已死ㅣ어나 或救應上岸애 才方死ᄒᆞ며 或卽申官이어나 或經幾時申官ᄒᆞ라 ○井深이오 屍在底則不必量이니 但約深若干丈尺ᄒᆞ고 方漉屍出ᄒᆞ라 ○屍在井中滿脹則浮出ᄒᆞ되 水淺則不出이니라 ○若出이어든 看頭或脚이在上在下ᄒᆞ야 先量見尺寸ᄒᆞ라 ○不出이어든 亦以丈竿으로 量到屍近邊尺寸ᄒᆞ고 亦看頭或脚이在上下ᄒᆞ라

○凡溺井之人을 檢驗時에 問元申人호되 如何知得

井內有人ᄒᆞ며初見有人時예其人死未ᄒᆞ며旣知未死ㅣ면因何不救應ᄒᆞ며其屍未浮ㅣ면如何知得井內有人이고ᄒᆞ고若是屋下之井이어든問身死人의自從早晚이며不見이면却如何知在井內오ᄒᆞ라凡井內에有人이어든其井面에自然先有水沫ᄒᆞᄂᆞ니以此爲驗ᄒᆞ라○若失脚이어든須看失脚處土痕及量水深淺ᄒᆞ라○復檢遲ᄒᆞ야經風日이吹曬遍身上이면屍必皮起어나或生白皰ㅣ니라○檢溺死之屍예水浸多日ᄒᆞ야屍首ㅣ胖脹ᄒᆞ야難以顯見致死之因이어든宜申說頭髮이脫落ᄒᆞ고頭目이胖脹ᄒᆞ고脣口ㅣ翻張ᄒᆞ고頭面連遍身上下皮肉이並皆靑黑ᄒᆞ고褪皮ᄒᆞᄂᆞ니驗是本

人이在井或河內ᄒᆞ야死後에經隔日數ᄒᆞ야致有此ᄒᆞ니
今來에無憑檢驗이라ᄒᆞ고卽不用申說致死因由ᄒᆞ라湊[補]
池中溺死人이經久事發에皮肉이盡無ᄒᆞ고其他에
並無痕跡되어取髑髏骨洗淨ᄒᆞ고將熱湯細細斟灌
ᄒᆞ야從腦門穴入ᄒᆞ야看有無細泥沙屑이自鼻孔竅
中出ᄒᆞ야生前溺死則有沙土ᄒᆞ고死後則無라ᄒᆞ니
물에ᄲᅡ뎌죽은거시라
물깁희八팔尺쳑以이上샹이면실로이生ᄉᆡᆼ前
젼에ᄲᅡ뎌죽은거시니라○初초春츈과雪셜寒
한은數수日일이디나사보야흐로ᄯᅳᄂᆞ니春츈
末말과夏하初초로다못ᄌᆞ디아니ᄒᆞ니라○만
일江강河하와陂피潭담陂피ᄂᆞᆫ웅더리오潭담은소히라과池

ᄃᆡ塘당ᄌᆞ음에이셔ᄡᅥ四ᄉᆞ至지ᄅᆞᆯ자히기어렵
거든다만屍시어ᄂᆡ곳에ᄡᅥ이셔심을보고만일
ᄯᅳ디못ᄒᆞ야건뎌셔보야흐로나왓거든聲셩說
셜호ᄃᆡ어ᄂᆡ곳에셔건뎌屍시ᄅᆞᆯ보앗다ᄒᆞ라○
池디塘당이나或혹坎감(坎감은陂피에셔져근거시라)井졍믈
잇ᄂᆞᆫ곳可가히ᄡᅥ致티命명ᄒᆞᆯ者쟈ᄂᆞᆫ모ᄅᆞᆷ이淺
쳔深심의丈댱尺쳑을자혀보고만일坎감井졍
이어든四ᄉᆞ至지ᄅᆞᆯ자히라○믈읫河하와池디
에(흘너가ᄂᆞᆫ거슬河하ㅣ라ᄒᆞ고흘너가지못ᄒᆞᄂᆞᆫ거슬池디라ᄒᆞᄂᆞ니라)새딘거슬
檢검驗험ᄒᆞᆯ때예몬져元원申신人인ᄃᆞ려무ᄅᆞ

ᄃᆡ어ᄂᆞᆫ새예屍시물속의이심을보아시며볼새예처엄볼새라믄득다만이터ᄒᆡ잇던가屍시즉금잇ᄂᆞᆫ곳이라或혹스스로ᄯᅥ흘너오던가ᄒᆞ야만일이ᄯᅥ흘너왓거든곳이東동西셔南남北븍을무르며이어ᄂᆡ방소로셔와심을무롬이라ᄯᅩ엇디ᄒᆞ야흘너이에다ᄃᆞ라믄득머문고ᄒᆞ고만일그사ᄅᆞᆷ이물에ᄯᅥ러디ᄂᆞᆫ줄을보앗노라ᄒᆞ거든元원申신ㅅ인의말이라곳當당時시에일즉救구應응ᄒᆞ다아니ᄒᆞᆫ다무러만일일즉救구應응ᄒᆞ얏거든그사ᄅᆞᆷ이물에나디못ᄒᆞᆫ새예발셔죽엇던가或혹救구應응ᄒᆞ야언턱에올넘애

ᄯᅩ죽던가ᄒᆞ며或혹즉시관ᄉᆞ에신뎡ᄒᆞ가或혹
몃세나디나게야관ᄉᆞ에신뎡ᄒᆞ다ᄒᆞ라○우믈
이깁고屍시ㅣ밋티이시면구틔야자히디아니
ᄒᆞᆯ떠니ᄉᆞ지ᄅᆞᆯ작힘이라다만깁희연마丈댱尺쳑인고
짐쟉ᄒᆞ고보아ᄒᆞ로屍시ᄅᆞᆯ건뎌내라○屍시ㅣ
우믈가온대이셔ᄆᆞ득이脹턍ᄒᆞ면셔나오ᄃᆡ믈
이엿트면아니나오ᄂᆞ니라○만일나왓거든井경
이나坎감에잇ᄂᆞᆫ거시라머리나或혹발이우희이시며아래
이심을보아몬져尺쳑寸촌을자혀보라머리나발이믈
에셔나온쳑촌이라○나오디아녓거든ᄯᅩᄒᆞᆫ丈댱竿간대막

대라 으로ᄡᅵ屍시ㅣ갓가온편尺쳑寸촌을자히고
또ᄒᆞᆫ머리나或혹발이우히며아래이심을보라
○믈읫우믈에ᄲᅡ딘사ᄅᆞᆷ을檢검驗험ᄒᆞᆯ새애元
원申신人인의게무르ᄃᆡ엇디ᄒᆞ야우믈안희사
ᄅᆞᆷ잇ᄂᆞᆫ줄을아라시며처엄사ᄅᆞᆷ이심을본새애
그사ᄅᆞᆷ이죽엇던가아녓던가ᄒᆞ며이믜죽디아
닌줄을아라시면엇디ᄒᆞ야救구應응티아녀시
며그屍시ᄯᅳ디아녀시면엇디ᄒᆞ야우믈안희사
ᄅᆞᆷ이심을아란ᄂᆞ뇨ᄒᆞ고ᄆᆞᆫ일이집아래우믈이
어든무르ᄃᆡ身신死ᄉᆞ人인의와시미어ᄂᆞ새며

보디못ᄒᆞ야시면믄득엇디ᄒᆞ야우믈안희잇ᄂᆞᆫ
줄을아란ᄂᆞᆫ고ᄒᆞ라믈읫우믈안희사ᄅᆞᆷ이이시면그우믈우희自ᄌᆞ然연히
몬저믈거품이잇ᄂᆞ니일노뻐증험을삼ᄂᆞ니라○만일失실脚각ᄒᆞ야
거든모롬이失실脚각ᄒᆞᆫ곳에흙흔젹을보고밋
믈의깁흐며엿틈을자히라○復복檢검이더듸
여風풍日일이遍변身신우희불여ᄶᅬ기롤디내
면屍시ㅣ반ᄃᆞ시갓치니러나거나或혹흰포진
이나ᄂᆞ니라○믈에ᄲᅡ뎌죽은屍시롤檢검홈애
믈에저젼디날이만하屍시首슈ㅣ肨방脹턍ᄒᆞ
야뻐致티死ᄉᆞᄒᆞᆫ근인을현연히보기어렵거든

맛당히申신說셜(상ᄉᆞ에 보ᄒᆞᆫ 논 말이라)호ᄃᆡ頭두髮발이
脫탈落락ᄒᆞ고頭두目목(頭두面면이라)이胖방脹턍ᄒᆞ
고唇슌口구ㅣ翻번張댱(뒤텨디고 버려시미라)ᄒᆞ고頭두
面면이며 밋遍변身신上샹下하엣皮피肉육이
아오로다 靑청黑흑ᄒᆞ고갓치버서시니驗험홈
애이本본人인이우믈이나或혹河하안ᄒᆡ이셔
죽은後후에날數수를디내여이런형상이잇기
예닐위여시니즉금의빙ᄒᆞ야檢검驗험홀꺼시
업다ᄒᆞ고ᄆᆞᆺ致티死ᄉᆞᄒᆞᆫ因인由유를申신說셜
ᄒᆞ디말올ᄯᅵ니라【보】(깁흔못가온대ᄲᅡ뎌죽은사ᄅᆞᆷ이오라믈디나일이발각홈)

에갓과솔히다입고그다ᄅᆞᆫᄃᆡ다痕흔跡젹이업거ᄃᆞᆫ髑촉髏루骨골을가져ᄲᅦ셔가셕고더운물올가져細세細세히부어흘니ᄃᆡ腦노門문穴혈로조차드려보내이ᄆᆞᆫ흙과모릐ᄅᆞᆯ니코구무가온대로부터나오미이시며업ᄉᆞᆷ을보라生ᄉᆡᆼ前젼에ᄡᅢ티죽어시면沙ᄉᆞ土토ㅣ잇고死ᄉᆞ後후ㅣ면업ᄂᆞ니라○셩젼이면코히흡긔ᄒᆞᆷ을인ᄒᆞ야드러가심이라

自溺死 若病患溺死則不計水之深淺ᄒᆞ고可以致死ㅣ니라○凡溺死之人이若是人家奴婢어나或妻女ㅣ未落水에先已被打ᄒᆞ야在身有傷이오今次에又的然見得是自落水ㅣ어나或投井身死ㅣ어든於格目內에亦須分明具出傷痕ᄒᆞ고定作被打後溺水身死ㅣ니라

○多有鬪毆了애各自分散後에或去近江河池塘

邊ᄒᆞ야 洗頭面上血이어나 或取水喫이라가 才經相打ㅣ라
尙困乏이어나 或困醉리 頭旋ᄒᆞ야 落水渰死호ᄃᆡ 落水時
尙活이라 其屍腹肚ㅣ 膨脹ᄒᆞ고 十指甲애 有沙泥ᄒᆞ고 兩
手ㅣ 向前ᄒᆞᄂᆞ니 驗得落水渰死ㅣ 分明이라 其屍上애
有毆打痕損이라도 更不可定作致命去處ㅣ니 但一一
劄上驗狀ᄒᆞ고 只定作落水致死ㅣ 最便이니 打傷이 雖
在要害處ㅣ오 辜限內ㅣ니 今旣落水身死則是他故致
死ㅣ 分明이니라 相打散애 乘高撲下致死도 亦然ᄒᆞᄂᆞ니 但驗失脚處高下와 撲損痕瘢
致命要害處ᄒᆞ고 仍須根究 曾見相打分散證佐人ᄒᆞᆯ디니라 ○水搵死ᄂᆞᆫ 身上에 無痕
ᄒᆞ고 面色이 赤이면 卽是倒提니라 ○自投河者ᄂᆞᆫ 水稍深

濶則無磕擦沙泥等事ᄒᆞ고若水ㅣ淺狹이면與投井으로
無異니라○自投井者ᄂᆞᆫ眼合手握ᄒᆞ고身間에無錢物
者ㅣ居多ᄒᆞ고推入與自落井者ᄂᆞᆫ手開眼微開ᄒᆞ고身
間에或有錢物之類ㅣ니라○自投井과被人推入井
과自失脚落井者ᄂᆞᆫ大同小異ᄒᆞ니皆頭目에有被磚
石磕擦痕ᄒᆞ고指甲毛髮에有沙泥ᄒᆞ고腹肚ㅣ脹ᄒᆞ고側
覆臥之則口內에水出ᄒᆞ고別無他故ᄒᆞᄂᆞ니只作落井
이니라○投井死人이如不曾與人交爭이오驗面目頭
額에有利刃痕ᄒᆞ되又係舊帶血ᄒᆞ야似生前痕이어든此
ᄂᆞᆫ須看井內ᄒᆞ라有破磁器之屬ᄒᆞ야以致傷着이니人이

初入井時에氣尚未絕이라其痕이依舊帶血ᄒᆞ니ᄂᆞ、若
驗作生前刃傷이면豈不利害리오○落渠死ᄂᆞᆫ其屍口
眼이開ᄒᆞ고兩手ㅣ微握ᄒᆞ고衣裳과幷口鼻耳髮際애
並有青泥汚ㅣ니須脫下衣裳ᄒᆞ고用水淋洗ᄒᆞ고酒噴ᄒᆞ라
其屍ㅣ卽肉色이微白ᄒᆞ고肚皮微脹ᄒᆞ고十指甲에有
泥니라
스스로빠뎌죽은거시라만일病병드럿고癎간疾질
과狂광病병류라빠뎌죽어시면물의深심淺천은不불
計계ᄒᆞ고可가히ᄡᅥ致티死ᄉᆞᄒᆞ리니라○믈읫
溺닉死ᄉᆞᄒᆞᆫ사ᄅᆞᆷ이만일이人인家가奴노婢비

어나或혹妻쳐女녀ㅣ물에드디아녀신제몬져
이믜티기ᄅᆞᆯ닙어몸에샹쳬이셧고수금次ᄎᆞ애
ᄯᅩ的뎍然연히이스스로물에ᄡᅥ러디거나或혹
우물에더뎌身신死ᄉᆞᄒᆞᆫ줄을보앗거든格격目
목안ᄒᆡ屍시帳댱格격目목이라ᄯᅩᄒᆞᆫ모롬이分분明명히傷샹痕
ᄒᆞᆫ을ᄌᆞᆺ초아내고定뎡ᄒᆞ야被피打타後후溺릭
水슈身신死ᄉᆞ로삼을디니라○만히잇ᄂᆞ니ᄲᅡ
화티기ᄅᆞᆯ닙ᄉᆞᆷ애각각스스로ᄂᆞᆫ화흣터딘後후
에或혹가江강河하ㅣ나池디塘당ᄀᆞ에갓가이
ᄒᆞ야頭두面면上샹피ᄅᆞᆯ싯거나或혹물을取취

ᄒᆞ야먹다가ᄌᆞ서ᄅᆞ티기로ᄐᆞ것ᄂᆞᆫ디라오히려
困곤乏핍ᄒᆞ거나或혹困곤醉취ᄒᆞᆫ디라머리둘
니여(머리어즐홈이라) 물에ᄂᆞ려ᄃᆞᆷ기여죽어시ᄃᆡ물
에ᄂᆞ려ᄃᆞᆯ새오히려사란ᄂᆞᆫ디라그屍시ㅣ腹복
肚두ㅣ膨ᄑᆡᆼ脹댱ᄒᆞ고十십指지甲갑애모래와
존흙이잇고두손이압흐로向향ᄒᆞ얏ᄂᆞ니驗험
홈애落락水슈渰엄死ᄉᆞᄂᆞᆫ시分분明명ᄒᆞᆫ디라
그屍시上샹애ᄐᆡᆫ痕흔損손이이실ᄯᅵ라도다시
致티命명ᄒᆞᆫ곳을定뎡ᄒᆞ야삼음이不블可가ᄒᆞ
니다만낫낫치검험문장에벗겨올니고定뎡ᄒᆞ

야落락水슈致티死ᄉᆞ만삼음이ᄆᆞ장便편ᄒᆞ니
打타傷상이비록要요害해處쳐에잇고辜고限
ᄒᆞᆫ안히나이제이믜落락水슈ᄒᆞ야身신死ᄉᆞᄒᆞ
야시면이다ᄅᆞᆫ연고로致티死ᄉᆞᄒᆞᆯ시分분明명
ᄒᆞ니라 서ᄅᆞ티고ᄒᆞᆺ터디매ᄂᆞᆸᄒᆞᆫ듸믈ᄂᆞᆺ다가부 드이저ᄂᆞ려뎌죽은것도ᄯᅩᄒᆞᆫ그러ᄒᆞᄂᆞ
니다만失실脚각ᄒᆞᆫ곳놉ᄒᆞ며ᄂᆞᄌᆞᆷ과부듸이저 샹ᄒᆞᆫ痕흔瘢반과致티命명ᄒᆞᆫ要요害해處쳐를
驗험ᄒᆞ고仍잉ᄒᆞ야모롬이일즉서ᄅᆞ티고허 여ᄅᆞᆯ제본證증佐자人인을根근究구ᄒᆞ라 ○
물에搵온 손으로눌너ᄲᅢ 지운거시라 ᄒᆞ야죽은거슨身신上
샹에샹흔이업고ᄂᆞᆺ빗치븕으면곳이갓고로잇
근거시니라 잇그러것구르팀이라○洗세寃원 錄록에닐오ᄃᆡ놈의게갓고로잇그

러물에搵온홈을 넘어죽다ᄒᆞ니라○스스로물에더딘者쟈ᄂᆞᆫ물
이퍽깁고너르면다딜니고믄딜니며모래와즌
흙들엣일이업고만일물이엿거나좁으면우물
에더딘것과다룸이업ᄂᆞ니라○스스로우물에
더딘者쟈ᄂᆞᆫ눈이ᄀᆞᆷ기고손이쥐이고몸ᄉᆞ이에
錢젼物믈업슨者쟈ㅣ만코밀려드려보낸것과
다못절로우물에ᄲᅥ러딘者쟈더딘기ᄉᆞᆫ有유意 이홈이오ᄲᅥ러딘
거ᄉᆞᆫ失실足 족홈이라ᄂᆞᆫ손이버럿고눈이微미히ᄠᅳ엿고
몸ᄉᆞ이에或혹錢젼物믈의類류ㅣ잇ᄂᆞ니라○
스스로우물에더딘것과ᄂᆞᆷ의게밀티여우물에

드러간것과스스로실족ᄒᆞ야우물에ᄲᅥ러딘者
쟈ᄂᆞᆫ大대同동小쇼異이ᄒᆞ니형증이대톄ᄀᆞᆺ고략간다ᄅᆞᆫ단말이
라 다頭두目목에벽돌이나돌에다딜니며묻딜
니 인흔적이잇고指지甲갑과毛모髮발에모래
와즌흙이잇고腹복肚두ㅣ脹턍ᄒᆞ고녑흐로나
업딜너누히면입안희물이나오고別별로다ᄅᆞᆫ
연괴업ᄂᆞ니다만우물에ᄲᅥ러디다作작홀ᄯᅢ니
라 실인을落락井졍티ᄉᆞ로돌믄自ᄌᆞ投투와推퇴入입을지뎡티못홈이라 ○우물
에더뎌죽은사ᄅᆞᆷ이만일일죽ᄂᆞᆷ과서르ᄃᆞ토디
아녀고驗험홈애面면目목과頭두額익에드ᄂᆞᆫ

ᄂᆞᆯ은셕이이시되또傷의舊구히피ᄅᆞᆯᄡᅴ여生ᄉᆡᆼ
前젼痕흔ᄀᆞᆺ거든이ᄂᆞᆫ모롬이우믈안흘보라ᄭᅡ
여딘사긔부티이셔버傷샹着탹을닐위미니사
ᄅᆞᆷ이처엄우믈에들ᄯᅢ예긔운이오히려ᄯᅳᆺ디아
니ᄒᆞ얀ᄂᆞᆫ디라그흔젹이傷의舊구히피ᄅᆞᆯᄡᅴ엿
ᄂᆞ니만일驗험ᄒᆞ야生ᄉᆡᆼ前젼刃인傷샹을삼으
면엇디利리害해롭디아니리오 해잇단 말이라 ○미쳔
에ᄃᆡ러뎌죽은거슨 병을인ᄒᆞ야것구러뎌러 뎌죽은것도ᄀᆞᆺᄐᆞ니라 그
屍시ㅣ口구眼안이열니고두손이微미히쥐이
엿고衣의裳샹과아오로口구鼻비耳이와髮발

際졔에다프른즌흙더러임이잇ᄂᆞ니모롬이衣의裳샹을벗기고믈로언저빗고술을ᄉᆞᆲ으라그屍시ㅣ곳ᄉᆞᆯ빗치微미히희고肚두皮피微미히脹턍ᄒᆞ고十십指지甲갑에즌흙이잇ᄂᆞ니라

被人溺死 被人推入河ᄂᆞᆫ 水稍深濶則無磕擦沙泥等事ᄒᆞ고若水淺狹이면與投井으로無異라 大抵水深三四尺이면 皆能渰殺人ᄒᆞᄂᆞ니 驗之ᄒᆞ야果無他故ㅣ면只作落水身死ㅣ라ᄒᆞ고 若身有纏索及微有痕損可疑則宜檢作被人謀害置水身死ㅣ라호ᄃᆡ 切宜詳審이니라 ○有故入井이면須脚이在下ᄒᆞᄂᆞ니 若頭ㅣ在下ㅣ면恐被人

趕逼이어나 或推入井이나라

놈의게ᄡᆞ지워죽은거시라놈의게밀텨물에드
린거슨물이퍽깁고너르면다딜니고문딜니며
모래와즌흙들엣일이업고만일믈이엿거나좁
으면投투井졍과다름이업ᄂᆞ니라大대抵뎌믈
깁희三삼四ᄉᆞ尺쳑이면다能능히사ᄅᆞᆷ을渰엄
물에ᄲᅡ뎐디오란거시라殺살ᄒᆞᄂᆞ니驗험ᄒᆞ야과연다ᄅᆞᆫ연
괴업스면다만落락水슈身신死ᄉᆞㅣ라作작ᄒᆞ
고실인을落락水슈身신死ᄉᆞ로돌믄自ᄌᆞ投투와推퇴入입을지뎡티못홀이라만일
몸에민노히잇거나밋져기痕흔은損손可가疑의

흠이이시면맛당히檢검ᄒᆞ야사ᄅᆞᆷ의게謀모害
해ᄒᆞᆷ을닙어물에두어身신死ᄉᆞᄒᆞ다作작호ᄃᆡ
부ᄃᆡ맛당히詳샹審심홀ᄯᅵ니라○부러우물에
드러가시면모롬이밟이아래잇ᄂᆞ니만일머리
곳아래이시면저컨대ᄂᆞᆷ의게좃치이거나或혹
밀티여우물에드러간거시니라

被人殺假作自溺

被人毆打殺死를推在水內면入水深則脹ᄒᆞ고淺則不甚脹ᄒᆞ고肉色이帶黃不白ᄒᆞ고口眼이開ᄒᆞ고兩手ㅣ散ᄒᆞ고頭髻慢ᄒᆞ고口眼耳鼻에無水瀝流出ᄒᆞ고指爪鏬縫에並無沙泥ᄒᆞ고兩手ㅣ不拳縮

ᄒᆞ고手指微屈ᄒᆞ고兩脚底ㅣ不皺白却虛脹ᄒᆞ고身上에
有要害致命打着傷損處ᄒᆞ되其痕黑色이니라
놈의게죽임닙은거슬거즛自ᄌᆞ溺닉을삼은거
시라사ᄅᆞᆷ의게텨죽임닙은거슬밀텨물속에두
어시면드러간물이깁흐면脹턍ᄒᆞ고엿트면ᄆᆞ
이脹턍티아니ᄒᆞ고혹니ᄅᆞ되肚두皮피脹턍티아니타ᄒᆞ니라ᄉᆞᆯ빗
치누른거슬ᄯᅴ여희디아니ᄒᆞ고口구眼안이열
니이고두손이펴디고샹되눅엇고口구眼안과
耳이鼻비에水슈瀝력틈틈히ᄲᅧ려디ᄂᆞᆫ거시라이흘너나옴
이업고손톱틈에아오로모래와즌흙이업고두

손이두손은두폴을니로말이라이굽어주라혀디아녓고손가락은져기굽엇고두밝바닥이주룩주룩허여ᄒᆞ디아니코도로혀虛허히脹턍속이븨고턍홈이라ᄒᆞ고身신上샹에要요害해致티命명엣터셔傷샹損손ᄒᆞᆫ곳의이시ᄃᆡ그흔젹이검은빗치니라

辨生前死後溺

生前溺水屍首ᄂᆞᆫ男은仆臥ᄒᆞ고女ᄂᆞᆫ仰臥ᄒᆞ디男子ᄂᆞᆫ陽氣聚面故로面重ᄒᆞ야必伏ᄒᆞ고女子ᄂᆞᆫ陰氣聚背故로背重ᄒᆞ야必仰ᄒᆞᄂᆞ니走獸도亦然ᄒᆞ니頭面이仰ᄒᆞ고肉色이潰白ᄒᆞ고脚拳ᄒᆞ고兩手兩脚이俱向前ᄒᆞ고口合ᄒᆞ고眼開閉不定ᄒᆞ고兩手ㅣ拳握ᄒᆞ고肚ㅣ脹ᄒᆞ야拍着響ᄒᆞ고兩脚底ㅣ皺白不脹ᄒᆞ고頭髻緊

ᄒᆞ고 頭與髮際와 手脚爪縫과 或脚鞋內에 各有沙泥ᄒᆞ고 口鼻內에 有水沫及些少淡色血汚ᄒᆞ고 或有磕擦損處ㅣ면 是生前溺水之驗也ㅣ니라 ㊉ 其人이 未死에 必爭命ᄒᆞ야 氣脉이 往來ᄒᆞ야 搐水入腸故로 兩手ㅣ自然拳曲ᄒᆞᄂᆞ니 ○因疾病身死로 若被人抛掉在水內ㅣ면 卽口鼻에 無水沫ᄒᆞ고 肚內에 無水ㅣ라 不脹ᄒᆞ고 面色이 微黃ᄒᆞ고 肌肉이 微瘦ㅣ니라

生싱前젼과 死ᄉᆞ後후에 ᄲᅡ딘 거슬 분변홈이라

生싱前젼 믈에 ᄲᅡ딘 屍시首슈ᄂᆞᆫ 男남은 엎더뎌 누엇고 女녀ᄂᆞᆫ 우러러 누어시ᄃᆡ 男남子ᄌᆞᄂᆞᆫ 陽양氣긔 ᄂᆞᆺ처 모도인 故고로 ᄂᆞᆺ치 무거워 반ᄃᆞ시 업더엿고 女녀子ᄌᆞᄂᆞᆫ 陰음氣긔 등이 모도인 故고로 등이 무거

위반ᄃᆞ시졋버디ᄂᆞ니궐즘싱도그리ᄒᆞ니라頭두面면이졋버뎟고죽을
ᄯᅢ예비록男남은업더디고女녀는우러러시나사라실졔ᄒᆡ여나오라ᄒᆞ얀ᄂᆞᆫ고로두면이다뒤
ᄒᆞ로졋버뎟ᄂᆞ니라숨빗치허여더희고흰빗치허여더심이라○혹니ᄅᆞ되
ᄂᆞᆺ빗치져기븕고복뒤져기턍ᄒᆞ다ᄒᆞ니라발이굽엇고두손과두발
이다압흘向향ᄒᆞ고입이다믈니고눈은ᄯᅳ이며
ᄆᆞᆷ음이定뎡티아녓고혹ᄯᅳ이고혹ᄀᆞᆷ아심이라두손이쥠쥐
엿고肚두ㅣ脹턍ᄒᆞ야두ᄃᆞ리면소리마초이고
두발바닥이주룩주룩허여ᄒᆞ고脹턍티아니
ᄏᆞ고샹되도ᄃᆞᆫᄒᆞ고머리와다ᄆᆞᆺ髮발際졔와손톱
발톱ᄐᆞᆷ과或혹신안히각각모래와ᄌᆞᆫ흙이잇고

口구鼻비안희물거품과밋些샤少쇼淡담ᄒᆞᆫ빗
칫피더러임이잇고或혹다딜니며문딜텨샹손
ᄒᆞᆫ곳이이시면이ᄂᆞᆫ生ᄉᆡᆼ前젼에믈에빠딘증험
이니라【보】그사ᄅᆞᆷ이죽디아녀신제반ᄃᆞ시목숨을ᄃᆞ톤디라氣긔脉ᄆᆡᆨ이往왕來ᄅᆡᄒᆞ야
믈을흘그어댱ᄌᆞ에든故고로두손이自ᄌᆞ然연히쥐여굽엇ᄂᆞ니라○疾질病병
을因인ᄒᆞ야身신死ᄉᆞᄒᆞᆫ거ᄉᆞᆯ만일사ᄅᆞᆷ의더뎌
물속에두기ᄅᆞᆯ넘어시면곳口구鼻비에물거품
이업고肚두안희물이업ᄂᆞ니라脹댱티아니ᄒᆞ
고ᄂᆞᆺ빗치져기누르고ᄉᆞᆯ히져기여외니라

毆打死

見血爲傷이오 非手足者는 皆爲他物이니 卽兵이라도 不用刃이면 亦是니라 ○他物致死痕은 或青或赤或紫或黑腫黯ᄒᆞ며 或斜或橫或直ᄒᆞᄂᆞ니 量見大小分寸ᄒᆞ고 共計幾處ᄒᆞ라 ○諸他物은 是鐵鞭尺斧頭刃背木桿棒馬鞭木柴石瓦麤布鞋衲底鞋皮鞋草鞋之類니라

補 一說에 骨折이 平伏不齊ᄒᆞ며 淡紅赤色이면 係木器傷이오 骨折이 斜竪齊截ᄒᆞ며 深紅或紫色이면 係鐵器傷이니

○他物及頭額拳手脚足堅硬之物로 撞打痕損이 至重者는 紫黯微腫ᄒᆞ고 次重者는 紫赤微腫ᄒᆞ고 又其次는 紫赤色이오 又其次는 青赤色이니라 ○凡他物打着이면 其痕이 卽斜長이어나 或橫長이오 如脚足踢

이면 比拳手애 分寸이 較大니라 補 足之用以踢人애 惟在足前靴尖鞋頭ᄒᆞ야 勢能大於手拳외리 當斟酌辨之래 ○諸以身就物을 謂之磕이니 雖着이나 無破處ᄒᆞ고 其痕이 方圓ᄒᆞ고 雖破ㅣ나 亦不至深ᄒᆞ고 其被他物及手足傷ᄒᆞ야 皮雖傷而血不出者ᄂᆞᆫ 其傷痕에 有紫赤暈이니라 ○凡驗痕애 細認斜長方圓이니 皮有微損이어든 未洗屍前에 用水灑濕ᄒᆞ고 先將葱白ᄒᆞ야 搗爛塗後에 罨以醋糟ᄒᆞ야 候一時久除ᄒᆞ고 以水洗ㅣ면 痕이 卽出이니라 ○凡他物傷이 若在頭腦者ᄂᆞᆫ 其皮不破ㅣ나 卽骨肉이 損也ㅣ니 若屍首ㅣ 左邊이 損이면 卽是凶身이 行右物致打ㅣ오 若是右邊이 損이면 卽損處

ㅣ在近後ᄒᆞ고若在右前이면卽非也ㅣ오若在後ㅣ면卽凶
身이自後로行他物致打ㅣ니ㅣ貴在審之無失이니라○
凡行凶人이若用棒杖等行打ㅣ면多先在實處ᄒᆞᄂᆞ니
其被傷人이或經一兩時辰이어나或一兩日至十餘
日身死ᄒᆞ고又有用堅硬他物行打ㅣ면便致死者ᄒᆞᄂᆞ니
更看痕跡輕重ᄒᆞ라若是先驅捽被傷人頭髻然後에
用散拳踢打則多在虛怯要害處ㅣ라或一拳一脚애
便致命이니切要仔細檢認行凶人脚上에有無鞋履
니라○打傷處ᄂᆞᆫ皮膜이相離ᄒᆞ야以手按之則響ᄒᆞ고以
熱醋罨之則有痕이니라○在辜限內어든須驗傷處ㅣ

是破傷風灌注ᄒᆞ야致命身死ᄒᆞ라 附傷風者ᄂᆞᆫ口喎目斜ᄒᆞ고肢體角弓反張
ᄒᆞ고面色이必黃瘦ᄒᆡ
더죽은거시라
피뵈야샹쳬되고 틘곳에피ᄆᆡ티여것트로뵈야사샹쳬라ᄒᆞᄂᆞ니라 手슈
足족이아닌者쟈ᄂᆞᆫ다他타物물 手슈足족과刀인物물外외ᄂᆞᆫ
다타물이라ᄒᆞᄂᆞ니라 이되ᄂᆞ니곳병긔라도놀곳ᄡᅳ디아
녀시면또ᄒᆞᆫ이니라 비록兵병器긔라도만일놀흘ᄡᅳ디아녀시면또ᄒᆞᆫ이他
타物물이니라○他타物물로致티死ᄉᆞᄒᆞᆫ흔적은或혹
프르고或혹븕고或혹검븕고或혹검고부으며
겁히검으며或혹빗굳고或혹ᄆᆞ르디고或혹곳

ᄂᆞ니大대小쇼分분寸촌을자혀보고대되몃곳
인줄을혜라○모ᄃᆞᆫ他타物물은이쇠채와자와
쇠자히라도치머리놀아ᄂᆡ편이라와칼등과木목桿한홍도ᄭᆡ라
과막대와몰채와나모장작과돌과기야와굴근
뵈신과衲납底뎌鞋혜뵈로눕여바닥ᄒᆞᆫ신이라와갓신과草
초신類류ㅣ니라【보】一일說셜에뼈가싀平평伏복ᄒᆞ고ᄆᆞ죽지아니ᄒᆞ고淡담
히븕은빗치면나모거시샹ᄒᆞᆫ대속ᄒᆞ고뼈가싀비스기셧고ᄆᆞᄌᆞ기ᄅᆞᆫ허젓고깁히븕거나或혹
검븕으면쇠거시샹ᄒᆞᆫ딕속ᄒᆞ니라傷○他타物물과밋頭두額익
이며拳권手슈ㅣ며脚각足족ᄃᆞᆫ ᄃᆞᆫᄒᆞᆫ거스로티
두ᄃᆞ린痕흔損손이至지重듕ᄒᆞᆫ者쟈ᄂᆞᆫ紫ᄌᆞ黯

암 자암석겸ᄒᆞᆫ거시라 ᄒᆞ야 져기 부엇고 버거 重듕ᄒᆞᆫ 者쟈
ᄂᆞᆫ 紫ᄌᆞ赤젹 ᄌᆞ석젹석이겸ᄒᆞᆫ거시라 ᄒᆞ야 져기 부엇고 ᄯᅩ 그
버거ᄂᆞᆫ 紫ᄌᆞ赤젹色ᄉᆡᆨ ᄌᆞ석젹석이겸ᄒᆞ고붓든아닌거시라 이오
ᄯᅩ 그 버거ᄂᆞᆫ 靑쳥赤젹色ᄉᆡᆨ 쳥석젹석이겸ᄒᆞ고붓디아닌거시라
이니라 휵고限ᄒᆞᆫ밧게디난샹쳐ᄂᆞᆫ그빗치져기프르니라 ○믈읫 他타物
믈노려시면 그 흔젹이 곳 빗기 길거나 或혹 ᄆᆞ르
길고 만일 脚각足족으로 太시면 拳권手슈에 比
비ᄒᆞᆷ애 分분寸촌이 크니라 [illegible] 발을부려사ᄅᆞᆷ太ᄂᆞᆫ거시오직발부리
와靴화ᄭᅩᆺ과신머리에이시니엇디能능히手슈拳권에셔크리오맛당히斟침酌쟉ᄒᆞ야분변ᄒᆞᆯ
ᄯᅴ니라 ○몸으로 버物물에 나아감을 닐온 磕합이

너비록다려시나까여딘곳이업고그흔적이모
나거나둥굴고비록까여뎌시나또흔깁기에나
르디아니ᄒᆞ고그他타物물과다못手슈足족으
로傷샹ᄒᆞ임을닙어갓치비록傷샹ᄒᆞ나피나디
아니ᄒᆞᆫ者쟈ᄂᆞᆫ그傷샹痕흔에검븕으며븕은暈
윤이잇ᄂᆞ니라○믈읫샹흔을驗험홈애빗굴며
길며모디며둥굼을ᄌᆞ세히알올디니갓치져기
손상홈이잇거든屍시를싯기디아닌前젼에믈
노ᄲᅮ려적시고몬져葱총白ᄇᆡᆨ을ᄠᅵ허ᄌᆞᆺ니여ᄇᆞ
튼後후에醋조와糟조로덥허부러ᄒᆞᆫ時시ㅅ동

안을기ᄃᆞ려앗고믈로베스면흔젹이곳나ᄂᆞ니라○믈읫他타物믈傷샹이만일頭두腦노에잇ᄂᆞᆫ者쟈ᄂᆞᆫ그갓치까여디디아녀시나곳뼈와ᄉᆞᆯ히손샹ᄒᆞ얏ᄂᆞ니만일屍시首슈ㅣ左자邊변이손샹ᄒᆞ야시면이ᄂᆞᆫ凶흉身신이우편엣거슬行힝ᄒᆞ야려심이오 올흔손으로物믈을잡아려심이라 만일이右우邊변이손샹ᄒᆞ야시면곳손샹ᄒᆞᆫ곳이뒤갓갑게잇고 他타物믈솟치셰절로뒤희범티인고로뒤갓가오니라 만일우편앏희이시면곳아니오 탐을닙은거시아니라 만일뒤희이시면곳凶흉身신이뒤흐로셔他타物믈을行힝ᄒᆞ야

텨심이니숣피기롤그릇티디아닐시貴귀ᄒᆞ니
라○믈읫行ᄒᆡᆼ凶흉人인이만일棒방杖댱等등
을ᄡᅥ行ᄒᆡᆼ打타ᄒᆞ면만히몬져實실ᄒᆞᆫ곳에잇ᄂᆞ
니虛허怯겁쳬아니면곳실ᄒᆞᆫ곳이니라○처엄은분긔셩티아니코ᄯᅩ오히려顧고忌긔ᄒᆞᄂᆞᆫ
失이잇ᄂᆞᆫ고로실ᄒᆞᆫ곳에이심이니라그傷샹ᄒᆞᆫ인사ᄅᆞᆷ이或혹一
일兩냥時시辰신을디내거나或혹一일兩냥日
일노十십餘여日일에니ᄅᆞ러身신死ᄉᆞᄒᆞ고ᄯᅩ
堅견硬경ᄒᆞᆫ他타物물로行ᄒᆡᆼ打타ᄒᆞ면믄득죽
기예닐위ᄂᆞᆫ者쟈ㅣ잇ᄂᆞ니다시痕흔跡젹의輕
경重듕을보라만일이몬져被피傷샹人인의샹

토롤 쥐잡은 然연後후에 허튼 주먹을 부려 ᄎᆞ고
텨시면 만히 虛허怯겁ᄒᆞ고 要요害해ᄒᆞᆫ 곳에 이
실ᄯᆡ라 或혹ᄒᆞᆫ 주먹ᄒᆞᆫ 발에 믄득 致티命명ᄒᆞ리
니 行힝凶흉人인의 발에 신이 이시며 업슴을 부
듸 仔ᄌᆞ細셰히 ᄉᆞᆯ펴 알올ᄯᅵ니라 ○ 텨 傷샹ᄒᆞᆫ 곳
은 皮피膜막이 서르 ᄡᅧ 손으로 답ᄒᆞ면 소리 나고
더운 초로 덥ᄒᆞ면 흔젹이 잇ᄂᆞ니라 [샹체뵈단말이라] ○
辜고限ᄒᆞᆫ 안희 잇거든 모롬이 傷샹處쳐ㅣ 이 破
파傷샹ᄒᆞᆫ 듸로 ᄇᆞ람이 灌관注쥬 [새야더샹ᄒᆞᆫ곳으로ᄇᆞ람이흘
너ᄡᆞᆺ이단말이라] ᄒᆞ야 致티命명身신死ᄉᆞᄒᆞᆫ가 驗험ᄒᆞ

라【부】ᄇᆞ람에傷샹ᄒᆞᆫ者쟈ᄂᆞᆫ입이트러지고눈이빗굴고肢지體톄角각弓궁反번張댱ᄒᆞ고ᄂᆞᆺ빗치반ᄃᆞ시누르고시드니라

【被打死】屍ㅣ口眼이開ᄒᆞ고髮鬢亂ᄒᆞ고衣服이不齊整ᄒᆞ고兩手ㅣ不拳ᄒᆞ고肚皮不脹ᄒᆞ고或有溺汚內衣니라○手足折傷이亦可死ㅣ니其痕이周匝ᄒᆞ고有血瘡이니라○打折脚手ᄒᆞ야辜限內어나或限外에身死ㅣ어든要詳打傷處分寸濶狹後에定是將養不效ᄒᆞ야致命身死ᄒᆞ라○拳手足踢死ᄂᆞᆫ屍ㅣ口眼이不閉ᄒᆞ고兩手ㅣ散ᄒᆞ고髩鬆亂ᄒᆞ고衣服이毁破ㅣ니라○踢痕은方圓ᄒᆞ고或着靴鞋ㅣ면間有微損ᄒᆞ고其痕이周匝有瘾ᄒᆞᄂᆞ니他物

도亦同이니라
被피打타ᄒᆞ야죽은거시라屍시ㅣ口구眼안이
열니이고머리털과샹퇴어즈럽고衣의服복이
齊제整졍티아니ᄒᆞ고두손이줌취디아니코肚
두皮피脹턍티아니ᄒᆞ고或혹오좀이內ᄂᆡ衣의
ᄅᆞᆯ더러임이잇ᄂᆞ니라○手슈足죡折졀傷샹이
ᄯᅩᄒᆞᆫ可가히죽을거시니그흔젹이周쥬匝잡ᄒᆞᆫ
고피ᄆᆡ팀이잇ᄂᆞ니라○발이나손을려부러더
ᄒᆞᆸ고限ᄒᆞᆫ안히어나或혹限ᄒᆞᆫ外외에身신死ᄉᆞ
ᄒᆞ얏거든모롬이打타傷샹處쳐分분寸촌과濶

휼狹협을ᄌᆞ셰히ᄒᆞᆫ後후에이將장養양ᄒᆞ구병ᄒᆞ단말이
라ᄒᆞ되낫디못ᄒᆞ야致티命명身신歿ᄉᆞᄒᆞ다定
뎡ᄒᆞ라○주먹으로티거나발로ᄎᆞ죽은거ᄉᆞᆫ屍
시ㅣ口구眼안이닷티이디아니ᄒᆞ고두손이ᄒᆞᆫ
터디고샹퇴늑어어즈럽고衣의服복이毁훼破
파ᄒᆞ엿ᄂᆞ니라○ᄎᆞᆫ흔적은모나거나둥굴고或
혹靴화ㅣ나鞋혜ᄅᆞᆯ신어시면간간이微미ᄒᆞᆫ손
샹이잇고그흔적이에도라피딤이잇ᄂᆞ니他타
物물도ᄯᅩᄒᆞᆫᄀᆞᆺᄐᆞ니라

杖瘡死 屍ㅣ兩臀上에各有破傷ᄒᆞ되斜長濶이幾分

寸이오深至骨ᄒᆞ고上有血痂ㅣ면委是杖決ᄒᆞ야因風透串致死ㅣ니라 ○驗受杖處瘡痕濶狹호ᄃᆡ是與不是限內身死ᄒᆞ라如日淺則杖瘡周廻예有毒氣攻注青赤色ᄒᆞ고皮膇堅硬ᄒᆞ고如日數多則瘡周廻예有濃水淹浸ᄒᆞ고皮肉이潰爛ᄒᆞᄂᆞ니更看陰囊及婦人產門과并兩脇肋腰小腹等處에有無血瘢痕ᄒᆞ라○〔增〕杖後에有因他故死者ㅣ若兩腿面及小腹에有微紅色이어든勿以曾經受杖으로便作血瘢ᄒᆞ라蓋受杖時에按捺在地ᄒᆞ고或被硬物矼傷이면死後에自然發現이니臨時ᄒᆞ야務須分明이니라○罪囚被勘死ᄂᆞᆫ屍ㅣ兩外腿에驗

破傷長濶深淺圍圓赤腫多少ㅣ면認是生前에因被
拷勘ᄒᆞ야痛氣攻心ᄒᆞ야致命身死ㅣ니○有訊腿杖ᄒᆞ다
가荆杖이侵及外腎而死者ᄂᆞᆫ宜細驗이니라
杖쟝瘡창으로죽은거시라屍시ㅣ兩냥臀둔上
샹애각각까여더傷샹홈이이시되빗긘길의와
넙의몃分분寸촌이오깁히뼈에니르럿고우희
피더데이시면실노이杖댱決결ᄒᆞ야ᄇᆞ람이ᄉᆞ
믓ᄯᅳᆲ기로因인ᄒᆞ야致티死ᄉᆞᄒᆞᆫ거시니라○杖
댱마즌곳瘡창痕흔의濶활狹협을驗험호ᄃᆡ限
ᄒᆞᆫ內ᄂᆡ에身신死ᄉᆞᄒᆞᆫ시올ᄒᆞᆫ가아닌가ᄒᆞ라만

일날이엿트면受슈杖쟝ᄒᆞᆫ날이오라다아니단말이라杖댱瘡창에
음에毒독氣긔몰리여靑쳥赤젹色석이잇고갓
치버서디고堅견硬경ᄒᆞ고만일날數수ㅣ만ᄒᆞ
면瘡창에음에膿롱水슈고롬파딘물이라ㅣ이셔저저
즘겻고皮피肉육이허여뎌석엇ᄂᆞ니다시陰음
囊낭이며밋婦부人인産산門문과아오로兩냥
脇협肋륵과腰요와小쇼腹복等등處쳐에피믜
틘ᄒᆞᆫ젹이잇ᄂᆞᆫ가엄ᄂᆞᆫ가보라○【보】杖댱ᄒᆞᆫ後후
에다ᄃᆞᆫ연고를因인ᄒᆞ야죽은者쟈ㅣ만일두신
다리압과밋小쇼腹복에微미ᄒᆞᆫ紅홍色석이잇

거든일즉受슈杖댱ᄒᆞ기를디내여심으로벼믄
득血혈癊음을삼디말라대개受슈杖댱ᄒᆞᆯᄣᅢ예
눌러ᄯᅡ히이셧고或혹ᄃᆞᆫᄃᆞᆫᄒᆞᆫ거싀다딜녀傷샹
ᄒᆞ이여시면죽은後후에自ᄌᆞ然연드러나뵈ᄂᆞ
니臨림時시ᄒᆞ야힘ᄲᅥ分분明명히ᄒᆞᆯᄭᅦ시니라
○罪죄囚슈ㅣ감문을넘어죽은거ᄉᆞᆫ屍시의兩
냥外외腿퇴臀둔下하ㅣ라를驗험ᄒᆞ야破파傷샹ᄒᆞᆫ長
댱濶활深심淺쳔圍위圓원이며븕고부은거시
언마나ᄒᆞ면이生ᄉᆡᆼ前젼에拷고勘감려못단말이라넘
음을因인ᄒᆞ야알픈긔운이심경을범ᄒᆞ야致티

命명身신死ᄉᆞᄒᆞᆫ줄을알올띠니라○신문ᄒᆞ야腿퇴ᄅᆞᆯ杖댱ᄒᆞ다가荊형杖댱아外외腎신에侵침及급ᄒᆞ야죽은者쟈ᄂᆞᆫ맛당히ᄌᆞ세히驗험ᄒᆞᆯ띠니라

【死後假作打死】死後에將青竹篦ᄒᆞ야火燒烙之면只有焦黑痕ᄒᆞ되淺ᄒᆞ고光平ᄒᆞ며不紫硬이니라○若將欅木皮ᄒᆞ야罨成痕ᄒᆞ고假作他物痕이면其痕內爛損ᄒᆞ고無散遠青赤色ᄒᆞ고只微黑色이오四圍青色이聚成一片而無浮腫ᄒᆞ고不堅硬이니라

죽은後후에거즛텨죽음을삼은거시라죽은後

후에靑쳥竹듁篦비롤가져붉어달와지디면다
만ᄐᆞ검은흔젹이이시ᄃᆡ엿고빗나고平평ᄒᆞ며
그흔젹이빗츤잇고 붓디아니ᄒᆞᆫ말이라 검븕고ᄃᆞᆫᄃᆞᆫ티ᄂᆞᆫ아니니라
○만일櫸거木목 이라 깃버들 皮피롤가져덥혀부터
흔젹을민ᄃᆞᆯ고거즛他타物물痕흔을삼으면그
흔젹안히즛물러샹ᄒᆞ고ᄒᆞᆺ터져멀게프르며븕
은빗치엽고다만微미◆ᄒᆞᆫ검은빗치오네녁에움
에프른빗치모혀ᄒᆞᆫ조각이되여시되부은것도
엽고堅견硬경티아니ᄒᆞ니라

口齒咬傷亥

齒內有風이라着於瘡口ᄒᆞ야多致身死ᄒᆞᄂᆞ니其咬破處
瘡口ㅣ周回ᄒᆞ고骨折ᄒᆞ면必有濃水淹浸ᄒᆞ고皮肉이損
爛ᄒᆞ되其痕에有口齒跡及皮肉不齊處ㅣ니라

口구齒치로무러傷샹ᄒᆞ야죽은거시라
니안희風풍이잇ᄂᆞᆫ디라독이잇단말이라瘡창口구에
부듸텨만히身신死ᄉᆞᄒᆞ기예닐위ᄂᆞ니그무러
ᄭᅢ여딘곳듸瘡창口구ㅣ에워도랏고ᄲᅧ부러뎌
시면반ᄃᆞ시膿농水슈ㅣ淹엄浸침ᄒᆞ욤이잇고皮
피肉육이샹ᄒᆞ야즈믈으되그흔젹에口구齒치
ㅅ자곡과밋갓과ᄉᆞᆯ히ᄀᆞᄌᆞ디아니ᄒᆞᆫ곳이잇ᄂᆞ니

니라

刃傷死

凡檢驗被殺傷人애 未到驗所ᄒᆞ야 先問元申人ᄒᆞᄃᆡ 曾與不曾收捉得行凶人이며 是何色目人이며 使何刃物이며 曾與不曾收得刃物ᄒᆞ야 如收得이어든 取索看大小ᄒᆞ야 着紙畫樣ᄒᆞ고 如不曾收得이어든 則問刃物이 在甚處ᄒᆞ고 亦令元申人으로 畫刃物樣ᄒᆞ야 畫訖애 令元申人으로 於樣下에 書押字ᄒᆞ고 更問元申人ᄒᆞᄃᆡ 其行凶人이 與被殺人으로 是與不是親戚이며 有無冤讐ᄒᆞ라 ○大刃斧痕은 上濶ᄒᆞ고 內必狹이니라 ○大刀痕은 淺必狹ᄒᆞ고

深則闊이니라 ○用硬麄器割이면分數ㅣ不大ㅣ니라 ○
槍刺痕은淺則狹ᄒᆞ고深必透簳ᄒᆞ되其痕이帶圓이니라
○刀傷處는其痕이兩頭ㅣ尖小ᄒᆞ고無起手收手輕
重이니라 ○刃物所傷透過者는須看內外瘡口ᄒᆞ라大
處ㅣ爲行刃處오小處ㅣ爲透過處ㅣ니라 ○或只用
竹槍尖竹擔ᄒᆞ야斡着要害處ᄒᆞ면瘡口ㅣ多不齊整ᄒᆞ고
其痕이方圓不等이니라 ○凡檢에須開說屍在甚處
何當이며着甚衣服이며上에有無血跡ᄒᆞ며傷處長闊深
分寸과或斜或亂ᄒᆞ며透肉이어나或腸肚出ᄒᆞ거나膋膜出
ᄒᆞ고仍檢刃傷衣服穿孔ᄒᆞ고如被竹槍尖物戳傷이어든

便說尖硬物戳傷致命라ᄒᆞ〇凡檢被快利物傷死者
시ᄒᆞᆯ須看元着衣衫애有無破傷處ᄒᆞ야隱對痕라ᄒᆞ血點
可驗이니라〇如刀戳傷ᄒᆞ야腸肚ㅣ出者ᄂᆞᆫ其被傷處
애須有刀刃撩劃三兩痕ᄒᆞ니一刀所傷이如何却
有三兩痕고盖凡人腸臟이盤在左右脇下ㅣ라是以
로撩劃着三兩痕이니라〇驗自刑人애即先問元申
人及証佐人ᄒᆞ되身死人生前使左手使右手ᄒᆞ라〇在
辜限內死者ㅣ어든詳檢事情ᄒᆞ라

ᄂᆞᆯ희傷샹ᄒᆞ야죽은거시라

믈읫殺살傷샹 刃인物믈노샹ᄒᆞᆫ거슬 殺살이라ᄒᆞᄂᆞ니라 님은사ᄅᆞᆷ

을檢검驗험홈애驗험所소에니르디못ᄒᆞ야몬
저元원申신人인ᄃᆞ려무ᄅᆞᄃᆡ일즉行ᄒᆡᆼ凶흉人
인을잡은다못ᄒᆞᆫ다ᄒᆞ며이엇던色ᄉᆡᆨ目목엣사
롬이며므슴刃인物물을브려시며일즉刃인物
물을거두엇ᄂᆞᆫ다못ᄒᆞᆫ다ᄒᆞ야만일거두엇거든
ᄎᆞ자크며젹음을보아죠희예다혀모양을그리
고만일일즉거두디못ᄒᆞ얏거든刃인物물이어
듸잇ᄂᆞᆫ줄을묻고ᄯᅩᄒᆞᆫ元원申신人인으로ᄒᆞ여
곰刃인物물모양을그려그리기ᄅᆞᆯᄆᆞᄎᆞᆷ애元원
申신人인으로ᄒᆞ여곰그린것아래일홈두이고

다시元원申신人인ᄃᆞ려무ᄅᆞ되그行ᄒᆡᆼ凶흉人
인이被피殺살ᄒᆞᆫ사ᄅᆞᆷ파이親친戚쳑이며아니
며冤원의讐슈ㅣ잇던가업던가ᄒᆞ라○큰놈.도치
흔젹은것치너르고안히반ᄃᆞ시좁으니라○큰
칼흔젹은엿트면반ᄃᆞ시좁고깁ᄒᆞ면너르니라
○센사긔로버버혀시면分분數수ㅣ크디아니
ᄒᆞ니라○槍창으로디른흔젹은엿트면좁고깁
ᄒᆞ면반ᄃᆞ시ᄌᆞᆯ례ᄉᆞ뭇차시되그흔젹이ᄃᆞᆼ굼을
셕엿ᄂᆞ니라창ᄌᆞᆯᄂᆡ드러가ᄃᆞᆼ구니라○져근칼ᄒᆡ傷샹ᄒᆞᆫ곳
은그흔젹이두ᄭᅳᆺ치ᄲᅧ젹고起긔手슈와收슈手

슈칼을쳐엄다힌거슨起긔手슈ㅣ의輕경重듕
오그어쌔힌기시妝슈手슈ㅣ라
이업ᄂᆞ니라○刃인物믈의傷샹ᄒᆞ거시ᄉᆞ뭇나
간者쟈ᄂᆞᆫ모롬이안팟瘡창口구ᄅᆞᆯ보라큰곳이
ᄂᆞᆯ을行ᄒᆡᆼᄒᆞᆫ곳이오져근곳이ᄉᆞ뭇나간곳이니
라○或혹다만竹듁槍창尖쳘ᄃᆡ롤ᄡᆞᆺ가槍창ᄆᆞᆫ든거시니尖쳠은
ᄉᆞᆺ치라과竹듁擔담ᄃᆡ로뻐멜대민ᄃᆞᆫ거시라을뻐要요害해處
처에돌녀ᄠᅮ러시면瘡창口구ㅣ만히齊졔整졍
티아니ᄒᆞ고그흔적이모나며둥군거시ᄒᆞᆫ골ᄀᆞᆺ
디아니니라○믈읫검험홈애모롬이闕긔說셜
호ᄃᆡ屍시ㅣ므슴곳에이ᄀᆞ어ᄃᆡ로향ᄒᆞ야시며

므合衣의服복을닙어시며우희픗자최이시며
업스며傷샹處쳐기릐뎌너븨며깁희分분寸촌
과或혹빗구며或혹어조러우며솔희ᄉᆞ뭇거나
或혹腸쟝肚두ㅣ나뎌시며膂료발기름이라膜막속빗
엣안기풀이니발기름우희닙히안거시라
이낫다ᄒᆞ고仍잉ᄒᆞ야ᄂᆞᆯ
ᄒᆡ傷샹ᄒᆞᆫ衣의服복ᄯᅮ러딘구무ᄅᆞᆯ솔피고만일
竹듁槍쟝尖졈物믈에딜녀傷샹홈을닙엇거든
믄득ᄂᆞᆯ나고셴거시딜녀傷샹ᄒᆞ야致티命명ᄒᆞᆫ
줄을닐으라○믈읫快쾌히드ᄂᆞᆫ거ᄉᆡ傷샹ᄒᆞ야
죽은者쟈ᄅᆞᆯ검험ᄒᆞᆯ셰모롬이본ᄃᆡ닙엇던오시

破파傷샹ᄒᆞᆫ곳이이시며업슴을보아마만이흔
적에다혀보라血혈點뎜의복우희피무든거시라을可가히
驗험ᄒᆞᆯ꺼시니라○만일칼저근칼이라노딜너傷샹
ᄒᆞ야腸쟝肚두ㅣ난者쟈ᄂᆞᆫ그被피傷샹ᄒᆞᆫ곳에
모롬이칼놀노둘너그은三삼兩냥痕흔이잇ᄂᆞ
니ᄒᆞᆫ칼노傷샹ᄒᆞᆫ배엇더ᄒᆞ야도로혀三삼兩냥
痕흔이잇ᄂᆞᆫ고대개사ᄅᆞᆷ의腸쟝臟장이서리여
左자右우脇협下하에잇ᄂᆞᆫ디라이러므로三삼
兩냥痕흔을둘너그엇ᄂᆞ니라腸쟝臟장이서리여잇고칼은져근
고로반ᄃᆞ시두세곳을휘둘너그은然연後후에야腸쟝臟장이나오ᄂᆞ니라○自ᄌᆞ刑

형人인 조쳐ᄒᆞᆫ사ᄅᆞᆷ이라 을검험홈애ᄭᅩᆺ몬져元원申신

人인과밋證증佐자人인ᄃᆞ려무ᄅᆞ되身신死ᄉᆞ

ᄒᆞᆫ사ᄅᆞᆷ이生ᄉᆡᆼ前젼에左자手슈ᄅᆞᆯ부리던가右

우手슈ᄅᆞᆯ부리던가ᄒᆞ라○辜고限ᄒᆞᆫ안희이셔

죽은者쟈ㅣ어든事ᄉᆞ情졍을ᄌᆞ셰히ᄉᆞᆲ피라

自割死 口眼이俱合ᄒᆞ고兩手ㅣ拳握ᄒᆞ고死人이用手把定刃物ᄒᆞ야

似作力勢ᄒᆞ야其手ㅣ自然拳握ᄒᆞ야ㅣ臂曲而縮ᄒᆞ고肉黃髮聚ᄒᆞ고項上에

有傷一處ᄒᆞ되長若干寸이오深若干分이오食氣嗓이斷

ᄒᆞ면ㅣ驗是生前에以刀自割身死ㅣ니라○看死人所用

左右手ᄒᆞ라各有割痕不同이니라○用右手ㅣ면刃必起

自左耳後ᄒᆞ며 刃過喉一二寸이오 用左手ㅣ면 刃必起自
右耳後ㅣ라니 ○自割痕은 起手ㅣ重ᄒᆞ고 收手ㅣ輕ᄒᆞ니
假如用左手ᄒᆞ야 把刃而傷則喉右邊下手處ᄂᆞᆫ 深ᄒᆞ고
左邊收刃處ᄂᆞᆫ 淺ᄒᆞ고 其中間은 不如右邊ᄒᆞᄂᆞ니 盖下
刃大重ᄒᆞ야 漸漸負痛縮手ᄒᆞ야 因而輕淺ᄒᆞ고 左手ㅣ須
似握物이 是也ㅣ니 用右手把刃而傷도 亦如左手也ㅣ니라
〔補〕喉下自傷刀痕은 只應一傷ᄒᆡ니 受傷之後에 不能復割也ㅣ라 若刀痕이 參差ᄒᆞ야 無左右深淺之別ᄒᆞ면 必爲人所殺ㅣ니 ○〔補〕自刎死者ㅣ 如用右手ᄒᆞ야 執刀自
刎則右手ㅣ軟ᄒᆞ야 死後一二日內ᄂᆞᆫ 右手를 可灣曲
이오 左手ᄂᆞᆫ 直ᄒᆞ야 不能灣曲ᄒᆞ고 左手執刀自刎도 亦然

ᄒᆞᄃᆡ 若係別人執刀殺死者ᄂᆞᆫ 左右手ㅣ 皆直ᄒᆞ야 不能
灣曲이니라 ○自割喉下면ㅣ 只是一出刀痕이니 若當下
身死면ㅣ 痕深이 一寸七分이오 氣系食系並斷ᄒᆞ고 如傷
一日以下身死면ㅣ 深이 一寸五分이오 氣系斷ᄒᆞ고 食系
微破ᄒᆞ고 如傷三五日以後死者ᄂᆞᆫ 深이 一寸三分이오
氣系斷ᄒᆞ고 頭髻角子ㅣ 散慢이니라 人身에 有咽有喉ᄒᆞ니 喉應天氣ᄒᆞ야 爲
肺之系ᄒᆞ야 下接肺經ᄒᆞ야 爲喘息之道ᄒᆞ고 咽應地氣ᄒᆞ야 爲胃之系ᄒᆞ야 下接胃脘ᄒᆞ야 爲水穀之道ㅣ니 ○
傷在頰下喉骨上이면ㅣ 難死ㅣ오 在喉骨下면ㅣ 易死ㅣ니라
○更看其人ᄒᆞ라 面愁而眉皺면ㅣ 即是自割之狀이니라
○餘無他故면ㅣ 即是自割이니라 ○自用刀ᄒᆞ야 剺手弁

指節者ᄂᆞᆫ其皮頭ㅣ皆齊ᄒᆞ고必有藥封ᄒᆞᄂᆞ니雖是刃物自傷이나必有不能當下身死ㅣ오必是將養不效致死ㅣ니其痕肉皮頭ㅣ捲向裏ᄒᆞ고如死後傷者ᄂᆞᆫ即皮不捲向裏ㅣ니라○屍或覆臥ᄒᆞ며其右手에有短刃物及竹頭之類ᄒᆞ고自喉至臍下者ᄂᆞᆫ恐是酒醉攧倒ᄒᆞ야自壓自傷이니라○如近有登高處ㅣ어나或泥土ㅣ어든須看身上에有無錢物ᄒᆞ며有無損動處ᄒᆞ라恐因取物ᄒᆞ야失脚自傷이니라

스스로버혀주근귀시라ᄆᆞᆫ眼안이다合합ᄒᆞ고두손이줌쥐엿고死ᄉᆞ人인이손을ᄢᅵ刃인物몸을잡아力력勢셰를짓ᄂᆞ

ᄌᆞᆺᄒᆞᆫ더라 그 ᄉᆞᆫ이 自ᄌᆞ 졸이 곱아 주리혀엿고 ᄉᆞᆯ
然연히 주이엿ᄂᆞ니라
히 누르고 머리털이 모히고 혹 니ᄅᆞ되 상퇴 ᄃᆞᆫᄃᆞᆫ타 ᄒᆞ니라 몯 우
희 傷샹ᄒᆞ욘 ᄒᆞᆫ 곳이 이시되 기릐 몃 寸촌이오 갑
희 몃 分분이오 食식氣긔 嗓상이 ᄭᅳᆺ처뎌시면 驗
험홈애 이 生ᄉᆡᆼ 前젼애 갈노 ᄡᅥ 스스로 버혀 身신
死ᄉᆞᄒᆞᆫ거시니라 ○ 殺ᄉᆞ人인의 쓰ᄂᆞᆫ 바 左자右
우手슈ᄅᆞᆯ 보라 각각 버흔 흔젹이 ᄀᆞᆺ디 아니미 잇
ᄂᆞ니라 ○ 右우手슈ᄅᆞᆯ 쓰량이면 ᄂᆞᆯ히 반ᄃᆞ시 左
자耳이 後후로부터 시작ᄒᆞ야 시티 ᄂᆞᆯ히 숨통디
나가미 一일二이寸촌이오 左자手슈ᄅᆞᆯ 쓰량이

면ᄂᆞᆯ히반ᄃᆞ시右우耳이後후로부터시작ᄒᆞ얀
ᄂᆞ니라○自ᄌᆞ割할ᄒᆞᆫ혼적은起긔手슈ㅣ重듕
ᄒᆞ고收슈手슈ㅣ輕경ᄒᆞ니가ᄉᆞ만일左자手슈
ᄅᆞᆯ버ᄂᆞᆯᄒᆞᆯ잡아傷샹히와시면숨통右우邊변에
손디은곳은깁고左자邊변ᄂᆞᆯ거둔곳은엿고그
中듕間간은右우邊변만못ᄒᆞᄂᆞ니대개ᄂᆞᆯ디음
을너무重듕히ᄒᆞ야漸졈漸졈알품을ᄡᅴ여손을
주리혀因인ᄒᆞ야輕경ᄒᆞ며엿터디고左자手슈
ㅣ모롬이物믈을쥔ᄃᆞᆺᄒᆞᆷ이이니ᄌᆞ할길사ᄋᆞᆯ란달이라右
우手슈ᄅᆞᆯ버ᄂᆞᆯᄒᆞᆯ잡아傷샹히와도또ᄒᆞᆫ左자手

슈ᄌᆞᄐᆞ니라【增】숨통아래롤스스로傷샹ᄒᆞᆫ칼흔젹은다만응당ᄒᆞᆫ번만傷샹ᄒᆞ얏
ᄂᆞ니傷샹ᄒᆞᆷ을바ᄃᆞᆫ後후에能능히다시버히디
못ᄒᆞᆷ이라만일칼자최參참差치ᄒᆞ야左자右우
深심淺천의분별이업ᄉᆞ면반○【보】스스로목딜
ᄃᆞ시ᄂᆞᆷ의죽인배되미니라
너죽은者쟈ㅣ만일右우手슈롤써칼흘잡아스
스로딜너시면右우手슈ㅣ軟연ᄒᆞ야죽은後후
一일二이日일안흔右우手슈롤可가히휘위구
필거시오左자手슈ᄂᆞᆫ색색ᄒᆞ야能능히휘위구
피디못ᄒᆞ고左자手슈로칼흘잡아自ᄌᆞ刎문ᄒᆞᆷ
도ᄯᅩᄒᆞᆫ그러호ᄃᆡ만일다ᄅᆞᆫ사ᄅᆞᆷ이갈흘잡아딜
너죽음에미인者쟈ᄂᆞᆫ左자右우手슈ㅣ다색색

ᄒᆞ야能능히후위구피디몯ᄒᆞᄂᆞ니라○스스로
숨통아래ᄅᆞᆯ버혀시면다만이ᄒᆞᆫ번만刀도痕흔
이날ᄯᅢ니만일곳애身신欬ᄉᆞᄒᆞ니면흔젹깁희
一일寸촌七칠分분이오氣긔系계와食식系계
(系계는줄기란말이라)ㅣ다ᄭᅳᆫ처뎟고만일傷샹ᄒᆞ연디一
일日일以이下하에身신欬ᄉᆞᄒᆞ니면깁희一일
寸촌五오分분이오氣긔系계ᄭᅳᆫ처디고食식系
계微미히샹ᄒᆞ엿고만일傷샹ᄒᆞ연디三삼五오
日일以이後후에죽은者쟈는깁희一일寸촌三
삼分분이오氣긔系계ᄭᅳᆫ처디고頭두髻계와角

과子ᄌᆞ부샹되라ㅣᄒᆞ터디며늣ᄂᆞ니라사ᄅᆞᆷ의몸에咽인이잇고
喉후ㅣ이시니喉후ᄂᆞᆫ天텬氣긔ᄅᆞᆯ應응ᄒᆞ야肺
폐의系계되야아래로肺폐經경을接졉ᄒᆞ야숨
쉬ᄂᆞᆫ길히되고咽인은地디氣긔ᄅᆞᆯ應응ᄒᆞ야胃
위의系계되야아래로胃위脘완을接졉ᄒᆞ야水
슈穀곡의길히되엿ᄂᆞ니라○傷샹ᄒᆞᆫ거시톡아래숨통ᄲᅧ우
희이시면죽기어렵고喉후骨골이구듬이라숨통ᄲᅧ아래
이시면죽기쉬우니라虛허ᄒᆞ야옷처디기쉬음이라○다시그
사ᄅᆞᆷ을보라ᄂᆞᆺ치근심ᄒᆞ고눈섭이ᄡᅵᆼ긔여시면
굿이스스로버힌형상이니라○나모다ᄅᆞᆫ연피
업ᄉᆞ면굿이스스로버히미니라○스스로갈ᄅᆞᆯ
벼손과아오로指지節졀을닥은者쟈ᄂᆞᆫ그가족

머리다ᄆᆞ죽ᄒᆞ고ᄢᅵ잇ᄂᆞᆫ뎌ᄅᆞᆯ딕어ᄭᅳᆺ츤고로다ᄆᆞ죽히옥아속으로향ᄒᆞ얀ᄂᆞ니라반ᄃᆞ시藥약으로封봉ᄒᆞᆫ거시잇ᄂᆞ니약으로버힌곳에ᄡᅥ감단말이라비록이刃인物물노自ᄌᆞ傷샹ᄒᆞ야시나반ᄃᆞ시能능히죽디몯ᄒᆞᆷ이잇고반ᄃᆞ시이됴양ᄒᆞ되낫디몯ᄒᆞ야致티死ᄉᆞᄒᆞᆫ거시니그샹흔에ᄉᆞᆯ과갓머리옥아속으로向향ᄒᆞ얏고죡기ᄭᅳᆺ치주리혀안ᄒᆞ로옥앗단말이라만일죽은後후에傷샹ᄒᆞᆫ者쟈ᄂᆞᆫ곳갓치옥아속으로向향티아녀ᄂᆞ니라○시뎨或혹업뎌누어시되그올ᄒᆞᆫ손애뎌르ᄂᆞᆯ것시나밋竹듁頭두類류ㅣ잇고中듕原원사ᄅᆞᆷ이대로밧가칼도민

돌고첨ᄌᆞ도ᄆᆡᆫᄃᆞ라샨희 ᄡᅵ나다독뒤라ᄒᆞᄂᆞ니라 然후로부터臍제下하
에니른者쟈ᄂᆞᆫ 숨통으로부터臍제下하ᄭᆞ디아 모곳에나샹ᄒᆞᆫ이잇단말이라
저컨대이술醉췌ᄒᆞ야더디여것구러뎌스스로
지줄뎌스스로傷샹홈이니라○만일갓가이놉
흔ᄃᆡ오롤곳이어나或혹존흙이잇거든모롬이
身신上샹에錢젼物믈이이시며엽스며損손動
동ᄒᆞᆫ곳이 발그룻틴곳에흙 삐러딘흔적이라 이시며엽슴을보라
저컨대物믈을取취ᄒᆞ라키롤因인ᄒᆞ야발을그
룻뎌스스로傷샹홈이니라 뎌른놀깃시나둮두 에샹ᄒᆞᆫ인거시라

被人殺死 被傷人이見行凶人이用刃物來傷之時

에必須爭競ᄒᆞ야用手來遮截이라手上에必有傷損ᄒᆞ고
若行凶人이於虛怯要害處에一刃直致命者ᄂᆞᆫ死
人手上에無傷ᄒᆞ고若行凶人이用刃物ᄒᆞ야斫着腦上
頂門腦角後髮際ᄒᆞ면必須斫斷頭髮이如用刀剪者
ㅣ오若頭頂骨이折ᄒᆞ면即是尖物刺著ㅣ니須用手揑着
其骨이損與不損ᄒᆞ라○屍ㅣ口眼이多開ᄒᆞ고頭髻寬
ㅣ어나或亂ᄒᆞ고兩手ㅣ微握ᄒᆞ고皮肉이多捲凸ᄒᆞ고若透
膜이면腸臟이必出이라니○被刃殺死者ᄂᆞᆫ其被刃處
皮肉이緊縮ᄒᆞ고血癊四畔ᄒᆞ고若被支解者ᄂᆞᆫ筋骨皮
肉이稠粘ᄒᆞ고受刃處ᄂᆞᆫ皮縮骨露ㅣ라니○【補】彼此相

傷이多屬對面ᄒᆞ고常人執刀ㅣ多係右手ᄒᆞ니對面相刺ㅣ면傷多在左ㅣ오非橫以刺之면刀頭ㅣ不能先及于右ㅣ로되惟素用左手者則先傷自右矣리라如於臥所에被刺ㅣ어든宜先辨其臥室이如何闊門과臥榻이如何安置ᄒᆞ고審問本人平日臥法이首足何向然後에按驗傷之左右ᄒᆞ고而設法ᄒᆞ야以試犯人의常時用手所慣則凶人이宜無遁詞矣라然이나臥所所被殺에其辨左右刀傷이又有捷法ᄒᆞ니凡人用力이非常時習用之手則或上或下ᄒᆞ야斷不平正ᄒᆞ니如平日에習用右手ㅣ면臥者ㅣ不順則刀尖이必向下ᄒᆞ고傷

及右肩窩ᄒᆞ고 倘平日애 習用左手ㅣ면 卧者ㅣ 不順則刀尖이 亦必向下而傷及左肩窩ㅣ니 有一人이 并隣人同墾山田ᄒᆞ러 經再宿不歸커ᄂᆞᆯ 家人이 往觀ᄒᆞ니 俱死在山ᄒᆡ 遂聞官ᄒᆞᆫ대 檢官이 到停屍處ᄒᆞ야 見一屍ᄂᆞᆫ 在小茅舍外ᄒᆞ야 後項骨이 斷ᄒᆞ고 頭面에 各有刃傷痕ᄒᆞ고 一屍ᄂᆞᆫ 在茅舍內ᄒᆞ야 左項下右腦後에 各有刃傷痕ᄒᆞ야 衆曰 在外者ᄂᆞᆫ 先被傷而死ᄒᆞ고 在內者ᄂᆞᆫ 後自刃而死ㅣ라 ᄒᆞ야 官司ㅣ 但以各有傷痕외 別無財物ᄒᆞ야ᄡᅥ 定兩相併殺ᄒᆞ거ᄂᆞᆯ 一官이 獨曰不然ᄒᆞ야 若以情度情ᄒᆞ면 作兩相併殺이 可矣어니와 其舍內者 右腦後刃傷이 可疑ㅣ라 豈有自用刃於腦後者ㅣ리오 手不便也ㅣ니ᄡᅥᄒᆞ 不數日에 乃緝得一人ᄒᆞ야 因讐ᄒᆞ야 併殺兩人ᄡᅵ러

사ᄅᆞᆷ의게 殺살死ᄉᆞᄒᆞ인거시라 被피傷샹ᄒᆞᆫ사ᄅᆞᆷ이 行ᄒᆡᆼ凶흉人인이 刃인物믈로와 傷샹히오려홈을 보ᄂᆞᆫ ᄉᆡ예 반ᄃᆞ시 모롬이 ᄃᆞᆺ토아 손으로

막즐러실ᄃᆡ라(ᄆᆞ리와말게ᄒᆞᆷ이라)손우회반ᄃᆞ시傷샹損
손이잇고만일行힝凶흉人인이虛허怯겁要요
害해ᄒᆞᆫ곳에ᄒᆞᄂᆞᆯ노바로致티命명ᄒᆞᆫ者쟈ᄂᆞᆫ死
ᄉᆞ人인手슈上샹에샹쳬업고만일行힝凶흉人
인이刃인物믈을써腦노上샹이나頂뎡門문이
나腦노角각後후와髮발際제ᄅᆞᆯ닥어시면반ᄃᆞ
시모롬이머리털을딕어쏫ᄎᆞᆫ거시칼을써ᄀᆞᆯ인
ᄃᆞᆺᄒᆞ고(베ᄒᆞᆫ글니마ᄌᆞᆨᄒᆞ단말이라)만일頭두頂뎡骨골이부
러뎌시면곳이쳠니ᄒᆞᆫ거스로디른거시니모롬
이손으로그뼤손샹ᄒᆞᆫ가손샹티아닌가ᄆᆞᆫ져보

라○屍시ㅣ口구眼안이만히열니고샹퇴늣거
나或혹어즈럽고두손이저기쥐엿고갓과ᄉᆞᆯ히
만히거두텨네밀고샹쳐에갓치옥이고ᄉᆞᆯ히내밀니단말이라만일膜
막을소뭇차시면腸쟝臟장이반ᄃᆞ시나왓ᄂᆞ니
라○놈노샹ᄒᆞ욤을넘어죽은者쟈ᄂᆞᆫ그被피刃
인ᄒᆞᆫ곳이갓과ᄉᆞᆯ히죄여주리키고네ᄀᆞ에피어
리엿고만일支지解ᄒᆡᄉᆞ지를가ᄅᆞ단말이라ᄒᆞᆷ을넘은者
쟈ᄂᆞᆫ筋근骨골과皮피肉육이裯됴粘뎜ᄶᅩᄌᆞ면筋근骨
골皮피肉육이纏젼綿면ᄒᆞ야ᄒᆞᆫᄃᆡ부럿단말이라ᄒᆞ고칼바든곳은갓치
줄고뼤드러낫ᄂᆞ니라○[보]彼피此ᄎᆞ서르傷샹

ᄒᆞ욘거시만히對ᄃᆡ面면서ᄅᆞ마존편이라에屬쇽ᄒᆞ고
常샹人인의칼잡음이만히右우手슈에ᄆᆡ여시
니對ᄃᆡ面면ᄒᆞ야서ᄅᆞ딜너시면傷샹홈이만히
左자에잇고ᄆᆞ르딜으디아녀시ᄆᆡ칼긋치能능
히우편에몬져밋디못호ᄃᆡ오직본ᄃᆡ左자手슈
ᄅᆞᆯ쓰ᄂᆞᆫ者쟈ㅣ면몬져右우부터傷샹ᄒᆞ야시리
라만일누운곳에셔딜니엿거든맛당히몬져그
臥와室실이엇디門문을내여심과臥와搨탑이
엇디노히여심을분변ᄒᆞ고本본人인의平평日
일즙ᄂᆞᆫ法법이머리와발을어드로向향ᄒᆞ던고

조셰히무른然연後후에샹쳐의左자右우를按
안驗험ᄒᆞ고法법을베퍼犯범人인의常샹時
시손쓰기닉은바를시험ᄒᆞ면凶흉人인이맛당
히遁둔詞ᄉᆞ거ᄌᆞᆺ발명홈이라ㅣ업슬ᄯᅢ라그러나누은
곳에셔죽임을닙으매그左자右우刀도傷샹을
분변ᄒᆞ기ᄯᅩ쉬운法법이이시니믈읫사ᄅᆞᆷ의힘
ᄡᅳᆷ이常샹時시닉이ᄡᅳᄂᆞᆫ손이아니면或혹놉호
며或혹ᄂᆞᆺ자더ᄃᆞᆫ연히平평正정티못ᄒᆞᄂᆞ니만
일平평日일에右우手슈를닉어ᄡᅳ면누은者쟈
ㅣ順슌티아니ᄒᆞᆫ則즉누은사ᄅᆞᆷ이우편으로머리두어시면힝흉인이우

슈쓰기슌티못ᄒᆞᆫ단말이라칼쯧치반ᄃᆞ시아래로向향ᄒᆞ고傷샹홈이右우肩견窩와엇게와목ᄉᆞ이에오목ᄒᆞᆫ곳이라에밋쳐고만일平평日일에左자手슈롤닉이ᄡᅳ면누운者쟈ㅣ順슌티아니ᄒᆞᆫ則즉칼쯧치ᄯᅩᄒᆞᆫ반ᄃᆞ시아래로向향ᄒᆞ얏고傷샹홈이左자肩견窩와에밋쳐ᄂᆞ니라

ᄒᆞᆫ사ᄅᆞᆷ이隣린ᄉᆞ인과ᄒᆞᆫ가디로山산田뎐을갈더니두밤이디나되도라오디아니ᄒᆞ거ᄂᆞᆯ집사ᄅᆞᆷ이가보니다죽어山산에잇ᄂᆞᆫ디라드듸여官관에들닌대檢검官관이停뎡屍시處쳐에니르러보니ᄒᆞᆫ시신은져근茅모舍샤밧게이시되後후項항骨골이쯧쳐뎟고頭두와面면에각각ᄶᅵ인傷샹ᄒᆞᆫ흔젹이잇고ᄒᆞᆫ시신은茅모舍샤안히이시되左자項항下하와右우腦노後후에각각ᄶᅵ인傷샹ᄒᆞᆫ흔젹이이시니ᄌᆞᆼ인이니ᄅᆞ듸밧게잇ᄂᆞᆫ者쟈ᄂᆞᆫ몬져

傷샹흠을닙어죽고안히잇ᄂᆞᆫ者쟈ᄂᆞᆫ後후에스
ᄉᆞ로刃인ᄒᆞ야죽엇다ᄒᆞ니官관司ᄉᆞㅣ다만써
각각傷샹痕흔이잇고別별노財ᄌᆡ物믈이업다
ᄒᆞ야둘히서ᄅᆞ併병殺살ᄒᆞ다定뎡ᄒᆞ라ᄒᆞ거ᄂᆞᆯ
ᄒᆞᆫ관원이홀로ᄀᆞᆯ오ᄃᆡ그러티아니ᄒᆞ다만일情
졍으로써情졍을혜아릴띤댄둘히서ᄅᆞ併병殺
살ᄒᆞ나흠이可가ᄒᆞ거니와그舍샤肉늌者쟈의
右우脳노後후ᄉᆞ刃인傷샹이可가히의심된디
라엇디ᄉᆞᄉᆞ로刃인을脳노後후에ᄡᅳᆯ者쟈ㅣ이
시리오손이便편티아니홈이라ᄒᆞ더니數수日
일이못ᄒᆞ야셔이에一일人인을緝즙得득ᄒᆞ니
원슈로因인ᄒᆞ야두사ᄅᆞᆷ을아오로죽엿더라

辨生前死後傷痕 生前利刃所傷은痕口皮肉에有
血ᄒᆞ고透膜ᄒᆞ고肉潤ᄒᆞ고花文이斂出ᄒᆞ고捻有鮮紅血ᄒᆞ고
死後刀刃割損이면乾白無血ᄒᆞ고捻有清水ㅣ니라○死
人이被割戳이면屍首ㅣ皮肉이如舊ᄒᆞ고血不灌癊ᄒᆞ고

被割處ㅣ皮不緊縮ᄒᆞ고刃盡處에無血流ᄒᆞ고其色이
白ᄒᆞ고縱痕下에有血이나洗檢擠捺이면肉內에無淸血
出이니라○生前에被刃傷이면其痕이肉凋ᄒᆞ고花文이
交出ᄒᆞᄂᆞ니若肉痕이齊截이면是死後假作刃傷痕이니
라○如生前刃傷은卽有血汁ᄒᆞ고瘡口에血多花鮮
色ᄒᆞ고所損이透膜이면卽死ᄒᆞ고若死後에用刀刃割傷
處ᄂᆞᆫ肉色이乾白ᄒᆞ고更無血花ㅣ라니

生싱前젼과死ᄉᆞ後후傷샹痕흔을분변홈이라

生싱前젼에드ᄂᆞᆫ놀히傷샹ᄒᆞᆫ바ᄂᆞᆫ흔젹어귀갓
과ᄉᆞᆯ히피잇고膜막을ᄉᆞ뭇ᄯᅮ럿고ᄉᆞᆯ히더르고

솔흔적이비르단말이라 花화文문속솔희결잇는거시라 이버서낫고
잡음애鮮션紅홍븕게븕은빗치라 ᄒᆞᆫ피잇고죽은後후
에刀도刃인으로버혀샹손ᄒᆞ거시면모르며희
고피업고집음애물근물이잇ᄂᆞ니라○죽은사
ᄅᆞᆷ이割할截탁ᄒᆞ믈넘어시면屍시首슈ㅣ皮피
肉육이녜ᄀᆞᆺ고죽은후에刃인傷상ᄒᆞ인거슨皮피肉육이捲권凸렬티아니코버
흔ᄃᆡ로잇단말이라 피흘니미티디아니ᄒᆞ고버히인곳이
갓치죄이여주리히디아니코ᄂᆞᆯ盡진ᄒᆞᆫ곳에피
흐르미업고그빗치희고비록흔적아래피이시
나삐기고檢검ᄒᆞ야밀며눌으면솔속에몱은피

나미업ᄂᆞ니라○生ᄉᆡᆼ前젼에刃인傷샹을닙어
시면그흔젹이ᄉᆞᆯ히셔러디고[참치ᄒᆞ야ᄆᆞᄌᆞ디아니탄말이라]
花화文문이섯귀여나오ᄂᆞ니만일ᄉᆞᆯ흔젹이ᄆᆞ
ᄌᆞᆨ히버혀시면이歿ᄉᆞ後후에거즛刃인傷샹痕
흔올민든거시니라○만일生ᄉᆡᆼ前젼엣刃인傷
샹은곳血혈汁즙이잇고瘡창口구에피ㅣ빗나
고은빗치만코[ᄉᆡᆼᄉᆡᆼ히븕은빗치라]샹ᄒᆞᆫ배膜막을ᄉᆞ뭇ᄯᅮ
러시면卽즉歿ᄉᆞᄒᆞ고만일歿ᄉᆞ後후에刀도刃
인으로써버혀傷샹ᄒᆞᆫ곳은ᄉᆞᆯ빗치乾간白ᄇᆡᆨᄒᆞ
고다시血혈花화ㅣ업ᄉᆞ니라[사ᄅᆞᆷ이죽은후는혈ᄆᆡᆨ이ᄒᆡᆼ티못ᄒᆞ]

는디라 이러므로 ᄉᆞᆯ빗치 희니라

屍首異處 凡驗屍首異處에 同檢式ᄒᆞ되 量首級이 離屍遠近과 或左或右와 或去肩脚若干尺寸ᄒᆞ고 各量手臂脚腿相去屍遠近ᄒᆞ고 却隨其所解肢體ᄒᆞ야 與屍相湊ᄒᆞ고 提捧首級ᄒᆞ야 與項相湊ᄒᆞ야 圍量分寸ᄒᆞ라 生前刃物斫落은 項下皮肉이 捲凸ᄒᆞ고 兩肩井이 聳歛ᄒᆞ고 死後斫落은 皮肉이 不捲凸ᄒᆞ고 肩井이 不聳皺이니라 ○活時截下頭者는 筋이 縮入ᄒᆞ고 死後截下ㅣ면 項長이 並不伸縮이니라 ○支解死屍幾段을 對勘比同於分斷處ᄒᆞ라 肉色이 不紅ᄒᆞ고 雖有痕跡이나 別無血髓ㅣ면

驗是死後氣血不行애 支解痕跡이니라

屍시首슈異이處쳐ᄒᆞᆫ거시라 믈읫屍시首슈異이處쳐시톄ᄅᆞᆯ갈나각각노ᄒᆞᆫ거시라ᄒᆞᆫ거슬검험홈애檢검式식과ᄀᆞᆺ티ᄒᆞ되首슈級급버흔머리라이시신과ᄯᅳ기멀며갓가옴과或혹左자며或혹右우와或혹엇게와발에셔ᄯᅳ기언마尺쳑寸촌인고자히고이ᄂᆞᆫ머리異이處쳐ᄒᆞᆫ거ᄉᆞᆯ驗험홈이라手슈臂비와脚각腿퇴ㅣ시신과相샹去거ㅣ멀며갓가옴을각각자히고이ᄂᆞᆫ四ᄉᆞ肢지異이處쳐ᄒᆞᆫ거ᄉᆞᆯ驗험홈이라도로혀그解히ᄒᆞᆫ바肢지體톄ᄅᆞᆯᄯᅳᆯ와시신과서르모호고머리ᄅᆞᆯ잇그러목과

서ᄅᆞ모화分분寸촌을에워자히라다ᄅᆞᆫ거스로에워다가목과ᄀᆞᆺᄐᆞᆫ가자혀봄이라生셩前젼에刃인物물노디어ᄯᅧ르틴거ᄉᆞᆫ목아래갓과ᄉᆞᆯ히거두터내밀고두肩견井졍엇게우희ᄆᆞ장놉ᄒᆞᆫ곳이니풀을펴면오목ᄭᅢ딘ᄃᆡ라이소사버서뎟고死ᄉᆞ後후에디어ᄯᅧ르틴거ᄉᆞᆫ皮피肉육이捲권凸렬티아니코肩견井졍이聳용歛탈티아녓ᄂᆞ니라○사라신ᄯᅢ에머리ᄅᆞᆯ버힌거ᄉᆞᆫ힘줄이주리켜드러갓고죽은後후에버힌거ᄉᆞᆫ목기릐아오로늘며주디아녓ᄂᆞ니라○支지解ᄒᆡᄒᆞᆫ死ᄉᆞ屍시며조각을ᄂᆞᆫ호여ᄉᆞᆺ촌곳에ᄀᆞᆺ튼가맛초

라ᄉᆞᆯ빗치븕디아니코비록痕흔跡젹이이시나
別별노血혈과髓슈(뼛속엣기름이라)ㅣ업스면驗험홈
애이죽ᄉᆞᆫ後후氣긔血혈이行ᄒᆡᆼ티몯ᄒᆞᆫ디支지
解ᄒᆡ혼痕흔跡젹이니라

火燒死

凡檢被火燒死人에先問元申人ᄒᆞ되火從何處起며
火起時에其人이在甚處ㅣ며因甚在彼며被火燒時
에曾與不曾救應ᄒᆞ고仍根究曾與不曾與人作鬧ᄒᆞ야
見得端的이라사方可檢驗이니라○屍在火中이어든先
掃除周圍灰燼然後에將屍斂動ᄒᆞ고覷着地處에有

無灰燼燒損ᄒᆞ라 ○見屍骨이어든 令行人으로 次第拾起

白骨ᄒᆞ야 扇去灰塵ᄒᆞ라 ○眉毛髮等이 有卷毛ᄒᆞ고 指甲

이 焦黃이니라

불에ᄐᆞ죽은거시라

믈읫불에ᄐᆞ이여죽은사ᄅᆞᆷ을검험홈애몬져元원申신人인ᄃᆞ려무ᄅᆞᆫ뒤불이어닌곳으로조차니러나시며불날ᄯᅢ예그사ᄅᆞᆷ이어ᄃᆡ이셔시며엇디ᄒᆞ야뎌긔이셔시며불ᄅᆞᆷ을넙을ᄯᅢ에일즉救구應응ᄒᆞᆫ가아닌가ᄒᆞ고仍잉ᄒᆞ야일즉사ᄅᆞᆷ과作작鬧뇨ᄅᆞᆯᄒᆞ엿던가아닌가根근究구ᄒᆞ야

보기를端단的뎍히ᄒᆞ고사보야ᄒᆞ로可가히檢
검驗험ᄒᆞᆯ디니라○屍시ㅣ불가온대이셧거든
몬져周쥬圍위엣灰회燼신을ᄡᅳ러업시ᄒᆞᆫ然연
後후에屍시를가져翻번動동ᄒᆞ고ᄯᅡ부티엿던
곳에灰회燼신과불ᄃᆞᆺ손샹ᄒᆞᆫ거시이시며업슴
을보라 시톄ᄡᅧ히부티엿던편에ᄃᆞᆺ샹ᄒᆞᆫ흔젹과 회신이이시면올코솔이ᄃᆞ더아니코그
아래저도업스면죽은 후에불솔은거시니라 ○屍시ㅅᄲᅧ뵈거든行항
人인으로ᄒᆞ여곰次ᄎᆞ第뎨로白ᄇᆡ骨골을주어
나야지와뒷글을부처업시ᄒᆞ라○눈섭이며毛
모髮발等등이오고랏ᄂᆞᆫ털이잇고 털이불에ᄃᆞ 이면오고라

ᄃᆞᄂᆞ니라 指지甲갑이 ᄃᆞ 누르니라

因老病在牀失火燒死 屍ㅣ 肉色이 焦黃ᄒᆞ고 或兩手ㅣ 拳曲在胸前ᄒᆞ고 兩膝이 亦曲ᄒᆞ고 口眼이 開ᄒᆞ고 或咬齒及唇ᄒᆞ고 或有脂膏黃色이니라 ○皮肉에 只有火燒跡ᄒᆞ고 別無他故ㅣ면 是火燒死ㅣ니 須先問生前宿臥ㅣ在甚處ᄒᆞ라 ○ **補** 土炕傷은 西北人이 多臥土炕ᄒᆞ야 每以煤炭煨炕ᄒᆞ니 火氣臭穢라 人受燻蒸ᄒᆞ야 不覺自斃ᄒᆞᄂᆞ니 其屍ㅣ 軟而無傷ᄒᆞ야 與夜臥夢魘不能復覺者로 相似ㅣ니라

老로病병을 因인ᄒᆞ야 床상에 이셔 失실火화ᄒᆞ야

야ᄐᆞ죽은거시라屍시ㅣ솔빗치ᄐᆞ누르고或혹
두손이쥐이고곱아(폴이곱단말이라)가슴앏헤두엇고
두무릅히ᄯᅩᄒᆞᆫ곱앗고口구眼안이열니이고或
혹니ᄅᆞᆯ믈어입시울에믓쳣고或혹脂지膏고黃
황色ᄉᆡᆨ이잇ᄂᆞ니라○皮피肉육에다만블ᄐᆞᆫ자
최잇고別별로다른연괴업ᄉᆞ면이블ᄐᆞ죽음이
니모롬이몬져生ᄉᆡᆼ前젼에좀자누음이어ᄂᆡ곳
에잇던고무ᄅᆞ라○[보]土토炕강에傷샹ᄒᆞᆫ거슨
西셔北븍사ᄅᆞᆷ이만히土토炕강(흙구들이라)에누어
ᄆᆡ양煤ᄆᆡ炭탄(石셕炭탄이니中듕國국西셔으로셔北븍에셔ᄐᆡ오ᄂᆞᆫ거시라)

버炕강을데이니火화氣긔ㅣ내암셔잇고더러온디라사ᄅᆞᆷ이薰훈蒸증홈을바다절로죽음을ᄭᆡᄃᆞᆺ디못ᄒᆞᄂᆞ니그屍시ㅣ부드럽고샹쳐업서밤에누어夢몽魘압ᄒᆞ야能능히다시ᄭᆡ디못ᄒᆞᄂᆞᆫ者쟈와ᄀᆞᄐᆞ니라

被人燒死 人屋을盖以苑茅ᄒᆞᄂᆞ니被火燒ㅣ면其屍首ㅣ則在苑茅之下ᄒᆞ고或與人有讐ᄒᆞ야被人乘勢ᄒᆞ야推入燒死者則屍在苑茅之上ᄒᆞ되兼驗頭足이亦有向至니라○如屍被火燒化盡ᄒᆞ야無條段骨殖者ㅣ어든勒行人與鄰證供狀ᄒᆞ되失火燒毀ㅣ이나或被人燒毀로되

卽無骸骨存在ᄒᆞ니 委是無憑檢驗이라ᄒᆞ야 方憑備申ᄒᆞ라
놈의게 불ᄉᆞᆯ음을 닙어 죽은 거시라 사ᄅᆞᆷ의 잡을
기야나 ᄡᅱ로 ᄡᅥ 덥ᄂᆞ니 불ᄐᆞᆷ을 닙어시면 그 屍시
首슈ㅣ 곳기야나 ᄲᅧ 아래 잇고 或혹 놈과 원슈이
셔 놈이 乘승勢셰ᄒᆞ야 밀텨 드려 불ᄐᆞ 죽은 者쟈
ㅣ면 屍시ㅣ 庵와 茅모ㅅ 우희 이시ᄃᆡ 불ᄐᆞ 집이 문허딘 후
에 발텨ᄂᆡ허 심이라 兼겸ᄒᆞ야 머리와 발이 ᄯᅩ ᄒᆞᆫ 向향 조지
指지向향파 ᄆᆞ튼 말이라 이 심을 驗험홀 꺼시니라 ○ 만일 屍
시ㅣ 불의 ᄐᆞ여 ᄉᆞ히 기를 다ᄒᆞ야 오리와 조각 骨
골 殖식 도엽ᄉᆞᆫ 者쟈ㅣ 어든 行항人인과 다못 鄰

린 證증을시겨문장에공ᄉᆞᄒᆞᄃᆡ失실火화ᄒᆞ야
ᄐᆞᆺ거나或혹놈의게티옴을닙은거시로ᄃᆡ곳骸
ᄒᆡ骨골이나ᄆᆞ이심이업ᄉᆞ니실로이빙고ᄒᆞ야
檢검驗험ᄒᆞᆯ꺼시업다ᄒᆞ야보야흐로빙거ᄒᆞ야
ᄌᆞ초신보ᄒᆞ라 향인과련증의봉됴ᄅᆞᆯ의거ᄒᆞ야 무방검험연유ᄅᆞᆯ샹ᄉᆞ에보ᄒᆞ란
말이 라

被人殺假作火燒 被人勒併身死ᄅᆞᆯ拋猎在火內ᄒᆞ야
頭髮이焦黃ᄒᆞ고頭面連遍身上下ㅣ一槩焦黑ᄒᆞ고皮
肉이搐皺ᄒᆞ고並無揞漿皺皮去處ᄒᆞ고項下에有被勒
痕及繩索帶帛物繫入ᄃᆞ이어便說無憑檢驗이라本人

沿身上下痕損他故及定年顔形貌不得이오只驗得
本人項下에有被勒處痕跡이幾匝圍轉去處分數
ᄒᆞ며委實被勒身死後에抛擲在火內라ᄒᆞ라 ○先被刃
殺死를却作火燒死者ᄃᆡ어勒仵作拾起白骨ᄒᆞ야扇
去灰塵盡了에於元屍首下에掃潔地上ᄒᆞ고用酸米
醋灑潑ᄒᆞ라若是殺死ㅣ면卽有血入地而鮮紅色ᄒᆞᄂᆞ니
刃傷之血ㅣ曾入于地라以酸醋灑之則血色이鮮紅레니殺死後에被移屍他
處則不可驗屍下血色이니라 ◯增若打傷處ᄂᆞᆫ雖被火燒ᄂᆡ其皮不起래니
놈의게죽임닙은거슬거즛불룸을삼은거시라
사름의게勒륵併병목졸라급히죽인거시라흠을닙어身신

死ᄉᆞᄒᆞᆫ거ᄉᆞᆯ더뎌블속에두어머리털이ᄐᆞ두르고頭두面면과遍변身신上샹下하ㅣ一일槩개로ᄐᆞ겁고皮피肉육이주리혀주룩주룩ᄒᆞ고아오로ᄆᆞᆷ초인진물과갓버서딘곳이업고시신이다ᄐᆞ서겁고더여진물ᄂᆞᆫ곳과가족버서딘곳이다업단말이라項항下하에被피勒륵ᄒᆞᆫ흔젹과밋繩승索삭이나帶ᄃᆡ帛ᄇᆡᆨ物믈노ᄆᆡ야드럿ᄂᆞᆫ거시잇거든믄득칭셜ᄒᆞ되의빙ᄒᆞ야檢검驗험ᄒᆞᆯ꺼시업ᄂᆞᆫ디라本본人인의沿연身신上샹下하에痕흔損손ᄒᆞᆫ다ᄅᆞᆫ연고와밋녀셰안식과形형貌모ᄅᆞᆯ定뎡ᄒᆞ디몯ᄒᆞ고온몸이ᄐᆞ검어

뎡험홀꺼시 업단말이라 다만本본人인의項항下하에被피
勒륵ᄒᆞᆫ곳痕흔跡젹이몃돌림이나에워도랏ᄂᆞᆫ
去거處쳐分분數수ᄅᆞᆯ驗험得득ᄒᆞ야시나實실
로被피勒륵身신死ᄉᆞᄒᆞᆫ後후에더뎌불속에두
엇다ᄒᆞ라○몬져놀히딜너여죽은거ᄉᆞᆯ믄득불
에ᄐᆞ죽음을삼ᄂᆞᆫ者쟈ㅣ어든仵오作작을시겨
白ᄇᆡᆨ骨골을주어나야灰회塵진을부처업시ᄒᆞ
야다ᄒᆞᆷ애元원屍시首슈의아래ᄊᆞ우흘ᄡᅳ러ᄇᆞᆱ
히고쇤초로벼ᄉᆡ려시티라만일이딜너죽인거
시면곳피ᄊᆞ히드러곱게븕은빗치잇ᄂᆞ니 놀히 샹ᄒᆞ

인피일즉ᄡᅢ히드럿ᄂᆞᆫ디라신초로뼈ᄲᆡ리면핏빗치셩셩히븕ᄂᆞ니라죽인後후에屍시ᄅᆞᆯ다ᄅᆞᆫᄃᆡ옴겨시면屍시下하에핏빗ᄎᆞᆯ可가히驗험티몯ᄒᆞ리니라【補】만일더傷샹ᄒᆞᆫ곳은비록불ᄉᆞᆯ옴을닙어시나그갓치니ᄃᆡ어니ᄒᆞᄂᆞ니라

辨生前死後火燒

生前에被火燒死者ᄂᆞᆫ其屍ㅣ口鼻內에有煙灰ᄒᆞ고兩手脚이皆拳縮ᄒᆞ니ᄂᆞᆫ緣其人이未死前에被火逼奔爭ᄒᆞ야口開ᄒᆞ고氣脉이往來故로呼吸애煙灰入口鼻內ᄒᆞ고若死後燒者ᄂᆞᆫ其人이雖手足拳縮이나口內에卽無煙灰ᄒᆞ고若不燒着兩肘骨及膝骨이면手脚이亦不拳縮기이니【補】灰燼中撥出者ᄂᆞᆫ口鼻에另能無

灰외須驗其喉與腦中에有無灰煙ᄒᆞ야可辨生前死後燒也ㅣ니라○燒爛之色이焦而黑ᄒᆞ면爲死後傷이오膏而黃ᄒᆞ면爲生前傷이니라

生ᄉᆡᆼ前젼과死ᄉᆞ後후에블롤을분변홈이라生ᄉᆡᆼ前젼에블롤을님어죽은者쟈ᄂᆞᆫ그屍시ㅣ口구鼻비안희煙연灰회잇고두손과발이이발은다리롤니로말이라다오그라주리혀ᄂᆞ니그사ᄅᆞᆷ이죽디아니ᄒᆞᆫ前젼에블의핍박을님어ᄃᆞ르며ᄃᆞ롬을말ᄆᆡ암아입이열리고氣긔脉ᄆᆡᆨ이往왕來ᄅᆡᄒᆞᆫ故고로숨결의煙연灰회口구鼻비內ᄂᆡ에드럿고만일죽은後후에블롤者쟈ᄂᆞᆫ그사ᄅᆞᆷ이비록손발이

拳권縮축ᄒᆞ야시나입안히ᄂᆞᆫ곳煙연灰회업고 만일두ᄑᆞᆯ굼티ᄲᅧ와무릅ᄲᅧᄅᆞᆯ디아냐시면손발이ᄯᅩᄒᆞᆫ拳권縮축디아니ᄒᆞ얀ᄂᆞ니라 [注] 灰회燼신가온데셔혯쳐번者자ᄂᆞᆫ口구鼻비에엇디能능히지업소리오모롬이그목구무와곡뒤속에지와그으름이이시며업슴을驗험ᄒᆞ라可가히生싱前젼파死ᄉᆞ後후토거슬분변ᄒᆞ리니라○ᄐᆞ샹ᄒᆞᆫ빗치ᄐᆞ고검으면死ᄉᆞ後후傷샹이오기름나고누르면生싱前젼傷샹이니라

湯潑死

凡被熱湯潑傷者ᄂᆞᆫ其屍皮肉이皆拆ᄒᆞ고皮脫白色이오着肉者도亦白ᄒᆞ고肉多爛赤이니라○如在湯火內면多是倒臥ᄒᆞ되傷在手足頭面胸前ᄒᆞ고如因鬪打ᄒᆞ야

或頭撞脚踏手推在湯火內민多在兩後脥與臂腿

上이오或有打損處ㅣ면其瘢ㅣ不甚起ᄒᆞᄂᆞ니與他所盪

으로不同이니라

ᄭᅳᆯᄂᆞᆫ물시텨주근거시라

믈읫ᄭᅳᆯᄂᆞᆫ물시텨傷샹ᄒᆞᆷ을닙은者쟈ᄂᆞᆫ그屍시

ㅣ갓과ᄉᆞᆯ히다터디고갓치버서흰빗치오ᄉᆞᆯ히

붓스튼것도ᄯᅩᄒᆞᆫ희고ᄉᆞᆯ이만히더여븕으니라○

만일ᄭᅳᆯᄂᆞᆫ물과블속에이시면만히이러구러누

어시ᄃᆡᄡᅩᄅᆞ려것구러단거시라상쳬手슈足족과頭두面면

과胸흉前젼에잇고만일ᄲᅡ화틈을因인ᄒᆞ야或

혹머리로밧거나발로ᄇᆞᆲ거나손으로밀텨湯탕火화內닉에두어시면만히이두오금과臏듄腿되우희잇고샹쳬뒤희이심은ᄂᆞᆷ의게길티여심이라或혹터셔손샹ᄒᆞᆫ곳이이시면그皰포ㅣ甚심케니디아닛ᄂᆞ니다ᄅᆞᆫ듸盪탕ᄒᆞᆫ바로다ᄆᆞᄌᆞ디아니ᄒᆞ니라盪탕은믈ᄂᆞᆫ물에推츄盪탕ᄒᆞ욤이니러셔샹ᄒᆞᆫ곳은쓸ᄂᆞᆫ물에더여도ᄀᆞᆺ깃치심히니디아니ᄒᆞ야손샹티아닌곳盪탕ᄒᆞᆫ것과다ᄅᆞ단말이라

中毒死

服毒死를驗時에用銀釵ᄒᆞ되以皂角水로揩洗過ᄒᆞ야探入死人口中喉內ᄒᆞ고以紙密封ᄒᆞ이라良久取出ᄒᆞ야

作靑黑色이어든 再用皂角水揩洗ᄒᆞ야 其色이 不去ㅣ라
사 卽是오 如無ㅣ면 其色이 鮮白이니라 ○將白飯一塊
ᄒᆞ야 入死人口中喉內ᄒᆞ고 用紙盖一兩時辰이라가 取出
飯與雞喫ᄒᆞ야 雞亦死ㅣ라사 卽是니라 〔續〕英宗甲申에 命禁飯雞之法而
如有不可不用處ㅣ어든 用後에 俾卽去其雞者ᄂᆞᆫ 盖慮愚氓이 貪口ᄒᆞ야 誤喫傷命也ㅣ니 須體仁民之至意
ᄒᆞ야 毋敢泛忽ᄒᆞ라 生前에 喫物壓下ᄒᆞ야 入腸臟內면 試驗無證
ᄒᆞᄂᆞ니 卽自穀道內試ᄒᆞ라 其色이 卽見이니라 ○凡檢驗
毒死屍에 間有服毒已久ᄒᆞ야 蘊積在內ᄒᆞ야 試驗不出
者ㅣ어든 須先以銀釵로 探入死人喉訖에 却用熱糟
醋ᄒᆞ야 自下盦洗ᄒᆞ야 漸漸向上ᄒᆞ야 須令氣透ㅣ면 其毒氣

薰蒸ᄒᆞ야 黑色이 始現ᄒᆞ고 如便將熱糟醋ᄒᆞ야 自上而下

則其熱氣逼毒氣向下ᄒᆞ야 不復可見ᄒᆞᄂᆞ니 〔增〕自下腹로 次次罨

ᄒᆞ야 毒氣黑色이 始見後에 自上以熱醋酒로 復罨則不可復見외 見於穀道리니

上試探則用糟醋를 當反是니라 ○ 一法은 用大米或

粘米三升炊飯ᄒᆞ고 用淨糯米一升淘洗了에 用布袱

盛ᄒᆞ야 就於所炊飯上에 炊饋ᄒᆞ고 取雞子一箇ᄒᆞ야 打破

取白ᄒᆞ야 拌糯米飯令勻ᄒᆞ야 依前袱起ᄒᆞ야 着在前大米

粘米飯上이라가 以手三指로 緊握糯米飯ᄒᆞ야 如鴨子

大ᄒᆞ되 毋令冷ᄒᆞ고 急開屍口ᄒᆞ야 齒外放着ᄒᆞ고 及用小紙

三五張ᄒᆞ야 搭遮屍口耳鼻臂陰門之處ᄒᆞ고 仍用新綿

絮三五條ᄒᆞ되 釅醋二三五升을 用猛火煎數沸ᄒᆞ고 將綿
絮放醋鍋內ᄒᆞ야 煮半時取出ᄒᆞ고 仍用糟罨屍ᄒᆞ고 却將
綿絮盖覆ᄒᆞ라 若是死人이 生前被毒에인 其屍卽腫脹
ᄒᆞ고 口內黑ᄒᆞ고 臭惡汁이 噴來綿絮上ᄒᆞ야 不可近ᄒᆞᄂᆞ니
後에 除去綿絮ᄒᆞ면 糯米飯이 被臭惡之汁ᄒᆞ야 亦黑色
而臭ᄒᆞᄂᆞ니 此是受毒藥之狀이오 如無則非也ㅣ니라 試
驗糯米飯을 封申上司ᄒᆞ고 分明開說ᄒᆞ라 ○服毒藥은
或卽時發作ᄒᆞ고 其藥이 慢이면 或一兩日發作ᄒᆞ되 或是
䶢吐ㅣ어나 或吐不絶ᄒᆞᄂᆞ니 仍須於衣服上에 尋餘藥
及身死坐處에 尋藥物器皿之類ᄒᆞ라 ○凡中毒의 卒

多朦眛ᄒᆞ니至若屍首發變이亦類中毒이라檢覆之際애不可不仔細辨明이니라 附 銀釵飯鷄之法이俱未的確ᄒᆡ惟粘飯條ㅣ詳備ᄒᆞ야可行ᄒᆡ茲備錄ᄒᆞ야以資考擇ᄒᆞ노라

中듕毒독ᄒᆞ야죽은거시라 스ᄉᆞ로알고먹은거시服복毒독이오아디몯ᄒᆞ고먹은거시中듕毒독이라

毒독먹고죽은거슬검험홀ᄣᅢ애銀은釵차로ᄡᅳ듸皂조角각水슈로ᄡᅥ서死ᄉᆞ人인의입속목구무안희探탐入입ᄒᆞ고죠히로ᄡᅥ빅빅이封봉ᄒᆞ얏다가 死ᄉᆞ人인의입을틈업시봉홈이라 ᄀᆞ장오라매取취ᄒᆞ야내여靑쳥黑흑色석이되엿거든다시皂조角각

水슈로ᄡᅥ서그빗치업디아녀사곳이오만일업
스면독긔업슴이라그빗치叙치色식이라곱게희니라○白빅
飯반ᄒᆞᆫ뎡이ᄅᆞᆯ가져㕘ᄉᆞ人인의口구中듕喉후
內내예너코죠희로덥허ᄒᆞᆫ두時시辰신이나ᄒᆞ
얏다가밥을取취ᄒᆞ야내여ᄃᆞᆰ을주어먹여ᄃᆞᆰ이
ᄯᅩᄒᆞᆫ죽이사곳이니라〔증〕英영宗종甲갑申신에命명ᄒᆞ사飯반雞계ᄒᆞᆫ
ᄂᆞᆫ法법을禁금ᄒᆞ시되만일可가히ᄡᅳ지아니티못ᄒᆞᆯ곳이잇거든ᄡᅳᆫ후에ᄒᆞᆫ이곰즉시그ᄃᆞᆰ을바다
리게ᄒᆞ심은대개어린빅셩이입에貪탐ᄒᆞ야그릇먹어인명을傷샹히올ᄡᅡ념녀ᄒᆞ심이니모롬
이仁인民민ᄒᆞ시ᄂᆞᆫ지극ᄒᆞᆫᄠᅳᆺ을밧자와敢감히犯범忽홀티말라生ᄉᆡᆼ前젼에物
믈을먹어눕니ᄂᆞ려毒독物믈먹은후에음식을먹어독긔눕니여ᄂᆞ리단말

이라 腸장臟장內내에 드려시면 試시驗험ᄒᆞᆷ애 證증ᄒᆞᆯ꺼시 업ᄂᆞ니 곳 穀곡道도內내로부터 시험ᄒᆞ라 銀은釵차로시험ᄒᆞᆫ란 말이라 그 빗치 즉시 뵈ᄂᆞ니라 ○믈읫 독약으로 죽은 屍시ᄅᆞᆯ 檢검驗험ᄒᆞᆷ에 간혹 毒독 먹언디 이믜 오라야 빠혀 속에 이셔 試시驗험ᄒᆞ야도 나디 아니ᄒᆞᄂᆞᆫ 者쟈ㅣ 잇거든 모롬이 몬져 銀은釵차로ᄡᅥ 죽은 사ᄅᆞᆷ의 목굼긔 探탐入입ᄒᆞ야 ᄆᆞᄌᆞᆷ애 믄득 더운 糟조와 醋조로ᄡᅥ 아래로 시신 下하半반이라 부터 덥고 비서 漸졈漸졈 우흘 向향ᄒᆞ야 모롬이 긔운이 ᄉᆞ뭇게 ᄒᆞ면 그 毒독氣긔 熏훈

蒸증ᄒᆞ야검은빗치비로소뵈고만일믄득더운
糟조와醋조를가져우흐로시신上샹半반이다부터ᄂᆞ리
우면그더운긔운이毒독氣긔를펍박ᄒᆞ야아래
로向향ᄒᆞ야다시可가히보디못ᄒᆞᄂᆞ니【증】下하腹복으
로부터次ᄎᆞ次ᄎᆞ덥혀毒독氣긔검은빗쳐비로소뵌後후에우부터더운초와술로베디시덥흐
면可가히다시보디못ᄒᆞ고穀곡道도에뵈ᄂᆞ니라或혹糞분門문에셔試
시探탐ᄒᆞ려ᄒᆞ면糟조醋조쓰기를맛당히이와
샹반ᄒᆞᆯ띠니라이법에샹반히ᄒᆞ야우ᄒᆞ로부터ᄂᆞ리우란말이라○一일
法법은니ᄡᆞᆯ이나或혹출ᄡᆞᆯ三삼升승으로써밥
을딧고淨졍ᄒᆞᆫ糯나米미출슈쉬라一일升승을써일

워ᄢᅵ스매뵈보ᄒᆡ담아디은밥우희ᄯᅵ고ᄃᆞᆰ의알
ᄒᆞᆫ나흘가져올ᄒᆡ알이ᄯᅩᄒᆞᆫ가ᄒᆞ니라ᄲᅢ여흰거슬내야糯나
米미飯반에버무려고로게ᄒᆞ야前젼대로보ᄒᆡ
ᄡᅡ몬졋大대米미나粘뎜米미밥우희노하두엇
다가손세가락으로버糯나米미飯반을ᄃᆞᆫᄃᆞᆫ이
쥐여올히알만치ᄒᆞ되차게말고急급히屍시의
입을여러니밧게노코닛小쇼紙지三삼五오張
ᄯᅣᇰ을써屍시의口구耳이鼻비와臀둔과陰음門
문읫곳에븟텨막고仍잉ᄒᆞ야새소음三삼五오
條됴롤ᄡᅳ되됴흔초三삼五오升승을猛ᄆᆡᆼᄒᆞᆫ블

로써달혀두어소솜을히고소음을가져醋조鍋

과內닉(조ᄉᆞᆯᄒᆞᆫ릇셔라)그에너히달혀半반時시ㅅ만에

내고仍잉ᄒᆞ야糟조로써屍시를덥고믄득소음

을가져덥흐라만일이欬ᄉᆞ人인이生ᄉᆡᆼ前젼에

毒독을닙어실뎐댄그屍시곳부어脹챵ᄒᆞ고ㅁ

구內닉黑흑ᄒᆞ고臭취惡악ᄒᆞᆫ汁즙이소음우희

ᄲᅡᆷ어와可가히갓가이못ᄒᆞᄂᆞ니後후에소음을

아사업시ᄒᆞ면糯나米미飯반이臭취惡악ᄒᆞᆫ汁

즙을닙어ᄯᅩᄒᆞᆫ검은빗치오내나ᄂᆞ니이거시毒

독藥약바든형상이오만일업ᄉᆞ면아니니라糯나

飯반에검은빗과내업스면 독약형상이아니란말이라 試시驗험ᄒᆞᆫ糯나米

미飯반을封봉ᄒᆞ야上샹司ᄉᆞ에신보ᄒᆞ고分분

明명히열어뵐으리○毒독藥약먹은거ᄉᆞᆫ或혹

卽즉時시에發발作작ᄒᆞ고그藥약이ᄂᆞ리면或

혹一일兩냥日일에發발作작호ᄃᆡ或혹돌나吐

토ᄒᆞ거나或혹吐토키ᄅᆞᆯ슷디아니ᄒᆞᄂᆞ니仍잉

ᄒᆞ야모롬이衣의服복우희나ᄆᆞᆫ藥약 돌나토ᄒᆞᆫ 약이라

을炙ᄌᆞ며밋죽은의머무던곳에藥약物물과器

긔皿명의類류ᄅᆞᆯ炙ᄌᆞ라○믈윗中듕毒독이대

컨지曖ᄋᆡ昧미 의난ᄒᆞ야불명티 가나ᄒᆞᆫ단말이라 홈이만ᄒᆞ니屍

시首슈發발變변ᄀᆞᆺᄐᆞᆫ거시ᄯᅩᄒᆞᆫ毒독을마즘ᄀᆞᆺᄒᆞ디라檢검覆복ᄒᆞᆯ즈음애可가히仔ᄌᆞ細셰히ᄀᆞᆯᄒᆡ여ᄇᆞᆰ히디아니티못ᄒᆞᆯ띠니라 【補】 銀은釵차와飯반鷄계읫法법이中的뎍確확디못ᄒᆞ고오직粘뎜飯반條됴ㅣ詳샹備비ᄒᆞ야可가히行ᄒᆡᆼᄒᆞ얌즉ᄒᆞᆫ디라이예ᄀᆞᆺ초긔록ᄒᆞ야ᄡᅥ샹고ᄒᆞ야ᄀᆞᆯᄒᆡ의믈ᄌᆞ리케ᄒᆞ노라

【生前中毒死】 凡服毒死屍ᄂᆞᆫ口眼이多開ᄒᆞ고面이紫黯이어나或青色이오唇이紫黑ᄒᆞ고手足指甲이俱青黯ᄒᆞ고口眼耳鼻에間有血出ᄒᆞᄂᆞ니中毒도亦然ᄒᆞ니라○生前中毒은遍身이作青黑色ᄒᆞ고多日이면皮肉이尚存ᄒᆞ나亦作黑色ᄒᆞ고若經久ㅣ면皮肉이腐壞見骨ᄒᆞ되其

骨이 作黲黑色이니라 ○甚者는 遍身이 黑腫ᄒᆞ고 面作青黑色ᄒᆞ고 唇捲發皺ᄒᆞ고 舌縮이어나 或裂拆爛腫微出ᄒᆞ고 唇亦爛腫이어나 或裂拆ᄒᆞ고 指甲尖이 黑ᄒᆞ고 喉腹이 脹ᄒᆞ야 作黑色ᄒᆞ고 生皰ᄒᆞ고 身或青斑ᄒᆞ고 眼突ᄒᆞ고 口鼻眼内에 出紫黑血ᄒᆞ고 鬚髮이 浮ᄒᆞ야 不堪洗ᄒᆞ고 未死前에 須吐出惡物이어나 或瀉黑血ᄒᆞ고 糞門이 腫突出이어나 或大腸이 突出이니라 ○空腹服毒이면 惟腹肚ㅣ 青脹而唇口指甲은 不青이니라 ○飽後服毒이면 惟唇指甲은 青而腹肚는 不青이니라 ○虛怯老病人은 服毒便死ᄒᆞᄂᆞ니 腹肚口唇指甲이 皆不青者ㅣ어든 却須參以

他故ᄒᆞ라
生ᄉᆡᆼ前젼에毒독마자죽은거시라믈읫毒독을
먹어죽은屍시는口구眼안이만히열니이고ᄂᆞᆺ
치紫ᄌᆞ黯암ᄒᆞ거나或혹프른빗치오입시울이
紫ᄌᆞ黑흑ᄒᆞ고手슈足족指지甲갑이다靑쳥黯
암ᄒᆞ고口구眼안과耳이鼻비에간혹피나미잇
ᄂᆞ니毒독을마즌것도ᄯᅩᄒᆞᆫ그러ᄒᆞ니라○生ᄉᆡᆼ
前젼中듕毒독은遍변身신이靑쳥黑흑色ᄉᆡᆨ이
되고날이만ᄒᆞ면皮피肉육이오히려이시나ᄯᅩ
ᄒᆞᆫ검은빗치되고만일오램을디내면皮피肉육

이석어ᄈᆡ뵈듸그ᄈᆡ黲참엿튼검프른빗치라黑흑色ᄉᆡᆨ이되ᄂᆞ니라○甚심ᄒᆞᆫ者쟈ᄂᆞᆫ遍변身신이검어부엇고ᄂᆞᆺ치靑청黑흑色ᄉᆡᆨ이되고입시울이거두터부프럿고헤졸어디거나或혹ᄶᅵ여디고터디며허여디고부어져기나왓고입시울이ᄯᅩᄒᆞᆫ허여디고븟거나或혹ᄶᅵ여디며터디고指지甲갑ᄭᅳᆺ치검고목구무와비脹턍ᄒᆞ야검은빗치되고포진이ᄠᅡ고몸이或혹프른어룽디고눈이나오고口구鼻비眼안內ᄂᆡ예紫ᄌᆞ黑흑血혈이나고鬚슈髮발이듧셔싯기디못ᄒᆞ고죽디아니ᄒᆞᆫ前

젼에모롬이惡악物물을吐토出츌ᄒᆞ거나或혹
빔은피ᄅᆞᆯ瀉샤ᄒᆞ고糞분門문이부어突돌出츌
ᄒᆞ거나或혹大대腸장이突돌出츌ᄒᆞ얀ᄂᆞ니라
독먹기ᄅᆞᆯ만히ᄒᆞ야섈니 죽은재야이ᄀᆞᆺᄐᆞ니라 ○空공腹복에毒독을
먹어시면오직腹복肚두ㅣ青쳥脹턍ᄒᆞ고입시
울과指지甲갑은프르디아니ᄒᆞ니라○비부른
後후에毒독을먹어시면오직입시울과指지甲
갑은프르고腹복肚두ᄂᆞᆫ프르디아니ᄒᆞ니라○
虛허怯겁ᄒᆞ며老로病병ᄒᆞᆫ사ᄅᆞᆷ은毒독을먹음
애즉시죽ᄂᆞ니腹복肚두와口구脣슌과指지甲

갑이다프르디아니ᄒᆞᆫ者쟈ㅣ어든도로혀다ᄅᆞᆫ
연고로뼈ᄅᆞᆯ참고ᄒᆞ라

死後假作中毒 死後에將毒藥ᄒᆞ야灌入口中이면皮肉
與骨이只作黃白色이니라
죽은後후에거즛中듕毒독을삼은거시라죽은
後후에毒독藥약을가져口구中듕에부어녀흐
면皮피肉육과뼈다만黃황白ᄇᆡᆨ色ᄉᆡᆨ이되ᄂᆞ니
라

中蠱毒死 遍身上下頭面胸心이並深青黑色이오或
肚脹ᄒᆞ고或口內吐血ᄒᆞ고或糞門內瀉血이니라

버레의毒독마자죽은거시라遍변身신上샹下하와頭두面면과胸흉心심이다김흔青청黑흑色ᄉᆡᆨ이오或혹비脹챵ᄒᆞ고或혹입안희吐토血혈ᄒᆞ고或혹糞분門문안희피ᄅᆞᆯ瀉샤ᄒᆞ얏ᄂᆞ니라

中食果實金石藥毒死 其屍上下에或有一二處青腫ᄒᆞ되有類拳手傷痕ᄒᆞ고或成大片青黑色ᄒᆞ고并爪甲이黑ᄒᆞ고身體肉縫에微有血ᄒᆞ고或腹脹ᄒᆞ고或瀉血ᄒᆞ니이라

果과實실을먹엇거나金금石셕藥약毒독金금石셕

든약이라을마자죽은거시라그屍시ㅣ上샹下하에或혹ᄒᆞᆫ두곳이나프르고부음이이시되拳권手슈의傷샹痕흔ᄀᆞ톰이잇고或혹큰조각青청黑흑色ᄉᆡᆨ이되고아오로爪조甲갑이검고身신體톄肉육縫봉뼈ᄆᆞ듸ᄉᆞ이와밋굴신ᄒᆞᄂᆞᆫ곳이서르닛다혼솔이라에微미히피잇고或혹비도脹량ᄒᆞ고或혹피ᄅᆞᆯ瀉샤ᄒᆞ얀ᄂᆞ니라

中鼠莽草毒死 口唇이裂ᄒᆞ고齒齦이青黑色이니라○此毒은經一宿一日이라사方可驗이니九竅에有血汁流出이니라

鼠셔莽망草초毒독中듕國국江강南남에잇ᄂᆞᆫ거시라마자죽은
거시라口구唇슌이ᄶᅵ여디고ᄂᆞᆺ므음이青쳥黑
흑色식이니라○이毒독은ᄒᆞᆫ밤이나ᄒᆞᄅᆞ낫을
디나사보야ᄒᆞ로可가히驗험ᄒᆞᆯ거시니九구竅
교에血혈汁즙흘러나미잇ᄂᆞ니라

中砒礵野葛毒死 春夏秋冬애得一伏時ㅣ면遍身애
發小皰ᄒᆞ되作青黑色ᄒᆞ고眼睛이綻出ᄒᆞ고舌上애生小
刺皰ᄒᆞ고舌亦綻出ᄒᆞ고口唇이破裂ᄒᆞ고兩耳脹大ᄒᆞ고腹
肚ㅣ膨脹ᄒᆞ고糞門이脹綻ᄒᆞ고唇指甲에有青黑色ᄒᆞ되
若飽服時ㅣ면上一半이青ᄒᆞ고飢服時ㅣ면下一半이青

ᄒᆞ고外腎이脹大ㅣ니라

砒비霜상과野야葛갈ㅣ一일名명은鉤구吻문이毒독이만ᄒᆞᆫ거시라

毒독을마자죽은거시라春츈夏하秋츄冬동애

一일伏복時시오ᄂᆞᆯ子ᄌᆞ時시로부터ᄂᆡ일子ᄌᆞ時시ᄭᆞ지라ᄒᆞᆷ과ᄀᆞᄐᆞᆫ말이라

물어드면遍변身신애조포진이發발ᄒᆞ되靑청

黑흑色ᄉᆡᆨ이되고눈망울이터뎌나오고혀우희

조바ᄂᆞᆯ포진이나고혜ᄯᅩᄒᆞᆫ터뎌나오고口구脣

슌이破파裂렬ᄒᆞ고두귀脹턍ᄒᆞ야크고腹복肚

두ㅣ膨핑脹턍ᄒᆞ고糞분門문이脹턍ᄒᆞ야터디

고입시울과指지甲갑에靑청黑흑色ᄉᆡᆨ이이시

ᄃᆡ만일비부른새먹어시면上샹一일半반이프르고주린새먹어시면下하一일半반이프르고外외腎신이脹턍ᄒᆞ야크니라

中金蠶糞毒死 屍ㅣ瘦劣ᄒᆞ고遍身이黃白色이오眼睛이塌ᄒᆞ고口齒露出ᄒᆞ고上下口脣이縮ᄒᆞ고腹肚ㅣ塌ᄒᆞᄂᆞ니將銀釵驗ᄒᆞ면作黃浪色이니라○一云屍身이脹ᄒᆞ고皮肉이似湯火疱起ᄒᆞ야漸次爲膿ᄒᆞ고舌頭脣鼻皆破裂이니라

金금蠶잠南남方방에잇ᄂᆞᆫ거시라糞분毒독마자죽은거지라屍시ㅣ여외고遍변身신이黃황白ᄇᆡᆨ色ᄉᆡᆨ이

오눈망울이꺼디고口구齒치드러나고上샹下하입시울이주리혀고腹복肚두ㅣ꺼디ᄂᆞ니銀은釵차를가져驗험ᄒᆞ면누른빗치되ᄂᆞ니라○一일云운髭시身신이脹댱ᄒᆞ고갓과ᄉᆞᆯ히湯탕火화에皰포진이라더여넌포닌겄ᄀᆞᄐᆞ야漸졈次ᄎᆞ로곰기고혓머리와입시울과코히다破파裂렬다ᄒᆞ니라

中酒毒 腹脹ᄒᆞ고或吐瀉血이니라○飮酒相反ᄒᆞ면酒與物性相反이如螃蟹與灰酒同食ᄒᆞ면令人吐血ᄒᆞ며飮酒多食胡桃ᄒᆞ면令人嘔血之類ㅣ라吐瀉瘦弱ᄒᆞ고皮膚ㅣ微黑不破裂ᄒᆞ고口內無血ᄒᆞ고糞門이不出

이니라 ○ [補] 燒酒醉死者ᄂᆞᆫ 牙齒動搖欲落ᄒᆞ고 屍ㅣ 軟弱不硬ᄒᆞ고 口鼻에 間有血水流出이니라 ○ 燒酒를 不可以錫器盛이니 炖及過宿이어나 倘爲日稍久ㅣ면 飮之則能殺人ᄒᆞ되 其人이 面多有青黯이니라

酒쥬毒독마즌거시라 비脹턍ᄒᆞ고 或혹 피를 吐토ᄒᆞ며 瀉샤ᄒᆞᄂᆞ니라 우ᄒᆞ로 吐토ᄒᆞ고 아래로 瀉샤ᄒᆞ단 말이라 ○ 술믹음을 相샹反반케 ᄒᆞ면 술과 다ᄆᆞᆺ 物물性셩 相샹反반ᄒᆞᆫ 거시만 일게와 사회 든 술올 홈ᄭᅴ 먹으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 곰피를 吐토ᄒᆞ고 술 먹고 胡호桃도를 만히 먹으면 사ᄅᆞᆷ으로 ᄒᆞ여 곰피를 嘔구ᄒᆞᄂᆞᆫ 類류ㅣ라 吐토ᄒᆞ며 瀉샤ᄒᆞ야 여의며 약ᄒᆞ고 皮피膚부ㅣ 져기 검으되 破파裂렬티

아니ᄒᆞ고입안히피업고糞분門문이나오디아니ᄒᆞ얀ᄂᆞ니라○【出】燒쇼酒쥬에醉췌ᄒᆞ야죽은者쟈ᄂᆞᆫ牙아齒치ᄒᆞᆫ듸녀쌔디고저ᄒᆞ고屍시ㅣ軟연弱약ᄒᆞ야세디아니코口구鼻비에간혹핏믈흘너나옴이잇ᄂᆞ니라○燒쇼酒쥬ᄅᆞᆯ可가히듀셕그릇스로ᄡᅥ담지못ᄒᆞᆯ꺼시니불씨야밤을디내거나만일날되옴이져기오래면불씌디아니코여려날된거시라먹은則즉能능히사ᄅᆞᆷ을죽이ᄃᆡ그사ᄅᆞᆷ이ᄂᆞᆺ치靑청黯암ᄒᆞᆷ이만ᄒᆞᄂᆞ니라

中蠱毒死 頭面胸前이深靑黑ᄒᆞ고肚脹ᄒᆞ고吐血瀉血

이니라

蠱고毒독노올독이라 마자죽은거시라頭두面면과

胸흉前젼이깁히靑쳥黑흑ᄒᆞ고肚두ㅣ脹턍ᄒᆞ

고피ᄅᆞᆯ吐토ᄒᆞ며피ᄅᆞᆯ瀉샤ᄒᆞ안ᄂᆞ니라

中菌蕈毒死 皮肉이多裂ᄒᆞ고舌與糞門이皆露出ᄒᆞ고

手足指甲及身上이靑黑色이오口鼻에多出血이니라

菌균蕈심毒독버섯독이라 마자죽은거시라갓과솔

히만히ᄯᅴ여디고혀와糞분門문이다나왓고손

톱발톱과믿몸이靑쳥黑흑色ᄉᆡᆨ이오口구鼻비

에만히피낫ᄂᆞ니라

補 **中巴豆毒死** 口乾ᄒᆞ고兩臉이赤ᄒᆞ고五心이煩熱ᄒᆞ고痢不止ᄒᆞᄂᆞ니라

보 巴파豆두毒독마자죽은거시라입이므르고두ᄲᅣᆷ이븕고五오心심手슈足죡掌댱心심과胸흉心심이라이煩번熱열ᄒᆞ고리질이그치디아니ᄒᆞᄂᆞ니라

補 **中水銀毒死** 以黃金驗之ᄒᆞ야色白者ㅣ是니라

보 水슈銀은毒독마자죽은거시라黃황金금으로ᄡᅥ驗험ᄒᆞ야빗치흰者자ㅣ이니라

補 **服鹽滷死** 髮亂ᄒᆞ고手指甲이禿ᄒᆞ고胸前에有爪傷痕이니因痛極恨徧地滾跌自抓掐래라○身不發皰ᄒᆞ고口不破裂ᄒᆞ고

腹不胖脹ᄒᆞ고指甲이不青ᄒᆞ고鈠探에有黯色도이라洗之卽白ᄒᆞ고遍身이黃ᄒᆞ고兩眼이合ᄒᆞ고口中에或有涎沫ᄒᆞ고但其屍雖發變ᄒᆞ나心肺不爛ᄒᆞ고取汁煎之면猶能成鹽이니 增 凡人身所出血與水ㅣ皆鹹故로煮之則成鹽ᄒᆞᄂᆞ니獨以服滷死者之煮汁成鹽은鴈艣者ㅣ未詳ᄒᆡ라

史 鹽염滷로라ᄒᆞᆫ 쉬 ᄅᆞᆯ먹고죽은거시라머리털이어즈럽고손톱이무조러뎌고胸흉前젼에손톱으로傷샹ᄒᆞᆫ흔젹이잇ᄂᆞ니라 알ᄑᆞᆷ이極극ᄒᆞᆷ을因인ᄒᆞ야ᄲᅡ히두루구을며구러디며스스로손톱으로허위여심이라 ○몸에疱포ㅣ發발티아니코엽이까여디며터디디아니코비胖방

脹턍티 아니코 指지甲갑이 프르디 아니코 釵차로 탐시홈애 黯암色식이 이실ᄯᅢ라도 ᄲᅦ스면 조ᄇᆡ角각水슈로 ᄲᅥ슴이라 즉재 희고 遍변身신이 누르고 두눈이 ᄀᆞᆷ겻고 입가온대 或혹 춤거품이 잇고 다만 그 屍시ㅣ 비록 發발變변ᄒᆞ나 心심肺폐ᄂᆞᆫ 석디 아니ᄒᆞ고 心심肺폐 석디 아니면 그 밧 屍시기 변동티 아니ᄒᆞᄂᆞ니라 屍시汁즙을 取취ᄒᆞ야 달히면 오히려 能능히 소금이 되ᄂᆞ니라 增증 믈읫 사ᄅᆞᆷ의 몸에셔 나ᄂᆞᆫ 피와 다ᄆᆞᆺ 믈이 다 ᄧᅡᆫ故고로 달히면 소금이 되ᄂᆞ니 홀로 ᄯᅩ 슈 먹고 죽은 者쟈의 시즙 달혀 소금되므로 ᄲᅧ 증험을 삼음이 ᄌᆞ셰티 못ᄒᆞᄂᆞ니라

補 服水鹵死 錢許를 熱酒服則死호ᄃᆡ 七竅에 流血이니

라

(보) 氷빙片편龍룡腦노ㅣ라 먹고죽은거시라ᄒᆞᆫ돈ᄌᆞ음
을더인술에먹으면곳죽으ᄃᆡ七칠竅교에피ᄒᆞ
르ᄂᆞ니라

病患死

凡檢病死애問曾請何醫人喫甚藥고ᄒᆞ야對衆證ᄒᆞ야
取醫藥人의定驗疾狀ᄒᆞ라○驗病死人애須面色이
痿黃ᄒᆞ고體肉이羸瘦ᄒᆞ니或卒死人을經隔數日後
애却有執稱打殺이라도若身無痕損이면委是卒死ㅣ니
라○病死ㅣ値春夏秋初ᄒᆞ야經隔兩三日이면肚上兩

脇으로連臍下肋骨縫에有微靑色ᄒᆞ니此是病人이
死後에經日變動ᄒᆞ야腹內穢汚ㅣ發作ᄒᆞ야攻注皮膚
ᄒᆞ야致有此色이오不是生前에有他故ㅣ니切宜仔細니라
병드러죽은거시라
믈읫병드러죽은거슬검험홈애무ᄅᆞ되元원申신人인
의게롬이라무일즉엇더ᄒᆞᆫ醫의人인을請청ᄒᆞ야므슴
藥약을먹엿ᄂᆞᆫ고ᄒᆞ야여러증인을對ᄃᆡᄒᆞ야醫
의藥약ᄒᆞᆫ사ᄅᆞᆷ의定뎡驗험ᄒᆞᆫ병증상을취토ᄒᆞ
라○病병死ᄉᆞᄒᆞᆫ사ᄅᆞᆷ을驗험홈애모롬이ᄂᆞᆺ빗
치시드러누르고몸엣ᄉᆞᆯ히여외ᄂᆞ니或혹금히

죽은사ᄅᆞᆷ을數수日일이經경隔격ᄒᆞᆫ後후에믄
드려죽엿다잡아말ᄒᆞ리이실뎌라도만일몸에
痕흔損손이업스면실노이졸연히죽은거시니
라○病병드러죽은거시春츈夏하와秋츄初초
를만나兩냥三삼日일을經경隔격ᄒᆞ면肚두上
샹과兩냥脇협으로臍졔下하와肋륵骨골縫봉
에連련ᄒᆞ야微미히프른빗치잇ᄂᆞ니이ᄂᆞᆫ이病
병人인이死ᄉᆞ後후에날이디나變변動동ᄒᆞ야
ᄇᆡ속에더러운거시發발作작ᄒᆞ야皮피膚부로
몰니여이빗치微미青청色ᄉᆡᆨ이라이심을닐위미오이生

싱前젼에다ᄅᆞᆫ연괴이심이아니니브듸맛당히
仔ᄌᆞ細셰히홀띠니라
屍ㅣ肉色이痿黃ᄒᆞ고形體羸瘦ᄒᆞ고口眼이多合ᄒᆞ고腹
肚ㅣ低陷ᄒᆞ고兩眼이黃ᄒᆞ고兩手ㅣ拳微握ᄒᆞ고頭髮鬠
解脫ᄒᆞ고身上애或有新舊鍼灸瘢痕ᄒᆞ고餘無他故ㅣ면
卽是病死ㅣ니라 ○凡有死屍肥壯ᄒᆞ고無痕損不黃瘦
면ㅣ不得作病患死오又有屍首ㅣ無痕損이오只是黃
瘦ㅣ면亦不得據所見ᄒᆞ야只作病患死ㅣ니切須仔細驗
定因何致死라ᄒᆞ唯此最誤라ㅣ니
屍시ㅣ솔빗치시드러누르고形형體톄여외고

口구眼안이 만히 닷티이고 腹복肚두ㅣ ᄂᆞ자꺼
디고 두눈이 누르고 두손이 줌이 져기 쥐엿고 머
리털과 샹퇴 푸러디고 身신上샹애 或혹新신舊
구鍼침灸구 鍼침灸구ᄅᆞᆯ 새로 ᄒᆞ얏거나 혹 전에 ᄒᆞᆫ거시라 ᄒᆞᆫ瘢반痕흔
이 잇고 그밧긔 다ᄅᆞᆫ 연괴 업스면 곳이 病병드러
죽은거시니라 ○물읫死ᄉᆞ屍시ㅣ 肥비壯장ᄒᆞ、
고 痕흔損손이 업고 누르며 여외디 아니면 病병
患환死ᄉᆞᄅᆞᆯ 삼디 못ᄒᆞᆯ꺼시오 또 屍시首슈ㅣ 痕
흔損손이 업고 오직 이 누르고 여외면 또 ᄒᆞᆫ所소
見견만의거ᄒᆞ야 다만 病병患환死ᄉᆞᄅᆞᆯ 삼디 못

ᄒᆞ리니부터모롬이무어슬因인ᄒᆞ야致티死ᄉᆞ
ᄒᆞᆫ줄을仔ᄌᆞ細셰히驗험ᄒᆞ야定뎡ᄒᆞ라오직이
ᄆᆞ장그르ᄂᆞ니라

病患飢凍求乞在路死 其屍ㅣ形體瘦弱ᄒᆞ고肉色이
痿黃ᄒᆞ고口眼이合ᄒᆞ고兩手ㅣ微握ᄒᆞ고頭髮이緊ᄒᆞ고牙
關이閉ᄒᆞ고唇齒焦黃ᄒᆞ고唇不着齒니一本에云肉色이黃白ᄒᆞ고眼合이니라

病병들거나주리고얼어求구乞걸ᄒᆞ다가길희
셔주근거시라그屍시ㅣ形형體톄瘦수弱약ᄒᆞ
고ᄉᆞᆯ빗치시드러누르고口구眼안이닷티이고

두손이져기주이엿고머리터럭이緊긴ᄒᆞ고牙ᄉᆞ關관이닷티엿고입시울과니ᄅᆞ셔누르고입시울이니에다티아니ᄒᆞ얀ᄂᆞ니라 一일本본에니ᄅᆞ되ᄉᆞᆯ빗치黃황白ᄇᆡᆨᄒᆞ고눈이닷티엿다ᄒᆞ니라

邪魔中風卒死 其屍ㅣ多肥ᄒᆞ고肉色이微黃ᄒᆞ고口眼이合ᄒᆞ고頭髻緊ᄒᆞ고口有涎沫ᄒᆞ고遍身에無他故ㅣ면卽是卒死ㅣ니라 ○卒死於邪祟者ᄂᆞᆫ其屍不在肥瘦ᄒᆞ고兩手ㅣ握ᄒᆞ고手足爪甲이多青이니라 ○卒中死ᄂᆞᆫ眼開睛白ᄒᆞ고口齒開ᄒᆞ고牙關이緊ᄒᆞ고或口眼이喎斜ᄒᆞ고口角과鼻內에涎沫이流出ᄒᆞ고手脚이拳曲ᄒᆞ고肌肉

이不陷ᄒᆞ고面色이紫赤이니라
邪샤魔마와中듕風풍으로卒졸死ᄉᆞᄒᆞᆫ거시라
그屍시ㅣ만히ᄉᆞᆯ지고ᄉᆞᆯ빗치져기누르고口구
眼안이닷티이고샹퇴ᄃᆞᆫᄃᆞᆫᄒᆞ고입에춤거품이
잇고遍변身신애다ᄅᆞᆫ연괴업스면곳이졸연히
죽음이니라○졸연히邪샤祟슈에죽은者쟈ᄂᆞᆫ
그屍시ㅣ肥비瘦수에잇디아니코두손이주이
엿고手슈足죡爪조甲갑이만히프르니라○卒
졸中듕(中듕氣긔ᄒᆞ야죽은거시라)ᄒᆞ야죽은거ᄉᆞᆫ눈이열니
고안졍이희고口구齒치열니이고牙아關관이

緊긴ᄒᆞ고或혹口구眼안이喎와斜샤ᄒᆞ고입어

귀와코속에춤거품이흘너나고손발이옥아곰

고솔히껴지디아니ᄒᆞ고ᄂᆞᆺ빗치紫ᄌᆞ赤젹ᄒᆞ니

라

中暗風死 其屍ㅣ必肥ᄒᆞ고肉多滉白色이오口眼이閉ᄒᆞ고鬚髮이整齊ᄒᆞ고涎唾流溢이니○或暗風으로驚搐死者ᄂᆞᆫ口眼이多喎斜ᄒᆞ고手足이拳縮ᄒᆞ고臂腿手足이細小ᄒᆞ고涎沫이瘀流ㅣ라 ㅣ나以上五條大略이相似 作要在驗時에仔細分別ᄒᆡ라

暗암風풍氣긔色ᄉᆡᆨ이업슨ᄇᆞ롬이라 을마자죽은거시라그

屍시ㅣ반ᄃᆞ시ᄉᆞᆯ지고ᄉᆞᆯ히만히물근흰빗치오
口구眼안이닷티엿고상토와터럭이整정齊제
ᄒᆞ고춤이흘너넘떠엿ᄂᆞ니라○或혹暗암風풍
으로驚경搐축ᄒᆞ야죽은者쟈ᄂᆞᆫ口구眼안이만
히喎와斜샤ᄒᆞ고손발이옥아주리혀고폴파신
다리와손발이ᄆᆞ늘아젹엇고춤거품이ᄯᅩᄒᆞᆫᄒᆞ
르ᄂᆞ니라 以이上샹다ᄉᆞᆺ됴목大대略략이서ᄅᆞ 갓ᄐᆞ니죵외驗험ᄒᆞᆯ때애仔ᄌᆞ細셰히 分분別별ᄒᆞᆷ애잇ᄂᆞ니라

傷寒死 遍身이라 紫赤色이오 口眼이開ᄒᆞ고 有紫汗流ᄒᆞ고
唇亦微綻ᄒᆞ고 手不拳握이니라

傷상寒한에죽은거시라遍변身신이紫ᄌᆞ赤젹色ᄉᆡᆨ이오口구眼안이열니엿고紫ᄌᆞ汗한이이셔흐르고입시울이ᄯᅩᄒᆞᆫ져기터디고손이줌쥐이디아녓ᄂᆞ니라

時氣死 眼閉口開ᄒᆞ고遍身이黃色이오薄皮起ᄒᆞ고手足이俱伸이니라

時시氣긔시병이라로죽은거시라눈이ᄀᆞᆷ겻고입이열니엿고遍변身신이누른빗치오열온갓치니러낫고손발이다펴이엿ᄂᆞ니라

中暑死 眼合ᄒᆞ고舌與糞門이俱不出ᄒᆞ고面色이黃白

이니라
더위로마자주근거시라눈이ᄀᆞᆷ기엿고혀와糞분門문이다나오디아녓고ᄂᆞᆺ빗치黃황白ᄇᆡᆨᄒᆞ니라

被人鍼灸當下致死 須何醫人ᄒᆞ야驗鍼灸處ㅣ是不是穴道ᄒᆞ야雖無意致殺이나亦須說顯是鍼灸殺이오亦可科醫人罪니라

사ᄅᆞᆷ의게鍼침灸구ᄒᆞ이다가곳애致티死ᄉᆞᄒᆞᆫ거시라모롬이醫의人인다ᄅᆞᆫ의원이라을시겨鍼침灸구ᄒᆞᆫ곳이이穴혈道도ㅣ며아니를驗험ᄒᆞ야비

록致티殺살에ᄯᅳᆺ이업슴이나ᄯᅩᄒᆞᆫ모롬이이鍼
침灸구殺살인줄을널러ᄇᆞᆰ히고ᄯᅩᄒᆞᆫ醫의人인
의罪죄ᄅᆞᆯ科과ᄒᆞᆷ이可가ᄒᆞ니라

辜內病死 驗得元傷處ㅣ已是平復ᄒᆞ야別無行風入
瘡痕跡이오其屍形體瘦弱ᄒᆞ고肉色이痿黃ᄒᆞ고口眼이
俱合ᄒᆞ고兩手ㅣ舒展ᄒᆞ고某處에或有新鍼灸瘢痕이
屍傍에或有何藥貼이어든問得屍親或奴ᄒᆞ야說稱曾
請某醫看治어든句問得ᄒᆞ야委係患某病症이오曾用上
件藥餌調治면驗是辜內別增餘患身死ㅣ니라
고ᄒᆞᆫ안희病병드러죽은거시라驗험得득ᄒᆞᆷ애

처엄傷샹ᄒᆞ얏던곳이이믜平평復복ᄒᆞ야別별
로ᄇᆞ람이行힝ᄒᆞ야창쳐에든痕흔跡젹이업고
그屍시ㅣ形형體톄瘦수弱약ᄒᆞ고ᄉᆞᆯ빗치시드
러누르고口구眼안이다닷텻고두손이펴이엿
고아모곳에或혹새로鍼침灸구ᄒᆞᆫ瘢반痕흔이
잇고屍시ㅅ것희或혹므슴藥약貼텹이잇거든
屍시親친이나或혹죵ᄃᆞ려무러일즉아모의원
을請청ᄒᆞ야보아치료ᄒᆞ엿노라고ᄒᆞ거든불너
무리 그의원을불너 믓단말이라 실로아모病병症증알흠에
미이엿고일즉上샹件건藥약餌이 병다ᄉᆞ리ᄂᆞᆫ 거시藥약이

오먹는거시餌이니라 롤써調됴治치ᄒᆞ야시면驗험홈애

이고ᄒᆞᆫ안히別별로다른병을더ᄒᆞ야죽은거시

니라

男子作過死 男子ㅣ作過太多ᄒᆞ야精氣耗盡ᄒᆞ야脫欲於婦人身上者ᄂᆞᆫ眞僞를不可不察이니眞則陽不衰ᄒᆞ고僞則痿ᄒᆞᄂᆞ니라 〔通〕男女ㅣ因陰陽症死者ᄂᆞᆫ唇及指甲이多青黯ᄒᆞ야似毒死而色微淡ᄒᆞ고甚者ᄂᆞᆫ或遍身이皆紫ᄒᆞ고口眼이合ᄒᆞ고兩手ㅣ握ᄒᆞ고陽이縮小ᄒᆞ고餘精이流出ᄒᆞᄂᆞ니라

男남子ᄌᆞㅣ作작過과ᄒᆞ야죽은거시라男남子ᄌᆞㅣ作작過과를太대多다히ᄒᆞ야精정氣긔耗모盡진ᄒᆞ야婦부人인의身신上샹에셔脫탈欲

소방소로두다가졍긔탈진ᄒᆞ야죽은거ᄉᆞᆯ脫탈死ᄉᆞㅣ라ᄒᆞᄂᆞ니라ᄒᆞᆫ者쟈ᄂᆞᆫ眞
진僞위ᄅᆞᆯ可가히ᄉᆞᆯ피디아니티몯ᄒᆞᆯ꺼시니眞
진이면陽양이衰쇠티아녓고僞위면痿위ᄒᆞ얀
ᄂᆞ니라 [註] 男남女녀ㅣ陰음陽양症증을因인ᄒᆞ야죽은者쟈ᄂᆞᆫ입시울과밋指지甲갑이
만히青청黶암ᄒᆞ야毒독死ᄉᆞᄒᆞᆫ것ᄀᆞᄐᆞ되빗치져기淡담ᄒᆞ고甚심ᄒᆞᆫ者쟈ᄂᆞᆫ或혹遍변身신이
다검븕고口구眼안이닷티엿고두손이주이엿고陽양이주러뎌젹고나믄졍쉬흘너낫ᄂᆞ니라

凍死

本屍ㅣ項縮脚拳ᄒᆞ고兩手ㅣ抱胸ᄒᆞ고遍身이寒粟ᄒᆞ고
肉色이黃緊이니라○屍ㅣ眼合ᄒᆞ고舌與糞門이俱不
出ᄒᆞ고牙齒硬身直ᄒᆞ고口內有涎沫ᄒᆞ되不粘ᄒᆞ고用酒醋

洗ᄒᆞ야得少熱氣則兩腮紅ᄒᆞ야面如芙蓉色이니라

어러주은거시라

本본屍시ㅣ목이주리혀고발이가드텨고두손이가슴을안앗고遍변身신이소오름듯ᄒᆞᆫ슬빗치누르고죄이엿ᄂᆞ니라 혹니ᄅᆞ되黃황白ᄇᆡᆨ편석이라ᄒᆞ니라 ○ 屍시ㅣ눈이ᄀᆞᆷ겻고혀와糞분門문이다나오디아녓고牙아齒치세고몸이곳고입안희츔거품이이시되붓ᄃᆞ니디아니ᄒᆞ고酒주醋조로써씨서져기더운긔운을어드면두쌈이븕어ᄂᆞᆺ치芙부蓉용빗ᄀᆞᆺᄂᆞ니라

餓死

本屍ㅣ臍肚ㅣ貼腔ᄒᆞ고身體黃瘦ㅣ라니○一云渾身이黑瘦硬直ᄒᆞ고眼閉口開ᄒᆞ고牙關이緊噤ᄒᆞ고手脚이俱伸이니라

주려죽은거시라

本본屍시ㅣ臍제肚두ㅣ빗구레에부텃고身신體톄누르고여외니라○一월云운온몸이검고여외고세고곳고눈이ᄀᆞᆷ기고입이열니고牙아關관이緊긴히다믈렷고손발이다펴이엿다ᄒᆞ니라

攧死跌死

本屍ㅣ其處에皮破骨損ᄒᆞ되深淺長濶이各各若干이면委是生前에墜落崖下ㅣ어나或墜坑中ᄒᆞ야因傷身死ㅣ니라○自高撲地ㅣ어든看失脚處土痕蹤跡ᄒᆞ고仍量撲落處高低丈尺ᄒᆞ라○凡從樹及屋이어나臨高跌死者ㅣ어든看枝柯掛拏와幷屋高低와失脚處蹤跡파或土痕高下及要害處에須有抵隱이어나或磕擦痕瘢ᄒᆞ라若內損致命痕者는口眼耳鼻內에定有血出이니라○(補)自墮者는其力이在下ᄒᆞ니所傷이多在腿足及臂ᄒᆞ되所傷이宜半邊이오若被推墮者는其力

이在上ᄒᆞ니所傷이多在頭面及兩手腕ᄒᆞᄂᆞ니蓋推之力이大而人之一身이重莫如首ᄒᆞ니推而下之애勢必自顧則手腕이先至地而傷ᄒᆞ고或出於不知則頭面이先倒ᄒᆞ야重而下ᄒᆞᄂᆞ니雖未盡然이나大略如此ㅣ라總以詳察情由로爲要ㅣ니라

부드이텨죽은것과실족ᄒᆞ야죽은거시라

本본屍시ㅣ아모곳에나갓치싸여디고뻬손상ᄒᆞ야시ᄃᆡ深심淺쳔이며長쟝濶활이各각各각언마나ᄒᆞ면실로이生싱前젼에언덕아래써러디거나或혹굴헝가온대써러뎌傷샹흠을因인

ᄒᆞ야身신死ᄉᆞᄒᆞ거시니라○놉흔ᄃᆡ로무러ᄡᅡ
히다딜렷거든失실脚각ᄒᆞᆫ곳에土토痕흔蹤종
跡적을보고仍잉ᄒᆞ야다딜려ᄂᆞ려딘곳의高고
低뎌丈댱尺쳑을자히라○믈읫나모와밋집우
흐로조차나놉흔ᄃᆡ언덕이나므숨놉흔곳이라臨림ᄒᆞ야실
족ᄒᆞ야죽은者쟈ㅣ어든가지에걸니엿던ᄃᆡ와
아오로집의놉고ᄂᆞ즘과失실脚각ᄒᆞᆫ곳자최와
或혹土토痕흔므숨놉흔ᄃᆡ흙셔러딘흔젹이라의놉흠ᄂᆞ즘과
밋要요害해處처에모롬이抵뎌隱은隱은墊뎜이라ᄒᆞ
거나或혹磕합擦찰ᄒᆞᆫ흔젹과허물이잇ᄂᆞᆫ가보

라만일안ᄒᆞ로손샹ᄒᆞ야致티命명ᄒᆞᆫ흔젹은ㅁ
구眼안과耳이鼻비안ᄒᆡ定뎡코피나미잇ᄂᆞ니
라○[補]스ᄉᆞ로ᄲᅧ러딘者쟈ᄂᆞᆫ그힘이아래이시
니ᄂᆞ려(다리의힘을ᄡᅥᄂᆞ려더심이라)傷샹ᄒᆞᆫ배만히쉽다리와발과
밋볼헤이시ᄃᆡ傷샹ᄒᆞᆫ배맛당히半반邊변이오
(ᄒᆞᆫ편만잇단말이라)만일밀팀을닙어ᄲᅧ러딘者쟈ᄂᆞᆫ그힘
이우ᄒᆡ이시니(몸ᄋᆞᆺ편을더밀쳐심이라)傷샹ᄒᆞᆫ배만히頭두
面면과밋두손목에잇ᄂᆞ니대개밀티ᄂᆞᆫ힘이크
고사ᄅᆞᆷ의一일身신에무거옴이머리만ᄒᆞ니업
ᄉᆞ니밀려ᄂᆞ리팀애勢셰반ᄃᆞ시ᄉᆞᄉᆞ로돌본則

ᄌᆞ손목이몬져ᄡᅡ히니ᄅᆞ러傷샹ᄒᆞ고或혹아디
못ᄒᆞᄂᆞᆫ뒤나시면頭두面면이몬져것구러뎌유
등히ᄂᆞ려디ᄂᆞ니비록다그러티못ᄒᆞ나大대略
략이이ᄀᆞᄐᆞᆫ디라대총情졍由유ᄅᆞᆯᄌᆞ셰히ᄉᆞᆯ피
기로뻐종요ᄅᆞᆯ삼을ᄯᅵ니라

壓死

本屍ㅣ舌出睛凸ᄒᆞ고耳鼻口內에皆有血出이면認是
生前에墻倒屋塌ᄒᆞ야壓傷身死ㅣ니라○塌着要害處
ㅣ면屍ㅣ兩眼이欲出ᄒᆞ고舌頭ㅣ出ᄒᆞ고兩手ㅣ微握이니
라○屍ㅣ遍身이血淤紫黑色이오或鼻有血이어나或

清水出고ᄒᆞ、傷處ㅣ皆血癊赤腫고ᄒᆞ、皮破處四畔이赤
腫고ᄒᆞ、或骨과弁筋皮斷折니ᄒᆞ、ᄂᆞ樹木壓死ㅣ亦然니ᄒᆞ
要見所倒樹木斜傷着痕라ᄒᆞ、巖墻壓死야ᄒᆞ、其屍ㅣ若
有痕損든이어驗痕分寸고ᄒᆞ、作堅硬物壓着要害致命
라ᄒᆞ、若不壓着要害면ㅣ不致死라ㅣ니 ○死後壓은即無
此狀이니無痕跡든이어以銀釵로라驗是不是中藥라ᄒᆞ、○
凡檢舍屋及墻倒나ㅣ어石頭脫落야ᄒᆞ、壓着身死人여
其屍ㅣ沿身虛怯要害處에若有痕損든이어須說長
濶分寸고ᄒᆞ、作堅硬物壓痕고ᄒᆞ、仍看骨損與不損라ᄒᆞ、
디즐녀죽은거시라

本본屍시ㅣ혜나와시며안졍이도다나고耳이
鼻비口구內ᄂᆡ에다피나미이시면알건디이生
ᄉᆡᆼ前젼애담이것구러디거나집이문허뎌디즐
녀傷샹ᄒᆞ야身신死ᄉᆞ홈이니라○要요害해處
쳐를디즐녀시면屍시ㅣ두눈이버서나오고혀
ᄭᅳᆺ치나왓고두손이져기주엿ᄂᆞ니라○屍시ㅣ
遍변身신이피믜텨紫ᄌᆞ黑흑色ᄉᆡᆨ이오或혹코
히피잇거나或혹ᄇᆞᆰ은물이나고傷샹處쳐ㅣ다
血혈癊음ᄒᆞ야ᄇᆞᆰ으며부엇고갓치ᄲᅡ여딘곳도
네ᄐᆡᆨ히ᄇᆞᆰ으며부엇고或혹ᄲᅧ와아오로힘줄과

갓치ᄉᆞᆺ처디며부러뎟ᄂᆞ니남게디즐녀죽은거시ᄯᅩᄒᆞᆫ그러ᄒᆞ니부ᄃᆡ것구러딘남게빗기傷샹희온흔젹을보라巖암墻쟝(녀며뎌가ᄂᆞᆫ담이라)에디즐녀죽어그屍시ㅣ만일痕흔損손이잇거든흔젹分분寸촌을驗험ᄒᆞ고堅견硬경ᄒᆞᆫ物믈에要요害해ᄅᆞᆯ디즐녀致티命명ᄒᆞ다삼으라만일要요害해ᄒᆞᆫ듸ᄅᆞᆯ壓압着탹ᄒᆞ디아녀시면죽기예닐위디아니ᄒᆞᄂᆞ니라○死ᄉᆞ後후에디즐닌거슨곳이런형상이업ᄂᆞ니痕흔跡젹이업거든銀은釵차로ᄲᅢ中듕藥약이올ᄒᆞᆫ가아닌가驗험ᄒᆞ라○

믈읫집과밋담이업더디며돌히뎌러뎌디즐녀身신死ᄉᆞᄒᆞᆫ사ᄅᆞᆷ을檢검홈애그屍시ㅣ沿연身신ᄒᆞ야虛허怯겁ᄒᆞ고要요害해ᄒᆞᆫ곳에만일痕흔損손이잇거든모로미기리와너븨分분寸촌을닐으고堅견硬경ᄒᆞᆫ物믈의디즐닌흔적을삼고仍잉ᄒᆞ야ᄲᅧ손샹ᄒᆞ며다ᄆᆞᆺ손샹티아님을보라

壓塞口鼻死 凡被人以衣服或濕紙로搭着口鼻死則腹이乾脹이니라○被人以物로壓塞口鼻ᄒᆞ야出氣不得ᄒᆞ야命絶死者ᄂᆞᆫ眼開睛突ᄒᆞ고口鼻內에流出清

血水ᄒᆞ고 滿面血癊赤黑色이오 糞門이 突出ᄒᆞ고 及便溺ㅣ汚壞衣服이니라【補】被物壓而死者ᄂᆞᆫ 其兩手와 外膊에 不拘上下ᄒᆞ고 兩足後骨과 並心胸之前에 必俱各有微傷ᄒᆡ라 方是ㅣ니 蓋悶至睛突ᄒᆞ면 壓之必重ᄒᆞ되 身雖不能展動ᄒᆞ야 未有倂手足壓定ᄒᆞ야 不能稍動者ㅣ니 如或倂縛其手足則亦當驗有無束縛傷痕이니라 ○屍身이 無痕損ᄒᆞ고 惟面色에 有青黯이어나 或一邊이 似腫이면 多是被人以物로 搭口鼻及罨塢殺이니 更看手足에 有無繫縛痕ᄒᆞ라 舌上에 恐有嚼破痕이며 大小便二處에 恐有踏腫痕이니 若無此類ㅣ어든 方看口內에 有無涎唾ᄒᆞ며 喉間이 腫與不腫ᄒᆞ라 如有涎及腫이면 恐患纏喉風欬ㅣ니 宜詳이니라【補】或有將人飮醉ᄒᆞ고 厚其氊褥ᄒᆞ야 挾令橫臥ᄒᆞ고 候其睡熟然後에 將氊褥

ᄒᆞ야捲而束之倒立ᄒᆞ야片時卽死者ᄂᆞᆫ幷無口眼血出ᄒᆞ니雖或微有ㅣ淨洗면卽無而酒氣倍爲薰蒸ᄒᆞ니

○補凡脹在兩肋及心胸之前ᄒᆞ야按之堅實고擊之無聲者ᄂᆞᆫ卽此是也라若檢骨則傷在項心及兩足心骨ㅣ라

口구鼻비ᄅᆞᆯ눌으고막아죽은거시라믈읫사ᄅᆞᆷ의게衣의服복이나或혹저즌죠희로ᄡᅥ口구鼻비ᄅᆞᆯ막히여죽어시면비乾간脹턍먹은것업시부름이라ᄒᆞᄂᆞ니라○사ᄅᆞᆷ의게物믈노ᄡᅥ口구鼻비ᄅᆞᆯ눌너막히여긔운을내디못ᄒᆞ야命명絕졀ᄒᆞ야죽은者쟈ᄂᆞᆫ눈이열니이고망울이나오고口구鼻비안희뭄은핏물이흘너나오고ᄂᆞᆺ치마ᄃᆞ이피

미며赤젹黑흑色식이오糞분門문이나오고밋
똥오좀이衣의服복을더러엿ᄂᆞ니라 닌 다믈로 디줄너주
입을납은者쟈는그두손과ᄡᅡ외縛박이上샹下 하ᄅᆞᆯ혜디말고두발뒷ᄲᅧ와다뭇가슴앏히반ᄃᆞ
시다각각져기傷샹홈이이셔사보야ᄒᆞ로이니 대ᄇᆡᄭᅵᆫ석홈이눈망울이나기예니ᄅᆞ러시면더
즐니미반ᄃᆞ시무거아ᄒᆞ엿고몸을비록能능히 펴움즉이더못ᄒᆞ나손파발을아오로더즐너定
명ᄒᆞ야能능히잠간도움즉이더못ᄒᆞᆯ者쟈ㅣ잇 디아니ᄒᆞ니만일或혹그손파발을아오로ᄆᆡ여
시면또ᄒᆞᆫ맛당히묵거ᄆᆡ야傷샹ᄒᆞᆫ흔 적이이시며업슴을驗험ᄒᆞᆯ며니라 ○屍시身
산이痕흔損손이업고오직ᄂᆞᆺ빗치青청黯암ᄒᆞᆷ
이잇거나或혹一일邊변이부운ᄃᆞᆺᄒᆞ면만히이
놈의게物믈로ᄡᅥ口구鼻비ᄅᆞᆯ막거나밋罨엄搗

오罨엄은덥고揚오는막단뜻이니더르고큰物물로ᄡᅥ온몸을다덥혀죽이단말이라 ᄒᆞ야죽이인거시니다시손과발에미엿던흔젹이
이시며업슴을보라혀우희저컨대녀흐러으처
딘흔젹이이시며大대小쇼便변두곳에저컨대
드듸여부은흔젹이이시리니만일이類류ㅣ업
거든보야ᄒᆞ로입안ᄒᆡ춤이이시며업슴과喉후
間간이부으며붓디아녀심을보라만일춤과부
음이이시면저컨대纏뎐喉후風풍목구무속이ᄇᆞ람으로부
은병이라을알하죽은거시니맛당히ᄌᆞ셰히ᄒᆞᆯ띠니
라【문】或혹사ᄅᆞᆷ을가저술먹여醉ᄎᆔ케ᄒᆞ고그듬이나요ᄅᆞᆯ듯거이ᄒᆞ야셔다가ᄒᆞ여곰ᄆᆞᄅᆞ누

이고 그 즘이 니기를 기드린 然연後후에 도과요
로가져 모라 뭇거 것구루 세워 片편時시 卽즉死
ᄉᆞᄒᆞᆫ 者쟈ᄂᆞᆫ 다 ᄆᆞ구 眼안에 피나 미엽고 비록 或
혹져기 이시나 가ᄉᆞᆷ이 시스면 주시 엽스되 酒쥬
氣긔 倍ᄇᆡ히 薰훈蒸증ᄒᆞᄂᆞ니라 ○生들 잇 脹챵
홈이 兩량肋륵과 믓 心심胸흉 ᄋᆡᆸ희 이셔 눌음 애흔
구더 實실ᄒᆞ고 려셔 소리 업ᄂᆞᆫ 者쟈ᄂᆞᆫ 곳이 올흔
디라 만일 ᄲᅧ로 檢검ᄒᆞ면 샹쳐 頂뎡心심과 믹 두
발장심 ᄲᅧ에 잇ᄂᆞ니

老人被搗死 老年人은 被手搗도ㅣ라 氣絕ᄒᆞᄂᆞ 是無痕而死也ㅣ니라 ○老年人은 被手掩이라도 死ᄒᆞ 亦無痕이니라

老로人인이 被피搗도 等ᄃᆞᆼ字ᄌᆞ ᄠᆞᆮ이니 지티이면 말이라 ᄒᆞ야 죽은거시라 老로年년 ㅂ엣 사ᄅᆞᆷ은 손으로 지티 일만

ᄒᆞ야도긔운이ᄉᆞᆺ처디ᄂᆞ니늙은사ᄅᆞᆷ은긔운이약ᄒᆞ고로손으로그

몸을잡아지러도죽단말이라이ᄂᆞᆫ흔젹업시죽은거시니라○

老로年년人인은손으로마리움을입과코를마리우단말이

라닙어도죽으되또ᄒᆞᆫ흔젹이업ᄂᆞ니라

隱墊死 凡被外物隱墊死者ᄂᆞᆫ肋後에有隱墊着紫

赤腫ᄒᆞ되方圓이三寸四寸以來오皮不破ᄒᆞ、ᄂᆞ、用手

揣捏得애筋骨이傷損이면此ㅣ最爲虛怯要害致命

去處라ㅣ니

隱은墊뎜ᄒᆞ야죽은거시라믈읫外외物믈의隱

은墊뎜아래잇ᄂᆞᆫ거시우ᄒᆞ로다딜너샹ᄒᆞᆷ이라흠을닙어죽은者쟈

ᄂᆞᆫ肋륵後후에隱은墊뎜ᄒᆞ인紫ᄌᆞ赤젹호부음이이시되方방圓원이세치네치즈음이오갓치ᄭᅡ여디디아녓ᄂᆞ니손으로달화눌음애힘줄과뼤傷샹損손ᄒᆞ야시면이ᄆᆞ장虛허怯겁要요害해엣致티命명處쳐ㅣ니라 ·

驚諕欬

本屍ㅣ目瞪口開ᄒᆞ고兩手ㅣ舒展ᄒᆞ야猶若怕怖之狀이면委是生前에驚諕身欬ㅣ니라 ·

놀나죽은거시라

本본屍시ㅣ눈을딕시ᄒᆞ고입을버리고두손이

편이어오히려무녀원ᄒᆞᆫ형상ᄌᆞ트면실로이
生ᄉᆡᆼ前젼에놀나身신死ᄉᆞᄒᆞ거시니라

人馬踏死

[補]人踏傷은成片而長ᄒᆞ되一頭重一頭輕ᄒᆞ고叢踏者ᄂᆞᆫ則輕重長短이不一이니라○有因爭鬪ᄒᆞ야殺子謀執ᄒᆞ야或將子手足ᄒᆞ고用脚跟ᄒᆞ야於喉下踏死者ᄂᆞᆫ以手按其喉ᄒᆞ면必塌이니라○[補]面色이紫赤或紫黑ᄒᆞ고若孩年十歲之外搦踏致死ᄒᆞ면手足或沿身上下에有捉定揉撲傷痕이니라○牛馬踏死ᄂᆞᆫ肉色이微黃ᄒᆞ고兩手ㅣ散ᄒᆞ고頭髻不慢ᄒᆞ고口鼻耳內에有血出ᄒᆞ고

痕이黑色이오踏傷이在要害處ㅣ면便死ᄒᆞ며或骨折이어나或腸臟이出이니라○若是築倒ㅣ어나或踏不着要害處ㅣ면卽有皮破瘾赤ᄒᆞ되痕色이黑ᄒᆞ고不致死ㅣ니라

○補馬驢騾踏傷者는有緩急叢亂之分이라馬는馳力이大ᄒᆞ나所傷處ㅣ小ㅣ나傷必骨折이어나或腸臟이出ᄒᆞ고擁擠仆地則踏傷이必多ㅣ나但不似馳驟者之力이重而折甚ᄒᆞ고驢騾踏傷은不獨較小於馬ㅣ라其傷之暈이凝聚而成形이니라○牛角觸傷은若皮破傷이면亦赤腫ᄒᆞ고觸着處ㅣ多在心頭胸前이오或在小腹脇肋ᄒᆞᄂᆞ니亦不可拘ㅣ니라○補牛觸傷은多在前

兩脇之下半ᄃᆡᄒᆞ若牛ㅣ佚而奔避不及則受傷이多
在脊背及脇之左右라ㅣ니
○사ᄅᆞᆷ과몸이ᄇᆞᆯ아죽은거시라
보 사ᄅᆞᆷ이ᄇᆞᆯ아傷샹ᄒᆞ거ᄉᆞᆫ조각이일워길오ᄃᆡ
ᄒᆞᆫ머리ᄂᆞᆫ重듕ᄒᆞ고ᄒᆞᆫ머리ᄂᆞᆫ輕경ᄒᆞ고여러히
ᄇᆞᆯ은者쟈ᄂᆞᆫ輕경重듕과長댱短단이ᄒᆞᆫ골ᄀᆞᆺ디
아니ᄒᆞ니라○爭정鬪투ᄅᆞᆯ因인ᄒᆞ야ᄌᆞ식을죽
여ᄢᅵᄒᆞ야잡ᄂᆞ니이셔(사ᄅᆞᆷ의죄ᄅᆞᆯ잡단말이라)或혹ᄌᆞ식의
손발을잡고발뒤축으로숨통아래ᄇᆞᆯ아죽인者
쟈ᄂᆞᆫ손으로ᄲᅧ그숨통을눌으면반ᄃᆞ시ᄭᅥ뎟ᄂᆞ

니라○【보】ᄂᆞᆺ빗치紫ᄌᆞ赤젹ᄒᆞ며或혹紫ᄌᆞ黑흑ᄒᆞ고만일어린아ᄒᆡ나히十십歲셰밧기오ᄂᆞᆯ으고ᄇᆞᆯ아致티死ᄉᆞᄒᆞ면手슈足족이며或혹온몸上샹下하에잡으며훌디르며부듸이저傷샹ᄒᆞᆫ흔젹이잇ᄂᆞ니라○牛우馬마ᄇᆞᆲ아죽은거ᄉᆞᆫ빗치져기누르고두손이흣터뎟고頭두髻계ᄂᆞᆺ디아니ᄒᆞ고口구鼻비耳ᅀᅵ안히피나미잇고흔젹이검은빗치오ᄇᆞᆲ아傷샹ᄒᆞᆷ이要요害해處쳐에이시면믄득죽으ᄃᆡ或혹ᄲᅧ부러뎟거나或혹腸쟝臟장이나왓ᄂᆞ니라○만일지티여것구러

덧거나或혹븕히여도要요害해處쳐에다담기
디아냐시면곳갓치까여뎌피뎌븕으미이시되
痕흔色석이검고죽기예닐위디아닛ᄂᆞ니라○
본 몰과나귀노새볿아傷샹ᄒᆞᆫ거슨緩완ᄒᆞ고急
급ᄒᆞ며잡되고어즈러움의분변이잇ᄂᆞᆫ디라몰
은돌리ᄂᆞᆫ힘이크니傷샹ᄒᆞᆫ티히젹으나샹쳬반
ᄃᆞ시ᄲᅨ부러디거나或혹膓쟝臟장이나오고더
덥펴밀텨ᄯᅡ히엽더뎌시면踏답傷샹홈이반ᄃᆞ
시만ᄒᆞ나다만돌리ᄂᆞᆫ것터로힘이重듕ᄒᆞ야부
러딤이甚심ᄐᆞᆫ아니ᄒᆞ고나귀와노새의踏답傷

샹ᄒᆞᆫ거슨몸에비겨젹을ᄲᅮᆫ이아니라그傷샹ᄒᆞᆫ
에음이어리고모도여형상이일웟ᄂᆞ니라○쇠
샐에딜녀傷샹ᄒᆞᆫ거슨만일갓치ᄭᅡ여뎌傷샹ᄒᆞᆫ
면ᄯᅩᄒᆞᆫ赤젹腫죵ᄒᆞ고딜니인곳이만히心심頭
두와胸흉前젼에잇고或혹小쇼腹복脇협肋륵
에잇ᄂᆞ니ᄯᅩᄒᆞᆫ可가히걸리ᄭᅵ디몯ᄒᆞ리니라쇼복
협륵외예도혹잇단말이라○[增]쇠게딜니인샹쳐ᄂᆞᆫ만히압
兩냥肋륵下하半반에이시되만일쇠노힌뒤奔
분避피ᄒᆞ다가밋처몯ᄒᆞ면傷샹ᄒᆞ욤이만히脊
쳑背븨와밋肋륵左자右우에잇ᄂᆞ니라

車碾死

本屍ㅣ肉色이微黃ᄒᆞ고口眼이開ᄒᆞ고手握髮緊이니라○傷處ㅣ多在心頭胸前과并兩脇肋ᄒᆞᄂᆞ、要害處ㅣ면便死ᄒᆞ고不是要害處ㅣ면不致死ㅣ니라

수리에딜니여죽은거시라 수리박희에킈이여죽단말이라

本본屍시ㅣ솔빗치져기누르고口구眼안이열니엿고손이쥐이고머리더럭이緊긴ᄒᆞ니라○傷샹ᄒᆞᆫ곳이만히心심頭두와胸흉前젼과아오로兩냥脇협肋륵에잇ᄂᆞ니要요害해處쳐ㅣ면

곳주고이要요害해處쳐ㅣ아니면致티殺살티

아니ᄒᆞᄂᆞ니라

雷震死

屍ㅣ肉色이黃焦ᄒᆞ고渾身이軟黑ᄒᆞ고兩手ㅣ或拳或散ᄒᆞ고口開眼斂ᄒᆞ고耳後髮際焦黃ᄒᆞ며頭髻披散ᄒᆞ고被燒着處ᄂᆞᆫ皮肉이堅硬而攣縮ᄒᆞ고身上衣裳이被天火燒爛이어나或不火燒ㅣ니라○傷損痕跡이在腦上及腦後ᄒᆞ되腦縫이多開니라○鬢髮이如焰火燒着ᄒᆞ고從上至下히有手掌大浮皮紫赤色ᄒᆞ되肉不損ᄒᆞ고胸項背膊上에或有似篆文痕이니라

우리에진력ᄒᆞ야죽은거시라

屍시ㅣ솔빗치누르며ᄃᆞ고온몸이무르고검고
두손이或혹쥐엿거나或혹혼터뎟고입이열니
이고눈이버서뎟고耳이後후髮발際제ᄃᆞ누르
고頭두髻계헛트러뎟고불ᄃᆞ인곳은天텬火화닙은곳이
라皮피肉육이堅견硬경ᄒᆞ며읆주럿고身신上
샹에衣의裳상이天텬火화에ᄃᆞ이엿거나或혹
불ᄃᆞ디아녀ᄂᆞᆫ니라○傷샹損손ᄒᆞᆫ痕흔跡적이
腦노上샹과腦노後후에이ᄉᆞ되腦노縫봉이만
히텃ᄂᆞ니라○鬢빈髮발이뭇불에ᄐᆡ옴ᄀᆞᆺ고우

부터아래ᄭᆞ지손바닥만ᄒᆞᆫ므랜든갓치검븕으며
븕은빗치이시되솔은손상티아니코胸흉項항
背비膊박우희或혹篆뎐文문ᄒᆞᆫ젹ᄀᆞᄐᆞᆫ거시잇
ᄂᆞ니라

酒食醉飽死

先集衆과並元同會首等人ᄒᆞ야對衆勘仵作行人ᄒᆞ야
用醋湯洗浴畢에先驗在身ᄒᆞ야如無痕損이면卽是酒
食醉飽過度ᄒᆞ야脹滿心肺致死니以手로拍肚皮ᄒᆞ면
膨脹而響이라니○仍取本家親骨肉狀ᄒᆞ되述死人生
前에當喫酒多少可以至醉ᄒᆞ고又取會首와並元請

喫酒家主人結連事狀과當日喫酒多少數目ᄒᆞ야以
驗致死因依ᄒᆞ라○凡喫酒食醉飽에致築踏內傷이면
亦可致死ᄒᆞᄃᆡ其狀이甚難明이라其屍外에別無他故
ᄒᆞ고惟口鼻糞門에有飮食과並糞帶血流出ᄒᆞ니遇
此形狀이어든須仔細體究曾與不曾與人交爭ᄒᆞ야因
而築踏라ᄒᆞ、見人照證이分明이라사方可定死狀이니

補 其屍遍身이微紅ᄒᆞ고口眼이俱開ᄒᆞ고兼有血出ᄒᆞ고兩手握ᄒᆞ고肚腹膨脹ᄒᆞ니

酒주食식에醉취飽포ᄒᆞ야죽은거시라

몬져여러사ᄅᆞᆷ과이ᄆᆞᆺ증인이라아오로ᄎᆞ엄ᄒᆞᆫ가디로
ᄒᆞ엿던會회首슈等등人인모다술먹던두사ᄅᆞᆷ이라을모

도아衆즁을對ᄃᆡᄒᆞ야作오作자行항人인을시
거조와당슈롤써벗거다홈애몬져몸에잇ᄂᆞᆫ거
슬驗험ᄒᆞ야만일痕흔損손이업스면곳이酒쥬
食식에醉취飽포홈을過과度도히ᄒᆞ야心심肺
폐脹턍滿만ᄒᆞ야致티欬ᄉᆡ홈이니손으로肚두
皮피롤두ᄃᆞ리면膨핑脹턍ᄒᆞ야소릐마조이ᄂᆞ
니라○仍잉ᄒᆞ야本본家가人인親친骨골肉육의
문장을取취봉됴홈이라호되欬ᄉᆡ人인이生ᄉᆡᆼ前젼
에맛당히술먹음이언마나ᄒᆞ야셔可가히버醉
취키예니ᄅᆞ던줄을칭술ᄒᆞ고베피고ᄒᆞ단말이라또會회

首슈와아오로처엄에請쳥ᄒᆞ야술먹던잡主쥬
人인의結결連련ᄒᆞᆫ事ᄉᆞ狀상상시에친ᄒᆞ며마결련ᄒᆞᆫ연위라
當당日일에술먹기ᄅᆞᆯ언마나ᄒᆞᆫ數수目목을취
최ᄒᆞ야버致티死ᄉᆞᄒᆞᆫ因인依의실인이라ᄅᆞᆯ驗험ᄒᆞ
라○믈읫酒쥬食식을먹어醉췌飽포ᄒᆞᆷ애지티
이고ᄇᆡᆯ피여속이傷샹키예ᄂᆞᆯ위면또ᄒᆞᆫ可가히
致티死ᄉᆞᄒᆞᄃᆡ그형상이甚심히ᄇᆞᆰ히기어려온
디라그屍시ㅣ밧게別별로다ᄅᆞᆫ연괴업고오직
口구鼻비와糞분門문에飮음食식과다ᄆᆞᆺ糞분
이피ᄅᆞᆯ띄여흘너나왓ᄂᆞ니이形형狀상을만나

거든모롬이仔ᄌᆞ細셰히體톄究구ᄒᆞ란말이리천쳘히구문
호ᄃᆡ일즉사ᄅᆞᆷ과서ᄅᆞ드토아因인ᄒᆞ야築츅踏
답ᄒᆞᆷ인가아닌가ᄒᆞ라본사ᄅᆞᆷ의照됴證증ᄒᆞᆷ이
分분明명ᄒᆞ야사보야ᄒᆞ로죽은ᄉᆞ상을定뎡ᄒᆞ
리니라【增】그屍시ㅣ遍변身신이微미히븕고口구眼안이다열니엿고兼겸ᄒᆞ야피나미잇고두손이쥐엿고肚두腹복이脹턍ᄒᆞ니라

虎咬死

多咬頭面項上ᄒᆞᄂᆞ니身上에有爪痕ᄒᆞᄃᆡ搯損痕傷處ㅣ成窟이어나或見骨ᄒᆞ고心坎胸前臂腿上에有傷處ㅣ니라○地上에有虎跡이어든勸畫工畫虎跡ᄒᆞ고並勸

村甲及被傷處鄰人供責ᄒᆞ야 爲證ᄒᆞ라 ○屍ㅣ 肉色이 黃ᄒᆞ고 口眼이 多開ᄒᆞ고 兩手ㅣ 拳握ᄒᆞ고 髮鬆散亂ᄒᆞ고 糞出이니라 ○傷處ㅣ 多不齊整ᄒᆞ고 有血舐齒咬痕跡이니라 一云月初엔 咬頭項ᄒᆞ고 月中엔 咬腹背ᄒᆞ고 月盡엔 咬兩脚ᄒᆞᄂᆞ니 猫咬鼠도 亦然ᄒᆞ니라

범무러죽은거시라

만히 頭두面면과 項항上샹을 물엇ᄂᆞ니 身신上샹에 톱흔적이 이시되 拏ᄃᆡ 損손 붓잡아샹ᄒᆞᆫ곳이라 ᄒᆞᆫ 痕흔 傷샹處쳐ㅣ 窟굴 ᄑᆞ이여구무단ᄃᆡ라 이 되거나 或혹 ᄲᅧ 뵈고 心심坎감과 胸흉前젼과 臂비腿퇴우희 傷샹處쳐ㅣ 잇ᄂᆞ니라 ○地디上샹에 虎호跡적이

잇거든畫화工공을시겨虎호跡젹을그리고아오로村촌甲갑리졍뤼라과믿被피傷샹處쳐물니던곳이라엣이옷사름을시겨供공責척취됴이라홈ᄒᆞ야증거를삼으라○屍시ㅣ손빗치누르고口구眼안이만히열니엿고두손이줌쥐엿고머리터럭이숫구러散산亂란ᄒᆞ고糞분이낫ᄂᆞ니라○傷샹處쳐ㅣ만히ᄆᆞ죽디아니ᄒᆞ고피를할트며니로ᄃᆡ흔痕흔跡젹이잇ᄂᆞ니라一일云운月월初초애는頭두項항을믈고月월中듕애는腹복背븨를물고月월盡진애는兩냥脚각을무ᄂᆞ니괴쥐룰물어도ᄯᅩ호그러ᄒᆞ니라

【補】癲狗咬傷死

被癲狗傷死ᄂᆞᆫ咬處에必有痕跡ᄒᆞ고腹脹硬ᄒᆞ고小腹墜脹ᄒᆞ고陰莖이挺出ᄒᆞ고或瘡乾而死ㅣ니라

【보】미친개무러傷샹ᄒᆞ야죽은거시라

미친개게傷샹ᄒᆞᆷ을닙어죽은거슨믄곳에반ᄃᆞ시痕흔跡적이잇고비脹턍ᄒᆞ야ᄃᆞᆫᄃᆞᆫᄒᆞ고小쇼腹복이처뎌 빗속이처뎌ᄂᆞ려심이라 脹턍ᄒᆞ고陰음莖깅이ᄲᅢ려낫고或혹창쳬ᄆᆞ르고죽ᄂᆞ니라

蛇虫傷死

凡被蛇虫傷死ᄂᆞᆫ其被傷處에微有齧損黑痕호ᄃᆡ四

畔이青腫ᄒᆞ고有青黃水流ᄒᆞ고毒氣灌注四肢ᄒᆞ야身體光腫ᄒᆞ고面黑이니라 ○ 死後被虫鼠傷은 即皮破無血ᄒᆞ고兼破處周回에有虫鼠齧破痕跡皮頭不齊去處ㅣ니라

蛇샤虫츙의게傷샹ᄒᆞ야죽은거시라

믈읫蛇샤虫츙의게傷샹홈을닙어죽은거슨그被피傷샹處쳐에져기너흐러손샹ᄒᆞᆫ검은흔젹이이시ᄃᆡ네녁ᄀᆞ이프르고븟고프르며누른믈이흘너나옴이잇고毒독氣긔四ᄉᆞ肢지에灌관注주ᄒᆞ야身신體톄光광腫죵ᄒᆞ게 번들번들ᄒᆞ게 부어심이라

ㅍᄂᆞᆺ치검으니라○죽은後후에虫츙鼠셔의계
傷샹ᄒᆞ인거ᄉᆞᆫ곳갓치ᄯᅮ려뎌도피업고兼겸ᄒᆞ
야ᄯᅮ려딘곳에음에虫츙鼠셔ㅣ너흐러허룬흔
젹갓머리ᄆᆞ죽디아닌곳이잇ᄂᆞ니라

雜錄

섯거긔록홈이라

晝夜之分써 先令辜限狀에明立時刻ᄒᆞ야方可准驗此法이니

晉書志에曰晝漏盡이爲夜ㅣ오夜漏盡이爲晝ㅣ니一
日之內에以其夜子正以前은屬今日ᄒᆞ고子正以後
ᄂᆞᆫ屬次日이라ᄒᆞ니此ᄂᆞᆫ晝夜와時刻之所由分也ㅣ라若

夫辜限은 如拳手毆人이면 例限十日ᄒᆞ니 計積千刻이라 以定辜限之內外와 與夫夜入人家之類ㅣ니 晝夜之分은 不可不詳이라 君子ㅣ 其明辨折獄이니 增 此條에 晝漏之盡於何時로 不復言ᄒᆞ고 且夜入人家ᄂᆞᆫ 以晝漏盡으로 爲限ᄒᆞ니 異於今制라 今當以人定罷漏로 爲限ᄒᆡ리

晝쥬夜야의 ᄂᆞᆫ호임이라 補 몬저ᄒᆞ여곰 辜고限ᄒᆞᆫ 狀장에 時시刻각을 ᄇᆞᆰ히 셰워사 보야ᄒᆞ로 가히 이 法법을 準쥰驗험ᄒᆞ리니라

晉진書셔志지에 ᄀᆞᆯ오ᄃᆡ 낫루쉬盡진홈이 밤이 되고 밤루쉬盡진홈이 낫이 되니 ᄒᆞᄅᆞ 안히 그 밤 ᄌᆞ시正졍ᄲᅧ前젼은 今금日일에 屬쇽ᄒᆞ고 ᄌᆞ시

正졍ᄢᅢ後ᄒᆞᆫ次ᄎᆞ日일에屬쇽ᄒᆞ다ᄒᆞ니이ᄂᆞᆫ
晝쥬夜야ᄋᆡ時시刻각의말미암아ᄂᆞᆫ호임이라
辜고限ᄒᆞᆫᄀᆞ튼거ᄉᆞᆫ만일拳권手슈로사ᄅᆞᆷ을더
시면법례에열흘을限ᄒᆞᄒᆞ야시니明병律뉼에ᄂᆞᆫ二이十십
日일이라혜오ᄃᆡ일쳔각을ᄢᅡ흠이라ᄒᆞᆯ니ᄇᆡᆨ각이니열흘이면일쳔
각이라ᄢᅵ辜고限ᄒᆞᆫ안팟파다ᄆᆞᆺ밤에사ᄅᆞᆷ의집의
드러간類류ᄅᆞᆯ定뎡ᄒᆞᆷ이니낫루쉬진ᄒᆞᆫ후에사ᄅᆞᆷ의집의드러가면
밤이라ᄒᆞᄂᆞ니라晝쥬夜야의分분을可가히ᄌᆞ세히아
니티못ᄒᆞᆯ따라君군子ᄌᆞㅣ그ᄇᆞᆰ히ᄉᆞᆯ희야獄옥
을결단ᄒᆞᆯ따니라 증 이됴목에晝쥬漏루ㅣ어ᄂᆞ셰예盡진ᄒᆞᆫ줄을다시니ᄅᆞᆫ

디아니코ᄯᅩ밤에ᄂᆞᆷ의집의드러간거슨晝쥬漏루盡진ᄒᆞᆷ으로ᄡᅥ限ᄒᆞᆷ을삼으니즉금법졔에다로디라이제ᄂᆞᆫ맛당히人인定뎡과罷파漏루로ᄡᅥ限ᄒᆞᆷ을삼을뎌니라

滴血

身體髮膚ᄂᆞᆫ受之父母ㅣ니蓋子ᄂᆞᆫ乃父之遺體而生之者ㅣ母也ㅣ라試就子身ᄒᆞ야刺一兩點血ᄒᆞ야滴父母骸骨上이면是親生則血이沁入骨內ᄒᆞ고否則不入ᄒᆞᄂᆞ니라

피ᄯᅥ르티ᄂᆞᆫ법이라

身신體톄와髮발膚부ᄂᆞᆫ父부母모의게바든거시니대개ᄌᆞ식은이에父부의기친體톄오나ᄒᆞ

니母모ㅣ라 시험ᄒᆞ야 ᄌᆞ식의몸에나아가ᄒᆞᆫ두
點뎜피ᄅᆞᆯ 딜니父부母모의骸ᄒᆡ骨골우희셔르
ᄒᆡ면이친ᄒᆞ나ᄒᆞᆫ이면피ᄉᆞᄆᆡ여ᄲᅧ속에들고아
니면드디아니ᄒᆞᄂᆞ니라

[補] 親子兄弟ㅣ 或自幼分離ᄒᆞ야 欲識認ᄒᆞ나 難辨眞僞ㅣ어든 令各刺出血ᄒᆞ야 滴一器之內ᄒᆞ면 眞則共凝爲一ᄒᆞ고 否則不凝也ㅣ니 但生血이 見鹽醋則凝ᄒᆞᄂᆞ니 先將所用之器ᄒᆞ야 當面洗淨이어나 或特取新器試之ᄒᆞ라 且滴血入水애 若器大水多ᄒᆞ야 兩相去遠이면 卽不能合이오 或滴水時에 略有前後ㅣ면 則血有冷熱之別ᄒᆞ야 亦

不能合也ㅣ니라 [補]滴骨之法이 孫亦可以驗祖ㅣ니 至夫婦ᄒᆞ야 各一父母ㅣ라 原非一處之分애 滴骨애 豈能或受ᄒᆞ야 如日滴之而受則懷抱他人初産之子而乳之以長者ᄂᆞᆫ 此子後天之質이 俱資此母氣血ᄒᆞ야 滋化而成ᄒᆞ야 滴之애 不愈當入乎아 恐未然矣로다

[보] 親친子ᄌᆞㅣ어나 兄형弟뎨ㅣ 或혹 어려셔 부터 ᄂᆞᆫ호여 ᄯᅥ나 긔지ᄒᆞ야 알고져 ᄒᆞ나 진딧과 거즛슬 ᄀᆞᆯ희기 어렵거든 ᄒᆞ여곰 각각 뎔 피ᄅᆞᆯ 내야 ᄒᆞᆫ 그릇 안희 ᄯᅥ르티면 진딧ᄉᆞᆫ ᄒᆞᆫ가지로 어우려 ᄒᆞ나히 되고 아니면 어우디 아니ᄒᆞ나 다만 生싱血혈이 소금과 초ᄅᆞᆯ 보면 어릐ᄂᆞ니 두피 각각 어릐여 ᄒᆞᆫᄃᆡ 어우디 못ᄒᆞᆷ이라 몬져 쓸 그릇슬 가져 當당面면 관개친히 보ᄂᆞᆫ

ᄃᆡ라ᄒᆞ야ᄲᅵ서ᄆᆞᆰ히거나或혹특별히새그릇솝가
져시험ᄒᆞ라ᄯᅩ피ᄅᆞᆯ셕르더물에ᄂᆡ홈애만일그
ᄅᆞ시크고물이만하둘의相샹去거ㅣ멀면곳能
능히어우ᄃᆡ못ᄒᆞᆯ꺼시오或혹물에셔르릴ᄯᅢ에
져기前젼後후ㅣ이시면곳피차며더움의다ᄅᆞᆷ
이이셔ᄯᅩᄒᆞᆫ能능히어우ᄃᆡ못ᄒᆞ리니라 보 ᄲᅧ에셕르티
ᄂᆞᆫ法법이孫손도ᄯᅩᄒᆞᆫ可가하ᄲᅧ祖조의게증험ᄒᆞᆯ꺼시나夫부婦부에니ᄅᆞ러ᄂᆞᆫ각각ᄒᆞᆫ父부母
모ㅣ라근본ᄒᆞᆫ곳에셔ᄂᆞᆫ호임이아니니ᄲᅧ에셔르티매엇디能능히或혹바드랴만일닐오ᄃᆡ셔
로터바드리라ᄒᆞ량이면ᄂᆞᆷ의곳나ᄒᆞᆫᄌᆞ식을품으며안아졋먹여벼ᄌᆞ란者쟈ᄂᆞᆫ이ᄌᆞ식後후天
텬읫긔질이다이毋모의氣긔血혈을ᄌᆞ뢰ᄒᆞ야지즈며化화ᄒᆞ야일워시니셔르티미더욱맛당

히드디아니ᄒᆞ랴저건대그러러아ᄆᆡ리로다

檢地

[補] 有極惡之人이 將人打死ᄒᆞ고 燒燬棄擲ᄒᆞ야 竟無骨可檢이어든 必爲詳究其打死何時며 燒燬何地ᄒᆞ야 但得其焚屍之地ᄒᆞ야 衆證이 分明이어든 當其處ᄒᆞ야 設立屍場ᄒᆞ고 令凶手見證으로 親爲指明ᄒᆞ야 將草芟淨ᄒᆞ고 多用柴薪ᄒᆞ야 燒令極熱ᄒᆞ고 取胡麻數斗ᄒᆞ야 撒上이가라 用帚掃之則麻內之油ㅣ 沁入土中ᄒᆞ야 卽成人形ᄒᆞ되 其被傷之處ᄂᆞᆫ 麻卽聚結於上ᄒᆞ야 大小方圓長短斜正이 一如其狀ᄒᆞ고 其所未傷之處則毫不沾戀ᄒᆞ야ᄂᆞ 旣

已得其傷形이나 然無可見之痕이어든 又將所戀之麻ᄒᆞ야 盡行除去ᄒᆞ고 將係人形所在ᄒᆞ야 猛火再燒ᄒᆞ야 和糟水潑上ᄒᆞ고 再猛燒極熱ᄒᆞ야 烹之以醋ᄒᆞ고 急用明亮新金漆桌ᄒᆞ야 覆上이가 라 少頃애 取驗則桌面之上에 全俱人形ᄒᆞ되 凡係傷痕이 纖毫畢見이니라

ᄯᅡ흘ᄀᆞᆷ험홈이라

[보] 極극惡악ᄒᆞᆫ사ᄅᆞᆷ이이셔사ᄅᆞᆷ을텨죽이고블ᄉᆞᆯ와ᄇᆞ려ᄆᆞᆺᄎᆞᆷ내ᄲᅧ도可가히檢검홀ᄭᅴ시업거든반ᄃᆞ시그텨죽임이어ᄂᆞ새며ᄉᆞᆯ오기ᄅᆞᆯ어ᄂᆡᄯᅡ히고ᄌᆞ셰히구획ᄒᆞ야다만그죽엄ᄉᆞᆯ온터흘

어더여러간증이分분明명ᄒᆞ거든그곳을當당ᄒᆞ야屍시場장(검시ᄒᆞᄂᆞᆫ터히라)을베풀고凶흉手슈(살인원범이라)와본증인으로ᄒᆞ여곰親친히ᄆᆞᄅᆞ쳐ᄇᆞᆰ혀풀을뷔여ᄇᆞᆰ히고만히새와장작을써불딜너極극히덥게ᄒᆞ고胡호麻마(ᄎᆞᆷ새라)두어말을가져우희펴노핫다가뷔로ᄡᅳᆯ면새속읫기름이흙속에ᄉᆞ믜여드러곳人인形형이되뒤그傷샹ᄒᆞᆫ곳에ᄂᆞᆫ새가그우희모도이여미텨크며젹으며모나며둥굴며길며뎌르며기울며바로기ᄒᆞᆫ골ᄋᆞ티그형상ᄀᆞᆺ고믈읫傷샹티아닌듸ᄂᆞᆫ됴곰도무

드며 븟ᄉᆡᆨ로 디아니ᄒᆞᄂᆞ니 이ᄆᆡ 그 傷샹ᄒᆞᆫ 형상을 어드나 그러나 可가히 불ᄒᆞᆫ 적이 업거든 ᄯᅩ 부튼 바 새를 가져다 처엽시ᄒᆞ고 人인形형이 잇ᄂᆞᆫ 바에 ᄆᆡ인 ᄃᆡ를 가져 猛ᄆᆡᆼᄒᆞᆫ 블로 다시 ᄐᆡ와 糟조와 물을 섯거 ᄲᅮ려 언ᄶᅩ 다시 猛ᄆᆡᆼ히 블 ᄯᅵᆯ ᄃᆡ 極극히 덥게ᄒᆞ야 초로 ᄲᅥ솜고 블 ᄯᅵᆯ은 ᄉᆡ우희 초를 ᄲᅮ리란 말이라 急급히 明명亮량 붉고 빗난 거시라 ᄒᆞᆫ 새 金금漆칠 탁ᄌᆞ를 가져 우희 덥헛다가 가져 근더시 取취ᄒᆞ야 驗험ᄒᆞ면 卓탁面면 우희 人인形형이 다 ᄆᆞ초이 듸믈읫 傷샹痕흔에 ᄆᆡ인 거시 纖셤毫호 져근 거시라 만 것도 다

뵈ᄂᆞ니라

【補】若荒郊曠野에 相沿日夕이면 卽本犯이라도 亦忘其定在니 惟嚴究係某莊之何方과 某廟之何側이며 相去約若干里ᄒᆞ야 衆口如同이어든 須親臨其地ᄒᆞ야 令人으로 遍擇草之高大肥澤이 與兩傍之草有異者ᄒᆞ야 則標以誌之ᄒᆞ고 焚屍之地因人脂膏ㅣ滲入草根ᄒᆞ야 爲日雖久ㅣ나 草終暢茂ᄒᆞ니 如係山野草澤之傍애 素産蒿萊之所則更加高大ᄒᆞ고 若於有石之處則以石之碎裂로 爲憑이니라

【번】만일 거츤 벌과 뷘 들헤 日일夕셕이 相샹沿연ᄒᆞ야시면 날이 오라ᄃᆞᆫ 말이라 곳 本본犯범 죄범ᄒᆞᆫ 사ᄅᆞᆷ이라 이라

도또ᄒᆞᆫ 그定뎡ᄒᆞ야잇던뒤로ᄂᆞ니즐ᄯᅢ니오직아
모촌장잇어ᄂᆡ편과아모산묘잇어ᄂᆡ겻ᄒᆡᄆᆡ이
여서며相샹去거ㅣ딤쟉에몃里리나ᄒᆞᆷ을嚴엄
히구획ᄒᆞ야여러읍이만일ᄀᆞᆺ거든모롬이그러
히親친히臨림ᄒᆞ야사ᄅᆞᆷ으로ᄒᆞ여곰풀의굴그
며셩ᄒᆞ기두편념헷풀과다르미잇ᄂᆞᆫ者자ᄅᆞᆯ두
루ᄅᆞᆯ리標표ᄒᆞ야ᄲᅧ보람ᄒᆞ고죽엄불ᄉᆞᆯ온더히사ᄅᆞᆷ의기름이풀
블휘에깁히드러ᄇᆞᆯ이비록오래나풀이못ᄎᆞᆷ내퍼지고무셩ᄒᆞᄂᆞ니라만일山산野
야ㅣ여나草초澤ᄐᆡᆨ겻ᄒᆡ빡이여명화쟈본ᄃᆡ나
ᄂᆞᆫ곳에ᄆᆡ이여시면더옥놉ᄒᆞ며굵기더ᄒᆞ고만

일돌잇ᄂᆞᆫ곳에면곳돌희부어디고터진거스로

ᄲᅧ돌히불에ᄐᆞ이여신이라빙험을삼을ᄯᅵ니라

論人身骨條

補人有三百六十五節ᄒᆞ니按周天三百六十五度ㅣ라

男子ᄂᆞᆫ骨白ᄒᆞ고婦人은骨黑이니라

人인身신骨골條됴를의론홈이라

보사ᄅᆞᆷ이三삼百ᄇᆡᆨ六륙十십五오節절이이시나周쥬天텬三삼百ᄇᆡᆨ六륙十십五오度도롤按안ᄒᆞᆫ디라男남子ᄌᆞᄂᆞᆫᄲᅧ희고婦부人인은ᄲᅧ검으니라

【補】髑髏骨은 男子ᄂᆞᆫ 自項及耳并腦後히 共八片이니 腦後에 橫一縫이오 當正直下至髮際에 別有一直縫ᄒᆞ고 婦人은 只六片이니 腦後에 橫一縫이오 當正直下에 無縫이니라 ○有牙二十四或二十八或三十二或三十六이니라 ○胸前骨이 三條ㅣ니라 ○心骨은 一片이오 狀如錢大니라 ○項與脊骨이 合二十四節이니 自項至腰히 二十四髓骨에 上有一大髓骨ᄒᆞ니 人身에 項骨이 五節이오 背骨이 十九ㅣ라 合二十有四ㅣ니 是項之大髓ㅣ 卽在二十四骨之內ㅣ니 ○肩井及左右飯匙骨이 各一片이니 ○左右肋骨은 男子ᄂᆞᆫ 各十二條ㅣ니 八條ᄂᆞᆫ 長ᄒᆞ고 四條ᄂᆞᆫ 短ᄒᆞ고 婦人은 各十四條ㅣ니라 ○男女腰間에 各

有一骨ᄒᆞ되大如掌ᄒᆞ고有八孔作四行樣이니라○手脚
骨이各二段이오男子ᄂᆞᆫ左右手腕及左右臁肕骨邊
에皆有髀骨ᄒᆞ고兩膝頭에各有顁骨이隱在其間ᄒᆞ야
如大指大ᄒᆞ고手掌脚板이各五縫이오手脚大拇指와
幷脚第五指ㅣ各二節이오餘十四指ᄂᆞᆫ幷三節이니라
○尾骶骨은若猪腰子ᄒᆞ야仰在骨節下ᄒᆞ되男子則其
綴脊處ㅣ凹ᄒᆞ고兩邊에皆有尖ᄒᆞ야瓣如稜角ᄒᆞ고周布
九竅ᄒᆞ고婦人則其綴脊處ㅣ平直ᄒᆞ고周布六竅ㅣ니라
○大小便處에各一竅ㅣ니라○骸骨을各用麻草小
索或細篾ᄒᆞ야串訖애各以紙簽으로標號其骨ᄒᆞ라檢驗

時에不致差誤가ㅣ니

【번】髑촉髏루骨골은男남子ᄌᆞᄂᆞᆫ項항으로부터귀와아오로腦노後후ᄭᆞ디共공이여ᄃᆞᆲ조각이니腦노後후에ᄒᆞᆫᄉᆞᆯ이ᄆᆞ르디고當당正졍ᄒᆞ야바로ᄂᆞ려髮발際졔에니르히別별노ᄒᆞᆫ고든ᄉᆞᆯ이잇고婦부人인은다만여ᄉᆞᆺ조각이니腦노後후에ᄒᆞᆫᄉᆞᆯ이ᄆᆞ르디고當당正졍ᄒᆞ야곳초ᄂᆞ린뒤ᄂᆞᆫᄉᆞᆯ이업ᄂᆞ니라○니ᄂᆞᆫ스믈네히어나或혹스믈여ᄃᆞᆲ이어나或혹셜흔둘히어나或혹셜흔여ᄉᆞᆺ시니라○胸흉前젼에엣ᄲᅧ三삼條됴ㅣ니라

○心심骨골은ᄒᆞᆫ조각이오형상이ᄃᆞᆫ만ᄒᆞ니라

○項항과다ᄆᆞᆺ脊적엣ᄲᅧ合합ᄒᆞ야二이十십四ᄉᆞ節절이니라 項항으로부터허리ᄭᆞ디ᄉᆞ믈비ᄆᆞ디ᄲᅧ에셔우희ᄒᆞᆫ큰ᄂᆞᆫ뎌ᄲᅧ이시니人인身신에項항骨골이五오節절이오脊비骨골이十십九구ㅣ라合합ᄒᆞ야스믈이오ᄯᅩ네히니이項항읫큰ᄲᅧᆺ ᄆᆞᄃᆡ가ᄀᆞᆺ二이十십四ᄉᆞ骨골읫肉뉵뇌에드릿ᄂᆞ니라○肩견井뎡과ᄃᆞᆺ左자右우飯반匙시骨골이죡격ᄲᅧ라各각ᄒᆞᆫ조각이니라○左자右우肋륵骨골은男남子ᄌᆞᄂᆞᆫ各각十십二이條됴ㅣ니八팔條됴ᄂᆞᆫ길고四ᄉᆞ條됴ᄂᆞᆫ뎌르고婦부人인은各각十십四ᄉᆞ條됴ㅣ니라○男남女녀腰요間간에各각ᄒᆞᆫᄲᅧ이

시ᄃᆡ크기손바닥만ᄒᆞ고여ᄃᆞᆲ구무이셔네줄로
양이되엿ᄂᆞ니라○손발은뼈各각두조각이오
손과손목이며발과발 목ᄉᆞ이에ᄆᆞ르딘뼈라 男남子ᄌᆞᄂᆞᆫ左자右우手
슈腕완과밋左자右우臁겸胭인骨골邊변에다
髀비骨골이잇고 부인은업ᄂᆞ니라 兩냥膝슬頭두에各
각顩염骨골이그ᄉᆞ이에숨어이셔大대指지의
큼만ᄒᆞ고手슈掌장과脚각板판이各각다ᄉᆞᆺ솔
이오手슈脚각大대拇모指지와다ᄆᆞᆺ脚각第뎨
五오指지各각두ᄆᆞ듸오나ᄆᆞᆫ十십四ᄉᆞ指지ᄂᆞᆫ
나세ᄆᆞ듸니라○尾미骶저骨골은 용문이 뼈라 猪제

腰요子ᄌᆞ 모양이돗틱콩ᄑᆞᆺᄀᆞᆺ단말이라 ᄀᆞᆺᄒᆞ야우러러骨골節
절아래이시ᄃᆡ 맨아래잇ᄂᆞᆫ뼤니무ᄭᅳᆺ치곱아ᄃᆞ흐로향ᄒᆞ얏ᄂᆞ니라 男남
子ᄌᆞᄂᆞᆫ그등ᄆᆞᄅᆞ에니인곳이오목ᄒᆞ고두편에
다尖쳠이이셔辦판이마룸샐ᄀᆞᆺ고아홉구뮈두
루펴엿고婦부人인은그등ᄆᆞᄅᆞ에니인곳이平
평直딕ᄒᆞ고여슷구뮈두루펴엿ᄂᆞ니라○大대
小쇼便변ᄭᅩᆺ에各각ᄒᆞᆫ구뮈라○骸ᄒᆡ骨골을각
각麻마草초小쇼索삭이나或혹마ᄂᆞᆫ대갓ᄎᆞ로
써ᄭᅦ여다ᄒᆞᆷ애 ᄎᆞ례로폐란말이라 각각紙지簽쳠으로ᄡᅥ
某모骨골이라標표號호ᄒᆞ라檢검驗험ᄒᆞᆯ새예

差차誤오티 아니ᄒᆞ리라

增修無冤錄諺解卷之三 終

無寃錄解 二